



11

198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11호

(루게 409)

◆◆◆◆◆◆◆◆◆◆

차 례

◆◆◆◆◆◆◆◆◆◆

저녁별들이 떠오르는 때	4
어머니 모습	5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자	6
18 년 후에	9
녀의사의 인사	19
흙모의 정 온 세상에 넘치네	20
저물녘의 붉은해(외 2 편)	21
황금빛 가을이여!	21
만폭동의 맑은 물	22
영희	23
꽃다발	29
배고동소리	35
창작적사색과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	36
탐구와 고민의 나날	41
묘향산의 두봉화	45
백수림의 봄시위	46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	54
조국의 새 지도를 그리리라	60

해당화 붉은 가슴에서	60
흙이여	61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62
향산별곡	66
묘향산에서	67
무릉도원	67
중편소설 《배고동소리》	68
버드나무	69
학습경연에서 만난 부부	74
당일군에 대한 생각	75
영원한 삶에 대한 시.....	77
산촌의 저녁길에	78
잊을수 없는 사람.....	78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영광을 안고 주인공처럼 살립니다.....	79

저녁별들이 떠오르는 때

김송남

글쭉들 사이로 사무쳐오는
그리움 못이겨
책을 덮고 조용히 창문을 여니
때마침 저녁별들이
떠오르는 때-

무엇을 속삭이는가
마주웃는 저 별들은
못잇을 어머니의 그 눈빛인듯,
방금 책에서 익힌
처창즈의 어렵던 날들이
눈앞에 보여오누나

우등불은 타오르고
쭈뼌을 갠 잠자리 흔들며
유격대의 웃음이 피던
그 날 그 저녁도
별들이 떠오르던 이러한 저녁...

송기를 벗기시던
하루해는 얼마나 길었던가
마지막 비상미 털어내시여
정성을 고이시고
마음을 다하시니
대원들은 그것도 진수성찬이라고

그 모습이 좋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좋아
어머님께서도 그리시던
그 한때의 낯알기운이였건만
남겨두셨던 자신의 몫마저
전우들에게 다 넘기시던
김정숙어머님.

전우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고
전우들이 남기고 간 그 웃음을
그대로 환하신 얼굴에 담으시던 어머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그 말씀
-오늘밤 나는 행복해요.

무엇을 행복이라 하시였던가
그 밤에 빛나던 저 별들이 말하누나
무엇이 그리도 큰 기쁨이셨던가
오늘에도 잊지 말자고
별들은 끝없이 속삭이누나

피어린 행군
눈바람속 잠자리
아버이장군님 따라
걸고 걸으신 싸움의 먼길
채봉대 귀틀집 추녀끝에도
환자를 돌보시던 풀막우에도
어머님 조용히 웃으실제면
반기는듯 떠오르던 그 별무리...

어머님 못잊어
이 밤도 저 하늘에 떠오르는것인가
기쁘고 즐거운 이 날
조국이 주는 은혜
생각깊이 받아안으라고

나는 저녁별을 세여본다
그 밤에 타오르던
우등불 마지막 불티가 튀는 소리
자리에 깔았던 쭈뼌의 진한 향기
이 맑은 창가에도 흘러드는듯

무엇을 행복이라 하시였던가
한몸 오로지 동지를 위해
언제나 자신을 잊으신 어머니
장군님의 높이신 뜻 받드는 싸움속에
어머님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삶의 기쁨 다 있었으니

아, 창문너머 저 멀리서
내 다 몰랐던 크나큰 행복이
끝없이 나를 불러주누나
어머님의 그윽한 눈빛인듯
때마침 저녁별들이 떠오르는 때...

어머니 모습

김영근

해가 가고
나이가 더할수록
내 철부지시절의 그 마음인양
때없이 그리운 품이 있어라

이른새벽
문득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에도
인자한 어머니 모습으로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영상

우리르면
다정한 미소로
누리엔 밝은 빛을
이 가슴엔 파사로운 봄물결을
가득히 안겨주는 당의 품
생각나라, 어린시절의 그 새벽
이 아들의 두볼에 피어나는 웃음을 두고
단꿈을 깨울세라
조용히 화로불에
저고리 덮혀주며 앉아있던 어머니

가슴에 젖어와라, 나이가 더할수록
어머니 덮혀준 그 저고리 차려입고
어머니 먼저 찬이슬 털어준
달맞이고개 넘어 내 학교로 갈 때
그날에는 다 몰랐던 그 파사함

오늘은 그 어머니의 파사로움으로
고마운 우리 당이
나를 보살펴주네
친어머니도 피워주지 못한
희망의 봄꽃을 가슴가득 피워주며

어린시절 그 새벽
찬이슬 털어주며
내 어머니 희망 안고 바래워주던곳은
새 학교의 종소리 울려오던
그 나지막한 달맞이고개였어도

어머니당이 나를 바래워주는곳
아, 그곳은
세기의 폭풍을 헤치며 그대 열어간
그 영광의 언덕
삶이 빛나는
인류 리상의 상상봉!

비길데 없어라
내 가꾼 이삭들 무겁게 설레일 때
남모르는 심장우에
아직은 비여있는 당원증주머니를 품고
들에 살던 그 마음 어느새 헤아려
이 아들을 더욱 가까이 안아주던 품

오늘은 그 품이 어머니 사랑으로
꿈꿨던 이 가슴에
대지를 갈아엎을 보습이 되라고
쇠물을 뚫어내는 장대가 되라고
하늘을 안으라고, 땅을 안으라고
노래의 큰 붓을 안겨주었어라

한마음 따르며 받드는 그 길에서
그대는 꽃바람만이 아닌
불바람속에도 나를 세워주었고
내 또한 믿음의 그 길에서
강철의 의지와
영원히 식지 않을 붉은 피 지녔거니

파사로와라, 그 품은
이 아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어머니의 다심한 눈길
강철의 심장을 준 용광로
빛내여갈 정치적생명의 영원한 보호자

살수 없어라, 그 품을 떠나서는
하늘이 끝나고
땅이 끝나는
이 세상 한끝에 내 홀로 있다 해도
해빛으로 안아주는 태양의 품이어

그때문에 아, 그때문에
그대 위해 바치리라
내 노래이면
가장 뜨거운 심장의 노래
생명이면
가장 깨끗한 충성의 삶을

폭풍이면 폭풍을 뚫고
불바다면 불바다 헤쳐넘으며
그 품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리라
아, 죽어서도 못떠날
당이어, 자애로운 어머니 품이어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자

김정웅

우리 시대의 의의깊은 사상, 주체시대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과 념원은 주인공의 형상속에 구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과 새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224페이지)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그려는것이다.

당일군의 형상창조문제는 우리 문학의 당성원칙을 확고히 고수관철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 문학의 사상교양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문학의 당성은 당의 유일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구현함으로써만 실질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우리의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적극 해설전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앞장서 투쟁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바로 당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실생활에 구현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당일군들의 활동과 투쟁을 깊이 있게 그려냄으로써만 문학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우리 문학의 당성원칙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다.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는 또한 문학작품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혁명적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과업으로 나설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당의 령도밑에 조직진행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는데서 당일군들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당일군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

지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생활창조에도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는 당일군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당일군의 형상을 떠나서 문학작품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는 문제를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에 당일군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진실하게 그려낸 장중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주체형의 당일군으로서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품모를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을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우리의 당일군들은 높은 정치사상적품모와 고상한 정신세계를 소유한 새형의 일군들이다.

우리 당일군들이 소유하고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려내야 문학작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명확히 보여줄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 우리 인민의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당의 향도의 손길과 따사로움이 뚜렷이 반영되게 될것이다.

장편소설 《령마루》(엄단웅)에서는 현시기 당중앙의 방침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언제나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고상한 혁명적품모와 인민적사업작품을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군중을 존경하고 너그럽게 대하여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가 되고 벗이 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4페이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는것은 주체형의 당일군들의 고유한 혁명적품성이다.

장편소설 《령마루》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광부들과 함께 살고 일하며 그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광산초급당비서 김성재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인민적품성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그자신이 오래동안 광산에서 일하여온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인 초급당비서 김성재는 광산의 모든 사업과 광산의 실정을 손금보듯 꿰들고있으

며 광산의 간부들로부터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다. 깊은 막장에 내려가 광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산자대중과 무릎을 맞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갯내 종합집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는 김성재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마치도 한 혈육과도 같이 친근하게 안겨온다.

김성재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인민적품성은 그가 막장에 내려가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병원의사와 함께 매 광부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던 김성재는 한 수리공에게 고질적인 기관지천식증이 있다는것을 알고 그 병을 치료할 대책을 의사와 토론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광부들의 건강에 대한 김성재의 깊은 관심은 광부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사랑의 손길이 더 따사롭게 미치게 하려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것임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초급당비서 김성재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소탈하고 겸허한 인민적품성을 구체적인 생활계기와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그의 이러한 인민적품모가 사람들의 심장속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신뢰의 정을 얼마나 뜨겁게 간직하게 하였는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언제나 대중과 함께 사고하고 생활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일군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이며 이러한 품모를 구체적인 생활화폭속에서 뚜렷하게 그릴 때 사람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리는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뚜렷이 그려내는것과 함께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령도적역할을 정확히 보여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문학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이 가지는 중요한 사상미학적의의는 바로 그 인물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뚜렷이 보여주는데 있다. 만일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그 인물의 사상정신적품모자체를 감명깊게 그리는데 그친다면 그러한 당일군의 형상은 다른 긍정인물들의 형상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될것이며 당일군의 형상으로써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것이다.

그 인물자체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품모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명확히 그려내면서도 그에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 사람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당의 거대한 위력과 전투적기능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어야 할 여기에 우리 문학에서 당일군의 영상이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 당일군의 형상이 노는 독자적인 사상미학적기능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학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

는 문제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작가들이 많은 창조적노력과 예술적탐구를 기울여야 할 문제로 제기되는 중요한 리유가 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사람들을 새생활창조으로 불러일으키는 당일군들의 활동과 투쟁을 잘 그리는것이다.

중편소설 《불꽃》에 등장하는 화학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장덕봉의 형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의의있는 형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 초급당비서 장덕봉은 언제나 낡은것, 보수적인것을 반대하고 새것, 선진적인것의 승리를 적극 고무하여주며 노동자들과 일군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당일군으로 형상화되었다. 건설부문에서 오랜기간 사업하여온 장덕봉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로숙한 수완을 지니고있다.

그는 《후령후령한 혼방직작업복》에 사출장화를 신고 드넓은 화학공장건설장을 쉬임없이 찾아다니며 노동자들을 혁신과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당사업방법을 체현하고있는 장덕봉은 사람과의 사업을 첫차리에 놓고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기울인다. 그는 기업소내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도 제기되는 행정경제사업이나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해당부문 일군들과 노동자들자신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아내며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향하도록 사람들의 심장을 불태워주며 그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믿음직하게 뒤받침하여 준다. 대규모의 화학공장건설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특수용접문제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인가, 아니면 웃기관이나 다른 공장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시공과장 방진과 용접지도원 김강호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조성되었을 때 김강호의 발기가 당정책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정당한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덕봉이었지만 방진과장을 정면에서 추궁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그릇된 결함을 스스로 뉘우치도록 꾸준히 교양해내는것이다. 작품은 당일군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과의 사업은 반드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지극히 정당한 사업도 오직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킬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는 의의깊은 사상을 뚜렷이 천명하였다.

소설에서는 특수용접공 양성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강호의 대담한 발기와 인내성있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며 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기울이는 장덕봉의 정력적인 활동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면서 기술적인 타산에 앞서 사람을 굳게 믿고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발양시켜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도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당조직의 구체적인 지도, 우리 당의 한없이 따사롭고 자애로운 향도의 손길을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바로 이러한 당조직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가 있고 사람들의 개인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풀여주며 그들에게

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쟁에 대한 불타는 지향과 열정을 심어주는 당일군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절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활동을 잘 그려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이란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불보다도 뜨거운 충성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이다. 그런데 회의에서 연설이나 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대답이나 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것만으로서의 오늘 우리 당일군들이 진행하는 사람과의 사업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 구체적인 형상적화폭을 떠난 일반적인 호소는 그것이 아무리 의의있는 내용을 담은것이라 할지라도 미학적감화력을 나타낼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일군들이 진행하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일군들의 지도적역할도 마땅히 생동한 생활화폭속에서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실감있게 그려져야 한다.

장편소설 《령마루》에서는 초급당비서 김성재가 진행하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김성재와 기사장 현우림의 호상관계, 김성재와 공장 박상만과의 관계, 김성재와 제대군인청년 강희철의 호상관계 등 작품에 설정된 여러가지 인간관계는 바로 당일군으로서의 김성재가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진지하게 정력적으로 벌려나가는가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자기가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하리라는것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뛰쳐나와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투신하는 광산기사장 현우림의 사업을 각방면으로 적극 뒤받침해주고 기사장의 안해 정순에게는 남편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볼데 대한 분공을 주며 현우림의 병치료를 위하여 자신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김성재가 사람과의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진심으로 진행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김성재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소설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일반적인 호소나 빈말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의 심장을 불태워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실속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때라야만 웅대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을 사무실에 앉아 말이나 하고 지시나 하는 인물로 묘사하여서는 우리 시대에 맞는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오늘 우리의 당일군들은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고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패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당일군들은 당사업에서 낡은틀과 채래식방법을 없애고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당일군을 형상하면서 기존틀과 낡은 수법을 버리고 새로운 형상방법과 수법을 적극 탐구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일군의 형상이라고 하여 그 어떤 고정된 격식과 틀이 있을수 없다. 당일군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이라고 하여 난관과 애로가 없으리 만무하며 그들의 심리세계가 결코 단순할리가 없다. 당일군의 성격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겪는 심리적고충이라든가 그들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통하여 그려내는것을 꺼려하거나 또는 그들이 아무런 난관도 없이 모든 사업을 척척 처리해나가는 《만능의 일군》으로 그려야 된다는 법은 없다.

장편소설 《령마루》에는 초급당비서 김성재가 자기 광산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지 못하는 사실을 두고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 있다.

여기서 김성재는 광산사업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총화하며 초급당비서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자신을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새로운 투쟁결의를 굳게 다진다. 작품에서 이러한 착잡한 심리적고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당일군으로서의 김성재의 품격에 손상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웅심깊은 내면세계와 소박한 품성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당일군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그를 정치 하나만을 알고 원칙 하나만을 내세우는 딱딱한 인간으로 그려놓는다면 당일군의 형상자체가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없고 작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도 옳게 보여줄수 없다. 정치사상적품도를 두드러지게 그려내면서도 그들의 고상하고 풍부한 인간성,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미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의 당일군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있으며 풍부한 지식과 로숙한 사업경험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인물들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손색없이 형상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일군의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려면 작가들자신이 당일군이 갖추어야 할 높은 정치사상적품모와 고상한 정신세계,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생활적으로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이 당일군들의 수준에 오르게 되고 그들이 당일군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자신의것으로 체득하게 될 때 그들은 문학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형상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낼것이다.

18 년후에

리택수

지배인실에서 협의회를 마치고 나온 용택은 윤기도는 두툼한 검은색 서류가방을 옆에 끼고 방과제건설장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부에서 조직한 지도소조에 망라되어 이곳 사업소로 오게 된 그는 선박직장을 맡아보기로 했던것이다. 방과제끝에 나선 용택은 현대적인 향으로 그뿐하게 꾸러진 부두를 이윽도록 바라다보았다. 감회가 새로웠다. 18년전 자기가 처음 이곳에 배치되었을 때는 1호부두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수만톤급 짐배를 한번에 수십척씩 가져다낼수 있는 큰 규모를 가진 향으로 변모된것이었다. 변한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십팔년전의 용택은 이곳의 잠수공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동해연선에 자리잡고있는 항만건설사업소의 지도원으로서 지도소조에 망라되어 그 옛날 자기가 사회생활의 첫발자국을 떼었던곳으로 지도사업을 내려오게 된것이었다. (그때 친구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있는지?…)

용택은 함께 제대배낭을 풀어놓았던 친구들이 그리워지며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앞에 떠올랐다. 진국이, 또 누구누구…

하지만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비록 경우와 경로는 서로 다르지만 자기처럼 희망에 따라 어데로든지 날아갔을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포부와 희망을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이곳을 떠난후 한동안 생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다 사십고개를 넘어서야 로동지도원으로 된 용택은 이번 일이 자기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계기로 될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했다. 용택은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개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해오는동안 꽤찮은 일숨씨를 보였던것이다. 지도소조의 평가도 좋았다. 사업소 지도원으로 물어두기는 아깝다는 뒤평가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마지막 지도대상인 이곳에서 자기의 능력과 수완으로 평가를 받고싶었다.

생각에 잠겼던 용택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나서 저쪽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선박직장사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로동규률준수정형도 그렇고 계획로력대 실적에 비추어 종업원 일인당 생산액이 그닥 높지 못한것으로 보아 직장내 종업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가 부족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장내 로동행정사업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난 용택은 로동규률준수정형과 특히 보장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는 실정에 비추어 종업원 일인당 생산액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있는데서 결함을 포착하고 나이 지숙한 직장장을 마주보며 따져물었다. 그는 용택의 예리한 판단과 분석에 저으기 놀란 표정을 짓고 난처해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다보니 부문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젊은 사람들속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를 가지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를 가지지 못하고 판데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단말이지요?… 음…그렇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한쪽 손끝으로 책상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던 용택이 다시 직장장의 얼굴에 눈길을 돌렸다.

《그래 그런 동무들의 속심이 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자기들의 발전전망이 없다는거지요.》

《발전전망이라?…결국 이 일터가 자기들의 포부와 희망에 맞지 않는다는것이구만… 아직까지 로동계급대렬내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도대체 어느 부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까?》

용택은 자못 분개한 표정으로 캐여물었다. 직장장은 그의 눈길을 외면한채 잠시 머뭇거리다 무겁게 말을 이었다.

《잠수부문입니다.》

《잠수부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작업반장동무

가 그들과의 사업을 실무적으로 하고있다는 결론인데 작업반장이 어떤 동무입니까?》

용택은 엄한 표정으로 직장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장 그에게 엄격한 추궁을 들이댈 잡도리였다.

《사실 그거야 작업반장동무보다 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데...》

직장장은 딱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추궁할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물론 직장장동무에게도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보다는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있는 반장동무가 그들에게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충성으로 빛내여가도록 교양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아무래도 그 반장동무를 직접 만나서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용택은 랭담한 표정으로 위엄있게 말했다. 한동안 말없이 창박을 내다보고있던 직장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금 만나보겠습니까?》

《작업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작업반원들을 만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질데 대한 문제와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충성으로 빛내여갈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담화사업을 할테니 그렇게 조직해주십시오.》

직장장은 말없이 책상우에 벗어놓았던 기름자욱이 들성들성한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수고하십니다. 찾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잠수작업반장...》

책상우에 펼쳐놓은 서류를 뒤적이며 잠수작업반장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던 용택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들문쪽을 쳐다보다 불에 덴것처럼 흠칫하며 두눈이 화등잔만해졌다. 문간에 선 사람도 전기에 닿은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들은 다같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린채 마주보기만 했다. 등글넙적한 얼굴에 시원하게 벗어진 이마, 치오른 눈썹밑에 언제나 깊은 사색이 어려있는 웅심깊어 보이는 눈, 인상적인 덩실한 코... 어덴가 모습이 변한것 같으나 틀림없이 십팔년전에 헤어진 진국이였다!

《아니 자네가?...》

《용택이!》

《진국이?!》

그들은 서로 꿈을 꾸는듯 어리둥절해서 마주보

고 서있다가 와락 달려들어 뜨겁게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처럼 빙글빙글 돌아갔다.

《야 이게 얼마만인가? 응...》

《난 부에서 내려온 지도소조성원이 찾는다기에 누군가 했더니 자네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직장장동무가 와서 은근히 맘을 뺏다고 하던데 대하기가 어마어마한걸.》

《예끼 이사람.》

용택은 진국의 어깨를 툭 쳤다. 그들은 깊은 우정을 안고 두손을 마주잡은채 유쾌하게 웃었다...

상봉의 감격과 흥분이 지나고나자 두사람은 벽쪽에 기대놓은 긴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난 자네가 아직까지 여기서 잠수공으로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네.》

《우리야 처음부터 잠수공이 되기로 맹세한 사람이 아닌가?》

《허허, 역시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군.》

《마음뿐일세. 그러다보니 자네에게까지 걱정을 시키게 되어 먼목이 없네.》 진국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거 내 립장을 너무 거북하게 만들지 말게.》

용택은 저절로 얼굴이 벌개졌다.

《허허... 그렇다면 용서하게.》

진국이 껄껄 웃고나서 감회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네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고보니 우리가 처음 이곳으로 오던 때 일이 눈앞에 선하구만.》

《그게 벌써 십팔년전 일이네.》

《십팔년이라... 그날은 류달리도 맑게 개인 날이었지.》

《그랬던가?...》

용택은 잊었던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먼바다 위에 시선을 보냈다.

흘러가버린 18년전 그때 일이 떠올랐다.

《자 여기가 바로 당이 맡겨준 우리의 새로운 혁명초소일세.》

제대배낭을 지고 항만건설장에 배치되어온 용택이와 진국을 비롯한 그 일행은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작업장을 둘러보며 흥분을 금치 못했다.

《해볼만한곳이군... 여기야말로 우리의 포부와 리상을 꽃피울수 있는 활무대일세.》

진국이 두손으로 허리를 짚고서서 준첩선이며 집체같은 부재를 물고 돌아가는 기중기배를 비롯한 갖가지 건설기계들이 쉬임없이 돌아가고있는 부두건설장을 둘러보며 가슴을 들먹이였다.

《역시 음악가다운 생각이군.》

먼 수평선을 바라다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용택이 그의 감정에 이끌려 넋지시 말했다. 《아닌게아니라 대교향곡이 나올것 같네... 그런데 동문 뭘 그렇게 생각하고있나? ... 혹시 처녀생각이라도 하는게 아니야?》

《처녀생각? 그럴수도 있지. 그러나 난 지금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걸 생각했네.》

용택은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새생활에 마음이 이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저 친구 너무 심각한게 탈이라니. 뭐 어떻게 될게 있나? 로력혁신자가 되고 다음에 아버지가 되겠지.》

결에서 한 친구가 끼여드는바람에 와- 웃음이 터졌다.

이때 모래를 실은 자동차가 혼잡장에 와닿자 처녀들이 샅을 들고 적재함으로 오르려 했다. 진국이 앞장서는바람에 모두 자동차적재함에 뛰어 올라가 수집어하는 처녀들에게서 샅을 빼앗아 눈 깜빡할 사이에 짐을 다 부리웠다. 그리고는 저쪽 모래밭로 달려가서 서로 안고 덩굴었다. 건강과 정열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꿈과 포부로 가득찬 청춘시절,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하고 좋은것인가! 그 정열과 포부를 안고 사업소에서 정해주는 초소로 고스란히 가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그 모든것이 넘쳐났다. 하여 그들은 사업소로 찾아가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겨줄것을 제기했다. 사업소에서는 그들에게 잠수공이 되어 주기를 바랐다. 항만건설장에서의 건설성과는 잠수공들의 손에 크게 달려있었다. 그런데 잠수공은 강의한 의지와 인내력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때문에 잠수공이 팔려서 건설성과를 더 높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잠수공이 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전혀 생각지 않던 생소한 길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고 가슴이 설레었다. 그날밤 합숙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포부와 희망으로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진국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격동적으로 부르고 또 불렀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일세... 사람이 그런 추억을 가지고있다는것은 행복한 일이지.》

깊은 감회에 잠겨있던 진국이 지나온 추억에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보내듯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난 일에 몰리다보니 그 추억을 다 잊을뻔했군.》

《자네야 지금 사업소로동지도원이라니까 그때 일을 잊을수도 있지.》

《너무 이러지 말게.》

용택은 허실한 미소를 짓고 기억에서 멀리 사라졌던 추억의 갈피를 다시 더듬어보았다.

.....

도래굽에 잠수배를 띄워놓고 첫 훈련을 하던 때 일이었다. 거인의 갑옷같은 잠수복차림을 한 다음 배전에 늘어놓은 사다리를 타고 물속에 몸을 잠근 용택은 두려운 생각으로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물둥이같은 시창과 공기호스가 달린 투구를 쓰고 그들은 교원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 구역을 향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머리위에 바라보이던 푸른 하늘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무수한 물방울이 시창앞으로 솟아오르면서 수만개의 광선이 연록색물속으로 비쳐들었다. 그 빛은 차츰 희미해지다 금시에 시야가 좁아졌다. 그 순간 용택은 갑자기 귀안의 고막이 죄여들면서 정신이 아찔해졌다. 공기조절을 잘못된탓에 돌덩이처럼 물밑으로 곧추 내려갔던것이다. 숨쉬기가 가빠졌다. 바닥에 내려선 그는 찌르는듯한 귀안의 아픔을 참느라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자석에 이끌리듯 몸이 허공 들리우면서 물위로 불쑥 솟아올랐다가 바다위에 벌렁 나뉘고말았다. 귀안의 아픔을 참느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이에 잠수복 안에 바람이 팍 찻던것이다. 그렇게 되면 팔다리도 움직일수 없을뿐더러 투구가 솟아올라 공기조절변이 이마에 닿지 않기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되는것이였다. 교원이 호스를 끄당겨 배전사다리에 가져다붙이고 투구를 비틀어 벗겨주어서야 겨우 가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얼마후 진국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용택이처럼 물위로 불끈불끈 솟아올랐다가 바다위에 벌렁벌렁 나뉘어졌다. 저녁때 그들은 합숙식당에서 성의껏 차려준 특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실에 들어가 침대우에서 끄끄 신음소리를 냈다. 용택은 코피가 터지고 진국은 멀미가 나서 먹은것을 다 토해버렸다. 그러나 진국은 침대머리맡에 걸어놓은 기타를 벗겨들고 전날밤에 부르던 노래를 힘있게 타고있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진국은 피가 흐르는 코를 솜으로 틀어막고 침대우에 걸터앉아서 기타를 탔다...

강의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마침내 그들은 신비로운 바다밑의 생활을 정복했다. 몸을 위장하고

절벽에 길게 드리워있는 문어의 화등잔만한 눈을 보고 놀라서 물우에 떠올랐던 진국은 그놈과 격투를 벌려 식당에 끌어다 식탁을 푸짐하게 차렸으며 공기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주 뒤걸음을 치던 용택은 먹이를 찾아 발자국에 모여드는 고기들을 창으로 찢어잡았다. 합숙식모들은 저녁마다 섭이여 생복과 밥조개를 비롯한 고급어족이 든 그물중태를 메고 돌아오는 그들을 개선장군처럼 반가이 맞아주었다. 저녁마다 사택마을 아이들은 삼발이가 까먹은 굴깍지와 조개껍질이 널려있는 바위짚을 보고 문어굴을 찾아내는 이야기며 물속에서 말타기를 하기도 하고 바닥에 둘러앉아 꼬니를 논다는 동화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호실로 찾아왔다. 얼마후 게시판에는 그들이 물속에서 부력을 리용하여 막돌 운반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킨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나붙었다. 그리고 도일보에는 수중기초다짐작업에 밀대식평정기를 창안도입한 소식이 크게 났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진국은 자주 멀미를 했다. 그때마다 그는 기타를 안고 《전호숙의 나의 노래》를 타고 또 탔다.

《정 어려우면 제때에 방향을 돌리라구. 동무야 협주단에서까지 데려가려고 하던 사람인데 얼마든지 화려한 무대로 나갈수 있지 않나. 공연히 아까운 재능을 묻어둘 필요는 없네.》

용택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진정으로 권했다.

《생각해주어서 고맙네. 그러나 난 한번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 길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네. 견디어보겠네.》

진국의 대답은 늘 이러했다.

합숙마당에 있는 화단에 피었던 꽃들이 지고 그 자리에 눈이 쌓였다. 어느덧 그 눈도 다 녹고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 왔다. 용택은 처음 얼마간은 공지를 가졌던 바다속의 생활에 대해서 공기의 부족을 느끼듯 점차 갑갑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잠수일이 단조로워지고 그 일에 청춘을 바쳐가려던 포부의 열정이 차츰 식어갔다. 그리던 어느날 용택은 우연히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다가 함께 제대되어 대학생이 된 친구와 구역행정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하고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용택과 진국을 보자 못내 반가와하며 그새 그들이 생활에서 이룩한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용택은 그들을 만난것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가슴이 빈것 같은 허전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밤 합숙으로 돌아온 그는 자리에 누웠으나 우연히 만났던 친구의 앞가슴에서 번쩍이던 대학 휘장과 한쪽옆에 끼고있던 윤기도는 서류가방이

눈앞에 매어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바다밑에 들어가고있는동안 생활은 자기만을 멀리 뒤에 남겨두고 아득히 앞서나간것 같은 허무한 생각이 가슴을 허비였다. 아니다. 나는 사회와 혁명을 위해 청춘을 바쳐가는 영예와 보람을 안고산다. 용택은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메꿔보려 했다. 그러나 좀처럼 그 자리는 메꿔지지 않았다. 앞으로 십년이나 이십년이 지난 뒤에 자기보다 앞서나가고있는 그들과 자기와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느껴졌다. 그때 가도 나는 잠수공에 불과하지 않는가? 용택의 마음은 견잡을수 없이 뒤흔들렸다. 다음날 용택은 물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처음 잠수훈련을 하던 때처럼 우로 불끈 솟아올랐다가 벌렁 나뒹어졌다.

《무슨 고민이 있는것 같구만.》

저녁때 호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진국이 침울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용택에게 조용히 물었다.

《물밑에 들어가고있는동안 어쩐지 생활은 우리만 뒤에 남겨두고 멀리 앞서간것 같은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용택은 팔베개를 벤채 천정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뭐라구?》

진국은 깜짝 놀라 용택을 새삼스레 바라보며 따져물었다.

《우리가 생활에서 남보다 뒤떨어진게 뭐가?》

《물론 우리에게도 자기 생활에 대한 자랑이 있기는 하지만 십년이나 이십년이 지난 다음에...》

용택은 진국에게서 그 대답을 받아내려는듯 얼굴이 벌개서 침대우에 벌떡 일어나앉았다. 진국은 실망어린 눈으로 용택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난 동무가 그런 생각을 할줄은 몰랐네. 사회와 혁명을 위해 값있게 살아가려는 포부와 희망을 안고 이 길에 들어선 우리가 어떻게 직위나 명예를 위해서만 살겠나?》

《론리는 그런데 생활은 그런것만 같지 않아서 그러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념에 관한 문제라고 보네.》

진국의 말소리는 높지 않으나 무겁게 울렸다. 용택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국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얼마후 집에서 약혼식을 하겠으니 빨리 오라는 편지를 받고난 용택의 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만약 여기에다 가정까지 꾸리게 되면 영영 이 길에서 물러설수 없기때문이었다. 용택은 혼자서 몸부림쳤다. 이럴

때 진국이 고맙게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동정해나섰다.

《기왕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다면 일찌감치 떠나게. 자네는 이전부터 전자공학에 뜻을 두고있었으니 이제라도 그 부문에 가서 노력만 하면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수 있으리라고 믿네.》

용택은 진국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을것을 약속하고 그의 바래움속에 이곳을 떠나갔던것이다...

《그런데 난 자네가 사업소 로동지도원이 된줄은 모르고 전자공학부문에서 무슨 소식이 있을것만 기다렸군.》

진국은 뜻있는 눈길로 용택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사람의 생활이 외딴으로만 흘러가겠나?》

용택은 그렇지 않느냐는듯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에서 《인삼》담배갑을 꺼내 진국에게 권하고 번쩍이는 가스라이타로 불을 붙여주었다.

《하긴 생활이란 생각처럼 단순한것이 아니니까 그럴수도 있지.》

진국은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를 깊숙이 삼켰다가 길게 내뿜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용택은 그러한 진국이 지금의 자기 생활을 두고 무엇인가 깊이 돌이키고있는것 같았다. 그는 그처럼 재능있어보이던 진국이 아직까지 잠수공으로 일하고있는것을 보니 측은한 생각에 동정이 갔다. 그러고보면 누구나 쉽게 희망을 이룰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것이 역시 생활인듯싶다. 그것은 얼핏 보면 달리기경주와도 비슷하지 않는가? 똑같이 출발선을 떠났어도 자기의 포부와 희망을 실현해가는 경위에 따라 누구는 높은 직위와 명예를 안고 생활의 령마루우에 먼저 올라서기도 하고 누구는 가슴아픈 후회와 수치를 안고 멀리 뒤에 떨어져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용택은 누구나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떼게 될 때 자기가 걸어가게 될 길을 두고 심사숙고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보니 그는 그때 자기가 이곳을 떠난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였는가 하는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진국처럼 아직 잠수복을 벗지 못하고있을것이였다.

《그런데 과학자로 됐어야 할 자네가 어떻게 행정일군이 됐나?》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담배를 피우던 진국은 용택의 그후 생활이 궁금한듯 다시 물었다.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군.》 용택은

잠시 망설이다 가벼운 한숨을 짓고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향에 돌아와서 약혼식을 하고난 용택은 전기 기구공장에 들어가 얼마간 일하다가 공업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오래동안 손에서 책을 놓았던탓으로 그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말았다. 교원인 처남의 도움으로 이듬해 다시 시험을 쳤으나 준비부족으로 또 전해와 같이 되고말았다. 그러자 그는 전자공학계통으로 나가려던 생각을 단념하고 방역소로 자리를 옮긴 다음 의학부문으로 나설 결심을 했다. 어떻게 하나 사회적으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다른 기술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에서였다. 그러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아 몇해동안 의약품과 설비만 날라들이는 일을 하다 장마철에 오이꼭지 물려나듯 스스로 물려서고말았다. 그사이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로 되였다. 그는 아무런 뜻도 이루지 못한채 허무하게 흘러간 생활을 두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희망을 이룰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 번민속에 모대기던 그는 다시 잠수공으로 되돌아갈 생각으로 그곳 향만건설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한동안 로동행정사업을 방조하는 일에 동원되였던 용택은 뜻밖에도 경제대학 로동경제과 재직반에 들어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것이다.

그새 남보다 뒤떨어진 봉창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책을 안고 씨름을 해온 결과 대학과정을 마치고나서 얼마후 정식 지도원으로 되었던것이다.

《처음부터 인츰 그 부문으로 들어섰더라면 괜찮았을건데...》

용택은 아쉬운듯 입맛을 다셨다.

《음, 그렇게 됐군...》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난 진국은 실망어린 표정을 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때 사업소 로동과장이 용택을 외래자합숙으로 안내하러 왔다.

《아 이거 과장동무가 잘 모르는구만. 우린 십팔년만에 만난 전우요! 자 가세.》 진국이 이제 무슨 소리나는듯 곁에 놓여있던 용택의 서류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그런데 이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겁나? 혹시 무슨 보물이라도 들어있는게로군.》

마당에 나선 진국은 두툼한 용택의 서류가방을 손우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며 룡삼아 물었다.

《보물?... 하긴 보물이라고 할수 있지.》 용택이 뜻있는 미소를 지었다.

《무슨 보물인데?...》

진국이 호기심이 나서 용택을 쳐다보았다.

《사실은 그속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있는 문초안이 들어있네.》

《그래! 무슨 내용으로 논문을 쓰나?》진국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로동행정일군들의 역할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에 대한 내용일세.》

《음, 그거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주제로군.》

《그래서 이렇게 출장길에도 놓지 못하고 안고 다니는데 과연 이 논문으로 그새 내가 생활에서 잃은 봉창을 하게 되겠는지 모르겠네.》

용택은 그 어떤 욕망과 기대가 어린 눈으로 진국을 바라다보았다.

《아 이게 그런 보물이었군... 자 그럼 받게, 난 너무 무거워서 못들고 가겠네.》

진국은 용택에게 가방을 넘겨주었다. 용택은 그것을 받아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껄껄 웃었다. 진국이기도 허거프게 따라 웃었다.

사업소구내길을 벗어나 아카시아나무가 키높이 자란 둔덕길우에 올라선 그들은 해안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내리막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때 마주 올라오던 웬 할머니가 진국을 보더니

《아이구, 우리 작업반장아제구만. 그러지 않아 두 내 반장네 집에 한번 찾아가려던 참인데 잘 만났네.》

하고 그의 팔을 잡고 못내 반가와했다.

《무슨 일인데요?》

진국이 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정하게 물었다.

《저 이달 보름날에 손주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반장이 꼭 우시를 가져주어야겠기에 그러네.》

그는 자기의 그 기대가 거절당할가봐 간절한 표정으로 진국을 쳐다보았다.

《원 할머니두, 댁에야 제가 아니라도 우시를 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진국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있기야 있지비. 그래두 우린 반장처럼 의젓한 사람에게 손주녀석을 팔려보내구싶어서 그러는데 바쁠테지만 이 늙은것을 봐서라두 좀 그렇게 해주게나, 응?》

할머니는 진국의 팔소매를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내 걸음이 댁의 대사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가겠습니다.》

마침내 진국이 동의했다. 그에게서 대답을 받고난 할머니는 득의만면해서 오른팔을 걸싸게 휘저으며 둔덕길을 넘어갔다.

《장가간다는 그 손자가 자네네 작업반원인게로군.》

용택이 다시 그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아닐세.》

《그럼 친척이라도 되는게로군.》

《그저 한 이웃에서 사는 할머니일따름이네.》

《그래?》

용택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들이 둔덕길을 거의 내려서려고 할 때 한패의 학생아이들이 진국을 보자 오르르 달려들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량쪽팔에 매여달리며 그를 에워쌌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길이나?》

진국이 아이들을 량품에 끼안고 다정하게 물었다. 그들은 과외모임을 하러 간다는것이였다.

《오 그래!》

이때 한 아이가 진국의 얼굴을 뺨히 울려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학교에 잡아다 준 문어다리가 왜 똑같지 않나요?》

《문어다리가 똑같지 않단말이지. 왜 그런가 누구 맞춰봐라.》

진국은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웃으며 반문했다. 왁작 고아대던 아이들은 갑자기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서로 얼굴들만 쳐다볼뿐이다.

《그럼 말해주지. 그건말이야... 문어란놈은 원래 동작이 굼뜨기때문에 다른 적수들에게 다리를 잘리우기도 하고 급할 때는 입으로 제 다리를 끊고 달아나기도 한단다. 정 배가 고프면 제 다리를 씹어먹기도 하고. 그대신 그 자리에서 새 다리가 나오는데 일전에 너희들에게 잡아다준놈은 다리 하나가 미처 자라지 못해서 찌꾸가 된거란다.》

찌꾸라는 말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아저씨, 애가 바다속에도 금강산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이나요?》

진국의 한쪽 팔을 붙들고있던 아이의 물음이였다.

《있구말구, 금강산두 있구 묘향산두 있구 다 있지.》

《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아저씨, 거기에서는 어떤 물고기와 조개들이 살고있나요?》

《아저씨, 거기엔 무슨 풀들이 있나요?》

그들은 중구난방으로 저마다 질문을 들이댔다. 그러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그들의 물음에 차근차근 대답해주는 진국의 얼굴에는 오히려 궁지가 어려있었다.

《자, 늦겠다. 이제 어서들 가봐라.》

아이들은 저마다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는 달려

들갔다.

《학교사업을 잘하는구만... 하긴 자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나쁘지 않지.》

용택이 뜻있는 미소를 짓고 진국을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로 옮겨와야겠군.》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은 무슨 학생들인가?》

《우리 사업소가 후원단체로 도와주고있는 학교의 학생들일세.》

《아, 그런걸 난 또...》

용택은 무안스러워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진국이 사람들로부터 남다른 존경을 받고있는것을 보고 속으로 저으기 감탄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에게서는 있어보지 못한 생활이었다.

그는 진국의 집에 다달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용택은 진국이의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술무늬를 놓은 도배지를 깨끗이 바른 방안은 소박하고 정갈했다. 옷방창문앞에 놓인 책상옆에 낮은 기타가 벽에 걸려있었다. 탁상등이 놓인 책상 한쪽옆에 곡을 붙이다만 오선지와 두툼한 노래집이 겹쌓여있었다.

(여전히 음악에 대한 뜻은 버리지 않고있군... 그런데 왜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앉아있을가?)

용택은 처음 진국을 만나자 그것부터 묻고싶었다. 그러나 그의 아픈데를 건드리게 될것 같아 지금까지 그 말을 입밖에 내지 않고있었던것이다.

(혹시 일신에 무슨 말못할 사정이라도 생긴것이 아닌가?)

생각에 잠긴채 노래집뚜껑을 열고 무심히 차례를 들여다보던 용택은 《응?!》하고 책우에 얼굴을 가까이 숙였다. 그속에 진국이 세손으로 가사를 써서 곡을 붙인 노래가 여러 제목 들어있었다. 그중에 제일 우에 있는 노래는 얼마전에 중앙방송과 텔레비존방송을 통해 여러날 보급된 노래로서 지금도 청년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것이였다. 용택은 자기 집 아이들에게서도 그 노래를 여러번 들었지만 설마 그것이 진국이 지은 노래일줄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럴수록 그는 진국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다.

(이런 재간을 바다속에 묻어두고있다니?)

《자, 내려오게.》

용택을 책상앞에 앉혀놓고 잠깐 어데론가 나갔던 진국이 아래방에 상을 차려놓고 그를 청했다. 무우를 통채로 송송 썰어놓은것 같은 겹질이 벌건 문어, 밥조개, 생복, 굴과 고급어죽으로 회를 치고 굽고 지지고 튀기를 해서 그릇마다 무독무독 담아놓은 저녁상은 가운데다 맥주병까지 올려놓으니 잔치상처럼 푸짐했다. 그런데 신통히도

그것들은 자기가 모두 좋아하는것들이였다.

《이젠 자네 식성을 다 잊어놔서 입에 맞겠는지 모르겠네.》

《고맙네. 그런데 이거 너무 요란한걸.》 용택은 십팔년이 넘도록 자기의 식성을 잊지 않고있는 진국의 우정에 새삼스레 가슴이 뜨거워났다.

《오랜만에 만난 전우인데 허술히 대접해서야 되겠나? 자 어서 앉게.》 진국은 진심으로 반가와 하며 그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병마개를 뽑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네와 이렇게 다시 만나고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구만.》 용택은 상봉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가 새삼스레 말했다.

《정말 그렇게... 그새 많은 세월이 흘렀지...가만 그런데 왜 아이들이 보이지 않나?》

용택은 아까부터 진국의 아이들을 보고싶은 생각이 들어 안팎을 둘러보았다.

《글쎄 아직 들어오지들 않았군.》

《그래 아이들이 모두 몇이나 되나?》

《오누이를 두었네... 자넨 몇이나 되나?》

《나는 서너놈 되는데 맏아들은 올해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나갔네.》 용택은 웬일인지 그 말을 하며 가벼운 한숨을 지었다.

《사회주의건설장에 나가서 몇해 단련된 다음 대학에 가면 여러면에서 좋지... 그래 무슨 일을 하나?》

《그 학급에서 집단적으로 발전소건설장에 자원해나가는바람에 할수없이 그대로 떠나보냈는데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네.》

용택은 다시 가벼운 한숨을 지었다.

《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게로군.》

진국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몸은 건강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나? 로력영웅이라도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바에야 아무데서나 걸썩 일을 하다가 대학에 가면 그만이겠는데 하늘에 별이라도 딸것처럼 기세가 올라서 말을 들어줘야지. 그래 여기로 오기전에 그곳 로동과장을 만나 수리반같은데 넣었다가 앞으로 봐가면서 빼돌려달라고 부탁은 해놓고 왔지만 그러다 공부할 생각을 잊고 대학엘 못가게 될가봐 걱정이네.》

진국은 아연해진 얼굴로 용택을 바라보다 허거픈 미소를 짓고 말했다.

《거 로동지도원답지 않은 소리군.》

《내라고 제자식의 전망문제에 대해서 생각지 말라는 법이야 없지 않나? 공식적인 사업에서야 그렇지만 생활은 어디까지나 생활이 아닌가?》

용택은 별소리를 다한다는듯 씩웃었다. 이때 부엌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곱살하게 생긴 녀자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올라와서 용택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나갔다.

《우리 맏딸일세.》

《귀엽게 생겼군... 몇학년인가?》

《그 애도 자네 아들처럼 올해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나갔네.》

《그래 어디서 일하나?》

《채석장에서 분쇄기운전공으로 일하고있네.》

《뭐 채석장? ... 원 사람두, 하필이면 너자애를 그런데서 일하게 할게 뭐람.》

용택은 나무라는 눈으로 진국을 바라보았다.

《그거야 뭐 내가 시키고 말고 하나? 다 제가 하는 일인데.》

진국은 남의 말하듯했다. 용택은 저으기 놀랐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직업과 장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무관심하다니...)

새삼스레 진국을 바라다보던 용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긴 아버지가 잠수공으로 있으니까 어쩔수 없는 일이지.)

《좋네. 자네 딸 직업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네. 너자들에게야 너자들에게 맞는 일을 시켜야지...》

용택은 이런 때 친우로서 진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리감을 가지고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 내버려두게.》

진국은 용택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원 사람두... 좋네. 그 문제는 내게 맡겨두게 ... 그리고 처음부터 물어보고싶던 말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자네가 아직까지 여기에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네. 그때문에 처음 자네를 보는 순간 놀라기까지 했네. 자네는 노래도 작곡하고 시도 쓸줄 아는데 혹시 무슨 다른 사정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용택은 진국에 대한 측은한 생각과 동정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러나 진국은 자기의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것을 유린당한것 같은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용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국은 말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방채상 앞으로 다가가 벽에 걸려있던 기타를 벗겨들었다. 그리고는 결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기타를 타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날 밤 감격과 격정을 안고 목청껏 부르던 그 노래였다. 용택은 혹시 진국이가 자기의 말을 무슨 모욕으로 느낀것이나 아닌가 해서 눈길을 뚫어놓았다.

기타소리는 18년전에 들었던것과는 달리 그 어떤 격한 심정을 그대로 토하는듯 거칠게 울렸다.

용택은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진국이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구역로동과를 거쳐 시와 도의 해당부문에 있는 안면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확답을 받은 다음 《갱생》을 얻어라고 곧장 사업소로 내리달렸다. 용택은 어제저녁 진국의 기타소리를 들으며 진판이 나던 일이 눈앞에 되살아왔다. 진국의 뜻하지 않은 행동앞에 용택은 당황했었다. 자기가 공연히 그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편으로는 무례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립장에서 자기를 돌이켜 볼 때 그 마음이 이해되고 동정이 갔다. 아무리 친우와의 상봉이 반갑다 해도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가 자기보다 높은 직위와 명예를 지닌 친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단순한 추억이나 반가움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가슴아픈 후회도 없지 않은것이다. 그러나 이번길에 진국의 그런 마음을 얼마간이라도 풀어줄수 있게 된것이 은근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갱생》이 사업소 마당에 들어서자 채 몇기도전에 앞문을 열고 뛰어 내린 용택은 마당한복판을 가로질러 잠수작업반휴게실로 찾아갔다. 그러나 진국은 작업장에 나가고 없었다. 용택은 마침 그쪽으로 가는 끝배를 타고 방파제건설장으로 나갔다. 그는 끝배가 잠수배결에가닿기전에 그쪽 갑판으로 뛰어넘어가 전화수에게서 송수화기를 넘겨받았다.

《나 용택이네. 아직 멀었나?》

《원 사람두, 남까지 점심을 굶게 하면서 어떨겠었나?》

레시바를 통해 진국의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에 그의 집을 나설 때 점심을 꼭 집에 와서 함께 하자고 신신당부했던것이다.

《미안하게 됐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점심한끼쯤 건넸다구 큰일나겠나? 어서 올라오게.》

마침 일을 끝낸 진국이 물속에서 나오자 곁에 있는 기중기배휴게실로 건너갔다.

용택은 꽃병이 놓인 원탁에 마주앉으며 진국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진국이, 뻘네 뻘어!》

《무엇이 뻘단말인가?》

《사실은 자네와 자네 딸문제때문에... 마침 도에서 타자수를 양성하기 위해 대상자를 고르는중이더군. 그래 자네 딸을 거기에 넣기로 했네. 그리고 자네는 도문화회관 지도원으로 받아주도록 쫓겨놓았네.》

용택은 《인삼》담배갑에서 《용광로》를 한대 꺼내 물고 진국에게 권하며 호기있게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진국은 두팔굽을 원탁우에 올려놓고 마디굵은 손을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다우에 떠도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진국은 천천히 머리를 들고 용택을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그런 수고와 걱정을 끼치게 해서 안

됐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친구로서 자네의 그 수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할수 없는것이 유감 이네.》

《아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뜻밖의 말에 용택은 흠칫했다.

《아마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잠수공으로 일하고있는것을 보고 동정이 가서 그런 우정을 베풀려고 하는것 같은데 난 거기에 대해서 우정보다 모욕감을 느끼고있네!》

진국의 말소리는 조용했으나 예리한 칼날처럼 서늘했다.

《아무래도 자네가 나에게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있는것 같구만.》

용택은 영문을 알수 없어 진국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오해하고있는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일세.》

《뭐 내가?!...》

용택은 저으기 놀랐다. 진국은 모진 진통을 참느라고 애쓰는 환자처럼 원탁우에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감쌀며 침착한 주먹을 짝 틀어쥐고있다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난 이따금 달 밝은 밤이면 잠수배갑판우에 앉아 처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청춘의 이상과 포부를 꽃피우자고 맹세다지던 일을 생각하며 우리나라 전자공학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결심과 포부를 안고 떠나간 자네를 눈앞에 그려보곤했네. 그때마다 내 눈앞에 떠오르는 자네의 모습은 새로운 과학을 탐구해나가는 믿음직한 모습이었네.》

그의 말소리는 신음에 가까웠다.

《알만하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과학자가 되었던 희망과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인데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자네가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흘러가겠나? 생활에야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가 제 궤도에 들어서는것인데 생활을 너무 일면적으로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나?》

용택은 어덴가 그의 말이 천진하게까지 느껴져 세상의 풍상고초를 다 겪고난 《선배》처럼 여유있는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그것은 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거나 이미 그것을 저버린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일뿐만아니라 자기 신념앞에 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고 생각하네.》

그의 말소리는 낮으나 방안에 쩡 울렸다. 얼굴에 당황한 빛이 어렸던 용택은 곧 자신을 수습하고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그런 신념을 지니고 지금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고있는 자네의 생활신조앞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하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자네에게 결국 사회적으로 남은것이란 별다른것이 없지 않나?...》

순간 진국의 눈에 불이 이는듯하더니 차츰 서글픈 빛으로 변했다.

《물론 내게는 자네처럼 그 어떤 직위나 명예는 없네. 그대신 지금까지 혁명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온 공지와 자랑이 있네. 우리 로동계급들은 그것을 그 어떤 직위나 명예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네. 자네는 마치 지금 자기가 지니고있는 직위를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는것 같은데 만약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로동계급적인 량심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만 생각할수 없다고 보네.》

《뭐라구?!...》

용택은 리성을 잃을 정도로 분개하여 방금 불여문 담배불을 재털이속에 비벼끄고 원탁앞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그는 진국에게서 이런 모진 말을 듣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분했다. 친구로서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새 사람이 저렇게도 달라졌단말인가? 좀처럼 남에게 아픈 말을 할줄 모르던 그가.

진국은 그 자리에 뿌리가 내린 바위처럼 움쭉 앉고 앉아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두몫 세몫씩 일을 하고도 성차지 않아 일손을 놓지 못하고있네. 그것은 남다른 보수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값높은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이네. 그러나 자네는 순수 자기 개인의 생활을 위해 어렵지 않게 혁명초소를 버리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대신해서 그 초소를 지켜야 한다는데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나? 그들도 모두 개인적으로 볼때 남다른 자기의 포부와 희망이 있었을거네. 그러나 그들은 사회와 혁명을 위해 그것을 바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고 초소를 떠나지 않고있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네처럼 생각하면서 저마다 화려한 일터와 직위와 명예가 있는곳만을 찾아간다면 도대체 그들이 떠나간 초소를 누가 지키겠나? ...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충성으로 빛내여가며 그속에서 값있는 삶과 보람을 찾도록 사람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주요한 임무를 지닌 자네가 자신의 지나온 생활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그것을 더 높은 직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앞에서 점잖은 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자기 리속만 채우려 하니 도대체 거기에 무슨 시대의 량심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량심이 있다고 하겠나?》

진국은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용택에게 따지듯 캐여물었다. 용택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채 입을 열지 못했다.

진국은 한동안 마음을 진정하고나서 푹 갈린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생활에서 요령을 부리며 리속을 차려

아무리 높은 직위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결코 자기의 포부와 리상은 실현될수 없다고 보네. 우리들의 포부와 리상은 그 어떤 직위나 명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지키기 위해 바쳐온 성실성의 깊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네. 난 지금부터라도 자네가 자기의 포부와 리상을 다른데서 찾으려고 하면서 들떠있는 사람들을 옳게 이끌어주는 참다운 일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네.》

정통을 찢리운 용택은 조각상처럼 굳어졌다. 그는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듯했다.

《...혹시 내 말이 지나쳤는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용서해주게. 난 바빠서 나가봐야겠네... 저녁엔 꼭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세. 자네가 오지 않으면 나도 저녁을 굶겠네.》

진국은 말을 마치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용택은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다. 처절썩... 처절썩... 배전을 치는 파도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해안거리에 밤이 깃들었다. 고층건물창문에서 내비치는 전기불이 바다위에 별무리가 내려앉는듯 했다. 맞은편쪽에 건너다보이는 항은 대양을 건너온 여러 나라 대형집배들에서 비치는 오색등으로 화려한 《국제도시》를 이루고있었다. 발밑에서 잔잔한 물결이 소리없이 유보도안벽을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깊이 속삭이는듯했다. 용택은 그것이 진국의 말소리처럼 들려왔다. 고개를 수고하고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용택은 쇠사슬을 드리운 란간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형광등이 비치는 거리로 남녀청년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천천히 오가고있었다. 어데선가 손풍금 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부드러운 바람결을 타고 조용히 들려왔다.

... 동해가 푸르러 변함없듯이
언제나 변찮는 한마음으로
영원히 이 길을 가고가리라...

진국이 지은 노래였다. 들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가슴이 뚫개 하는 노래였다.

《저것 보세요. 저 항이 정말 아름답지요.》

《천연색기록영화를 보는것 같소.》

《저는 여기를 거닐 때마다 파도가 밀려들던 이곳에 이처럼 현대적인 항을 건설한 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후대들도 그것을 잊지 않을거요.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 아이들이 생기면 나는 그 애들에게 <이 아버지의 노력이 스며있는 항이란대>하고 자랑스럽게 말해줄지도 모르지.》

《아이... 호호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용택이앞으로 다정하게 걸어가는 한쌍의 남녀청년들이 주고받는 말이였다. 용택은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무엇을?!...)

용택은 량심의 물음앞에 할말이 없었다. 있다면 생활의 신념을 저버리고 자기 개인의 직위와 명예를 위해 줄타기를 하며 의리도 량심도 없이 살아온 수치뿐이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십팔년이란 세월을, 그것도 사회와 혁명을 위해 보람있게 살아야 할 가장 귀중한 시간을 값없이 지내보낸 자책때문에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아수치스럽게 흘러보낸 그 시간을 되찾을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치고 몸부림쳐도 되찾을수 없는것이 지나간 인생인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 그것은 흘러간 자기의 생활을 두고 후대와 시대의 량심앞에서 사회와 혁명을 위해 부끄럼없이 살아왔다고 떳떳이 대답할수 있도록 사는것이 아닌가?...

둔덕길에서 만났던 할머니와 학생들이 진국에게 진정으로 믿음과 경의를 표하던 모습이 눈앞에 되살아왔다. 그것은 그 어떤 직위나 명예로서는 대신할수 없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정신 도덕적인 풍모를 훌륭히 갖춘 진국과 같은 사람들만이 받을수 있는 값높은것이였다. 용택은 이러한 진국이에 비해 자기가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뒤떨어졌는가를 절실히 느꼈다. 그는 이러한 자기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제때에 눈을 틔워준 진국이 더없이 고마웠다. 만약 이번에 진국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자신을 모르고 사는 불행한 인간으로 남아있었을것이였다.

생각에 잠겨 무거운 걸음을 옮겨놓던 용택은 귀에 익은 기타소리가 들려오는바람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응?!...) 그는 정신을 차렸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진국의 집앞에 와있었다. 아련한 불빛과 함께 은은한 기타소리가 흘러나오는 창문에 진국의 그림자가 질게 어려있었다. 진국이는 자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창문밖으로 흘러나오는 기타소리는 먼 추억을 담아서 용택의 가슴속으로 처량하게 흘러들었다. 자기에게 아픈 말을 하고난 진국의 피로운 심정의 메아리였다. 용택은 눈굽이 축축해졌다. 낮게 흐느끼던 기타소리가 갑자기 바람에 설레이는 파도처럼 격조높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선율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진국의 피라는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진국동무! 용서해주오. 면목이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오. 그러나 다음에는 내 발로 떳떳이 동무네 집 문턱을 넘어서겠소.)

불덩이같은것을 꿀꺽 삼키고 숙소로 돌아온 용택은 지금까지 안고다니던 《보물》을 불살라버리고 책상에 마주앉아서 발전소건설장에 가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기처럼 지나온 생활앞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녀의사의 인사

최봉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도례절이 바르고 의리가 깊고 정의감이 강한 것으로 동서고금에 널리 알려져왔다.

나날이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인간들의 높은 도덕적품모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 최상의 높이에 이르고있다.

사회와 사람들의 도덕률리는 곧 그 사회제도의 반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이 땅우에 펼쳐지는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찾아볼수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중에서 나는 가슴뜨겁게 체험하고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사를 놓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인사 역시 사회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한 표현으로 심오한 시대적 내용과 사상을 담고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받들고 불꽃튀는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현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담당의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보통기에 동실한 얼굴, 어깨에 치료가방을 멘 탄력있는 몸매는 너무도 친숙한 모습이어서 이른 새벽 멀리에서도 첫눈에 알아볼수 있었다.

철따라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집집의 문을 조심히 두드리는 그 눈빛, 환자를 찾아 치료의 길을 걷는 성실한 그 걸음, 친부모의 심정으로 맥박을 집어가는 그 손길을 내 어디에서든 모르랴.

무슨 생각에 골똘하여 걸어오던 그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모두 건강하십니까?》라고 공손히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나는 무엇인가 가슴이 뭉클하는것이 있어 의사를 지나보내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있었다. 9호동 아파트에 사는 한 로인의 주사시간이 되어 찾아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녀의사가 한 그 인사말을 속으로 되뇌여보았다.

《모두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정답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가! 이것은 실로 친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보호자가 되지 않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말이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사는 행복한 인민에게만 차례지는 귀중한 말인것이다.

나는 발자국을 남기며 녀의사가 사라진 9호동쪽에 눈길을 준채 짙막한 추억속에 잠기였다.

녀의사는 날씨가 좀 차져도 감기에 걸릴가봐 세대별 건강관리부를 들고 다니며 근심어린 낮빛으로 실내온도를 재여주었고 예방주사에 한사람이 빠졌다 해도 자신의 부족한 정성을 가슴 아프게 뉘우치며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꼭 찾아가군하였다. 언제인가 한 산모를 찾아 왕진나갔다가 산모가 건강이 나빠진것을 보고 그에게 자기의 피를 수혈해준 사실도 있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나라의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수 있는 레사로운 미담에 불과하다.

의사뿐만아니라 한갓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도 한 소년을 위하여 자기의 살을 떼여주고 한 의사의 안해와 딸이 화상당한 한 청년의 눈에 구결막까지 서슴없이 이식하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녀의사의 한마디 정다운 인사말속에 그대로 담겨져있는것이다.

나의 머리에는 얼마전 신문에 실렸던 한 기사의 내용이 떠올랐다.

서울시 중구 양동에서 세방살이를 하던 한 주민이 지난 1월 1일 중상을 입고 주변에 있는 한 독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입원비가 없다 하여 치료를 거절당하였다. 다음날 그는 다시 다른 병원으로 찾아갔으나 역시 쫓겨나고말았으며 세번째로 찾아갔어도 치료를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던중 숨졌다 한다.

나는 기사를 읽은지 몇달이 지났어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잊을수 없다. 이 얼마나 가슴을 찢어내는 원통한 일인가. 한지맥, 한혈통을 이은 겨레들이 분계선 하나를 사이두고 너무도 참혹한

고통을 겪고있으니 한 민족으로서 어찌하여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지 않으랴. 초보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빼앗긴 남조선사회에서는 의사의 인사말대신 《치료비가 있소?》하는 악의에 찬이 한마디뿐인것이다. 여기에서는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동방례의지국의 도덕과 료리마저 란쪽하게 유린당하고있다.

아, 언제까지 분렬의 고통을 안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하겠는가!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래동안 사색에 묻히여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시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며 방금전에 받은 수수한 너의사의 그 인사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았다.

《모두 건강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무한대한 관심이 집대성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속에 병이 나기전에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먼저 찾아가서 예방하여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이 말속에 한 로동자의 생명을 위하여 특별비행기가 대양과 대륙을 날아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이 말속에 누구나 다 무상으로 치료받고 유급휴가와 휴양, 료양과 정양을 마음껏 받으며 젊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있다.

《모두 건강하십니까!》

한 평범한 너의사의 인사- 이것은 사회주의 우리 나라, 어머니조국이 나에게 주는 인사였다.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살아야겠는데 오히려 언제나 조국의 뜨거운 인사를 먼저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숭고한 인사를 인민 위해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었으니 내 어찌 그이께 기쁨의 인사 삼가 드리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 다 바치지 않으랴.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시대, 우리 시대에 와서 사회와 인간들의 도덕률리는 최상의 높이에 이르러 가장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것이다.

하나의 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은 다같이 조국의 인사를 받는 행복속에 살아야 한다.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 안겨...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흙모의 정 온 세상에 넘치네

다베이 야소오

온 세상에 빛발치는 주체사상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그이에 대한 흙모의 정 그 어디나 넘치네

남극의 작은 섬에서부터 북극의 동토대에까지

이글거리는 불덩이와 같이 뜨겁네

넘치네 온 세상에 끝없이 뿜어넘치네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 그 깊이 헤아릴길 없네

자주의 삶을 위해 착취와 억압을 분쇄해가는

세계인민들과 학자들의 가슴가슴에

넘치네 온 세상에 끝없이 뿜어넘치네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 내 마음속에 끝없이 넘치

네

모순과 부패에 찬 사회를, 부정과 악을 쓸어버리기 위해

빛나는 자주성을 위해, 주체의 새나라를 위해

굴함없이 싸워가는 내 마음속에 뿜어넘치네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

여기 국제친선전람관에 차고넘치네

한없이 귀중한 이 보물들을

우리 함께 수호하며 빛내여가리

주체위업의 세계사적승리를 위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네

(필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 있음)

저물녘의 붉은해 외 2 편

구희철

넓으나넓은
열두삼천리별
방풍림 가지에 붉은해 걸린
해지는 저물녘

웃으며
노래부르며
떠들썩 달려온
농산반 청년분조치너들

노을에 물들어
금물결 흐르는
보물에 발을 잠그고
땀젖은 얼굴들을 씻는데

누군가 속삭이네
물에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혼자 보기가 아쉬운듯
-애들아
저 붉은해를 봐
얼마나 곱니!

순간
웃음띤 얼굴들이
일시에 바라보는 붉은해
두셋이 안아도 못다안을 둥근해!
푸른 들 지평선 한끝
그물같이 열기설기한
방풍림 나무아지에
일부러 저렇게 걸어놓은것 같은

붉은해!

아 농산반치너들아
해를 바라보고
너희들을 보는 내 마음도
즐겁구나!

너희들은 해에
넋을 잃고 섰다만
나는 너희들 얼굴에 붉은 얼굴에
넋을 잃고 서있다

맑은 물에
말쑥하게 씻은 너희들 얼굴에
붉은 노을까지 곱게 어리어
더더욱 눈길 못떼겠구나

아 별이 하도 넓어서
못다 넘는줄 알았더니
열두삼천리 끝없는 별에
푸른 모를 다 입힌
너희들이 부러워서

풍년가을 꿈꾸는
아름다운 그 마음이 고와서
넓은 벌 가꾸는 너희들이 장해서
해도 지기를 저어하는가
저물녘의 둥근해
저물녘의 붉은해

황금빛 가을이여!

푸른 하늘조차
누렇게 물이 들었구나
달리는 렬차의 차창도
시누런 차창
웃음을 거둘줄 모르는 얼굴들도
황금빛이로구나

진하디진한

황금빛에 물들어
황금빛이 끝나는곳
어디서 그 어디까지인지...

하늘도
렬차도
사람도 마음도
모두다 익혀놓은 좋은 가을아!

알마다 뿔어내는
날알 향기에 한껏 취해
달리는 렬차속까지
황금빛으로 적서놓은
이 계절이 하좋아
저리히도 생각은 깊어지는것인가

입술이 벵글썩한
저 늙은 아바인
봄철에도 이른날에
활창대를 해보낸
그 자랑에 이 가을을 마음놓고 즐기고

봄한철 여름한철
첫모내던 그날부터
막별김 매주고 돌아온 저 젊은이
그 농장이 차창밖에 펼쳐진듯

그래서 자랑이 저리도 많은가

달리는 렬차가
한길을 가듯
올해의 만풍으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마음도 생각도
가닿은곳은 그 하나

이 향기
이 열매
이 황금빛 계절 주신
수령님 그 은덕
종고 고마와
술한 마음 하나같이
영글어 설레이는
아, 만풍년의 가을날이여!

만폭동의 맑은 물

하늘이 드리웠나
비선폭포 유선폭포
바라보면 은하수
떨어지면 천만구슬

흩어져서 내릴 땀
하얀 물안개
내려서 고이면
수정같이 맑은 물

서느러운 물바람
쉬여가라 불려서
물가에 다가서니
이 마음 생각도 비껴내리는듯

은구슬 금구슬
하도 맑아서

허리 굽혀 한응큼 손에 담으니
아쉬워라 방울방울 새여내리네

만길 쏟아져
폭포수는 기세차고
천길을 굴러내려
물구슬은 옥같이 빛나더냐

줄기찬 네 성미
나에게 다오
너의 그 맑음을
내가 닮으리

아, 해와 별 머리우에
천년만년 이고서
내 삶 내 한생
너와 같이 티없이 깨끗하리라

알 릫

편집부는 이번호부터 짧은 단편소설계주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담은 짧은 단편소설들을 많이 보내주기 바랍니다. (편집부)

단편소설

영 희

박사영

그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자프락포르부속품공장 드넓은 가공직장 기계바다속에 들어서면 수많은 처녀선반공들속에서도 몸매가 날씬하고 두눈이 유난히 그윽해보이는 한 처녀를 쉽게 찾을수 있으리라. 그가 바로 영희다. 귀엽게 다물린 그의 자그마한 입술에서는 항상 다정한 미소가 빛나고있어 그를 대하게 되는 사람은 부지중 이쁨할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일숨씨 또한 그 생김새처럼 알뜰하고 이악해서 수백명이 넘는 선반공들중에서도 그와 견줄만한 혁신자는 몇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지내 《똑똑하고》,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면 작업반회의에서는 물론 수천명이 참가하는 공장종업원회의에서도 서슴지 않고 의견을 제기했으며 동무들로부터 지배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하긴 비판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야 나쁠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을수야 없지 않는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원칙》과 《규정》밖에 모른다고 해서 《원규정동무》라는 별명까지 붙였겠는가.

하지만 총명한체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총각들인 것 같았다. 저희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놓고도 그 처녀의 그 미모와 그 미소에 반해버리니말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처녀의 심장을 사로잡아본적은 없었다. 그 처녀에 대하여 은근히 원심을 써온 총각들이 수두룩하지만 다 그만두고 한두가지 실례를 든다면 인물 잘나고 말 잘하는 기술과의 어느 기계공학기사(아마 이 친구는 자기가 인물 잘나고 말 잘한다는 것을 크게 믿었던

것 같다)는 대담하게 청혼을 했다가 코페서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는가 하면 단조직장의 어느 작업반장총각은 말도 비쳐보지 못하고 혼자 가슴만 태우다말았나.

영희때문에 은근히 골치를 앓고있는 것은 그의 직장장인 최대범이다. 그로 말하면 누구든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초면이 돼서 더 그런지도 몰랐다)한번 만나보게 되면 무슨 은혜라도 입은듯이 친근하고도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표정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다. 너그럽게 미소하는가 하면 엄하게 눈살을 찌프리기도 하고 위엄있게 상대방을 움짱달짝 못하게 눌러놓을 줄도 알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를 무대우에서 연기를 잘하는 능란한 배우로 생각하지는 마시라.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인상 좋고 너그럽고 아량있는 일군임에 틀림없었다.

대범은 련결농기계공장에서 부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영희의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다. 하여 그는 영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돌려오고있는 터였으나 처녀는 도무지 그의 말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다.

친구의 부탁도 있고해서 은근히 영희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차에 대범은 맘에 꼭 드는 총각을 골라내게 되었다. 평양 어느 중앙기관에서 책임지도원으로 일하고있는 젊은이였다.

대범은 그때 속으로 무릎을 탁 쳤다. 온 나라를 다 뒤져도 그만한 신랑감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슬그머니 비쳐보았더니 처녀는 무슨 모욕이라도 당한듯 얼굴이 빨개져서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와요. 하지만 전 그런 자격이 없는걸요.》
참 이상한 처녀였다.

어쨌든 까다로운 처녀임에 틀림없었다.

1.4분기 직장총회회의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 대범은 사투 기본이 좋아서 말했다.

《자, 어떻습니까. 제기할 의견들이 있으면 제기를 하십시오.》

《없습니다.》

맨 뒤쪽과 중간에서 그리고 앞에서 몇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하, 그러지들 말고 제길하오. 팬히 회의장에서는 없다고 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대범은 한껏 부드럽고 너그러웠다.

이때 누구인가 저쪽 창문옆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영희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처녀는 더없이 조용하고 침착한 자세로 서서 그 아름다운 눈으로 직장장을 바라보고있었다. 처녀는 관현악의 한 선률처럼 나직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하나 의견을 제기해두 되겠습니까?》

《하오, 서슴없이...》

대범은 웃으며 부추겼다.

《그럼 직장장동지에 대해서 방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맑았다. 그러나 표정이나 목소리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것이다.

처녀는 말했다.

《직장장동지는 분기총화를 좀 더 원칙적으로 해줬어야 했습니다. 말없이 수격수격 일하는 동무들이 응당한 평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대범은 웃고있었으나 얼굴이 벌개지는것만은 가리울수가 없었다.

회의를 끝내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서도 그의 얼굴은 그냥 시뻘개져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무원칙적인란말인가? 정말 까다로운 처녀로군!

대범은 영희의 배우자선택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더냐 싶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해줄뿐이었다. 그는 역시 너그럽고 야량이 있는 일군이었으니까.

대범은 어느날 뜻밖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전 군대에서 제대된 공무동력직장 수리

공인 서상철이와 영희가 서로 사랑한다는것이였다. 서상철이로 말하면 표장표장하고 녀자들처럼 얌전한 사람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남달리 뛰어난데가 없는 사람이다. 사내대장부라면 융통성도 있고 리해성도 있어야 하겠는데 이 친구야말로 제털 뽑아서 제구멍에 넣을 친구다.

영희가 상철이를 사랑한다- 이것은 대범직장장에게는 물론 그들의 사랑을 알고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사랑한단말이지?... 저들의 사랑이 과연 며칠이나 갈가?...)

대범에게는 아무래도 그들의 사랑이 순탄치 못할것 같이만 생각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가 우려하던 일은 오고야말았다. 공장에서 우수한 선반공들이 참가하는 고속도절삭경기가 진행되였었다. 일은 거기서 터졌다.

은 공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어딜 가나 확확 열풍이 내뿜기는듯했다.

절삭경기기간은 3일.

경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이 직장들마다에 엄숙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대림발을 칼날처럼 세운 작업복들을 입고 팔에는 토시까지 낀 기대공들이 자못 긴장한 기색으로 기대앞에 서서 경기개시시간을 기다리는것이다.

언제 나왔는지 꿈무늬에 뻘찌와 나사돌리개를 권총처럼 찬 서상철이는 벌써 직기들사이를 순회하는 방직공처럼 기대사이를 돌고있었다. 새 작업복을 입고 리발까지 한 그도 한결 흰해진듯했다. 이번 경기에 수리공이자 사회적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참가한 그로서는 더더욱 긴장해지는 모양이었다. 대범이도 기대사이를 돌고있었다. 이런때면 은근히 마음을 조이는것은 직장장들이다. 1가공, 2가공, 3가공... 그것은 개인경기이면서도 직장대향이였기때문이다.

상철은 영희의 기대옆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영희는 발그레해진 두볼과 벌빛처럼 빛나는 두눈에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들었다. 상철은 무엇인가 근심스러운듯 이윽도록 영희의 얼굴을 바라보고있었다.

《아이, 왜 그러세요?》

영희는 갑자기 점직한 생각이 들었던지 얼굴을 붉히며 가늘게 속삭였다.

상철은 여전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이, 누가 보겠어요. 왜 그러세요?》

《허, 근심스러워서 그러우. 왜 그런지 난 동무가 1등을 못할것 같이만 생각되는구만.》

영희는 비로소 상철이가 일부러 그런다는것을 알았다.

《아이참, 상철동문 심술꾸러기예요.》

《허허 그럼 1등이 자신있단말이지?》

영희는 대답대신 생긋 웃었다. 상철이도 웃었다.

긴장한 나날속에 어느덧 마감날이 다가왔다.

대법직장장은 마치 결승테프를 향해서 달려가는 단거리선수를 지켜볼 때처럼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느끼며 상철이와 함께 작업장을 돌아보며 기대공들의 일숨씨를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상철의 어깨를 툭 치며 고개짓을 했다. 영희를 좀 보라는것이다. 가름한 얼굴, 상큼한 코날, 꼭다문 입술, 한점을 쏘아보는 예리한 눈초리, 인물대며 왕복대에 비둘기마냥 오르내리는 손길...

대법은 빙그레 웃으며 만족한듯 중얼거렸다.

《괜찮거든, 괜찮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1등은 잡아놓는 거야!》 하는 뜻이었다.

영희는 마지막 제품을 면판에서 떼내며 얼굴을 들었다. 순간 그의 시선은 상철의 시선과 부딪혔다.

《수고했소.》

상철은 웅글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다함없는 애정이 넘쳐흘렀다.

《아이... 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행복에 겨워 웃었다. 대법은 그저 빙긋이 웃었다. 교대하기 위하여 이미 전부터 나와서 대기하고있던 얼굴이 동실하고 두눈이 귀인성스럽게 생긴 애 어린 처녀는 선망과 부러움이 어린 눈길로 영희를 흘린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언니는 어쩔 그렇게 잘할수 있어요?

이윽고 영희는 자기 교대자에게 기대상태를 일일이 알려주고 《운전일지》를 펼쳐놓고 인계하기 시작했다.

《선옥동무두 마지막 교대를 잘해줘야겠소. 12호에서 1, 2, 3등을 다 먹잔말이요. 응.》

대법이 꺾꺾거리며 애된 처녀의 등을 두드려주

었다.

《예.》

선옥의 두눈은 그 어떤 결심의 빛으로 빛났다.

《그럼 수고해줘.》

영희는 이마전에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칼을 손등으로 쓸어올리며 탈의실을 향해 가볍고도 경쾌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그날밤 마지막 교대가 끝나자 대법은 기대점검을 하는 상철이와 함께 기대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기 시작했다. 상철은 인물대며 왕복대를 돌려보기도 하고 스위치를 넣고 기계소리를 유심히 들어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기름주입구를 일일이 검사해보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으며 주위에 쇠밥 하나라도 떨어져있는것을 보기만 해도 대뜸 얼굴이 심각해지는것이였다.

(허, 보통 깐깐하지가 않는걸!...)

대법은 지금까지 이렇게 깐깐한 평가위원을 처음 보는것 같아 비죽이 웃었다.

상철은 영희의 기대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이윽도록 서있더니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대점검들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는 기계소리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기대를 알뜰히 다루지 않고 혹사했다는것이 알립니다.》

《고속도절삭경기기간에말인가?》

《예.》

《허허 참, 그것을 어떻게 딱 절삭경기기간에 그렇게 되었다고 단정할수 있소?》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할수 있습니다. 수리공이니까요.》

《허허 그래.》

《그리고 12호선반은 기대청소가 규정의 요구대로 되어있지 못하군요. 쇠밥통엔 쇠밥이 깨끗이 치워지지 못했고 기름주입구엔 기름들이 두군데나 규정의 요구대로 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계들이 마모되지 않을수 있습니까.》

《허허, 아직 풋내기들이니까 기능공학교를 나온지 겨우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러나 기능공학교를 갓 나왔다고 해서 기대관리를 형식적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이야 없지 않습니까. 기대공을 처음 시작한 동무들일수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거렸다.

(허, 정말 까다로운 친구군!...)

《12호책임기대공이 누구니까?》

《아니 책임기대공이 누군지 몰라서 묻소?》

《.....》

상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다. 흥분한김에 그는 묻지 말아야 할것을 물은것이다.

상철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하영희! 그는 자기의 애인이었다.

순간 대범이도 이상하게 가슴에 돌덩어리라도 걸린듯 무죽해짐을 느꼈다. 느닷없이 그 어떤 불안이 저녁어둑처럼 밀려드는것이였다. 그 불안은 평가위원회에 참가해서 더해졌다. 평가위원회에는 평가위원들과 함께 직장장들,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참가했다.

상철은 우울한 기색으로 앉아있었다. 무엇인가 줄곧 생각에 잠겨서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마지못해 하듯 뜨직뜨직 기대공들의 우결함을 분석하고 자기 견해를 말했다. 그러나 12호선반에 대해서는 비치지 않았다.

대범은 저도모르게 긴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1등에 1가공 하영희동무를 주고 2등에 림선옥동무를 주잔말이지?》

모두들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상철은 무엇때문인지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었다. 그에겐 지배인의 석침한 목소리도, 사람들의 설레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고개를 쳐들어 애원하는듯한, 복잡한 표정이 얹힌 눈길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중병이라도 앓고난 사람처럼 수척했다.

《다른 의견들이 없겠지요?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이제라도 평가를 다시 할수도 있습니다.》

지배인이 웃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상철은 더는 참고 앉아있을수가 없는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의혹과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상철은 잠시 컴컴해진 얼굴로 지배인을 응시하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저는 평가위원으로서 자기 사업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영희동무는 1등자격이 없습니다.》

《?!...》

《!?...》

회의장에 폭탄이 떨어진듯하였다. 의혹과 호기심으로 빛나던 사람들의 눈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일변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다.

상철은 무엇인가 또다시 갑자르는데다더니 결심한듯 머리를 번쩍 쳐들고 푹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경쟁조항에는 기대공이 기대정비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희동무의 기대를 점검해보고 기대정비가 잘돼있지 못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산일면에만 신경을 썼던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규정을 위반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적.

상철은 자리에 앉았다.

정적...

집행부에서도 무엇인가 심중히 토론하는것 같았다. 그러더니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평가위원들은 모두 상철의 의견을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1등은 영희대신 2가공의 라경만에게로 넘어가게 되였다. 동시에 종합성적도 2가공으로 넘어가게 되였다.

평가위원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며 웅성거렸다.

《그 친구 괴판데.》

《피짜긴, 대가 바르군. 이번에만은 거꾸로 됐을걸. 원숭이두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원규정동무>가 규정때문에 얻어맞다니, 그것두 자기 애인한테서... 참 생활이란...》

《그렇지만 저 친구가 너무하군. 기대정비를 좀 설치는것쯤이야 누구한테나 다 있을수 있는 결함이 아닌가? 더구나 자기가 평가위원이겠다...》

《여여 그런 비량심적인 소리 하지도 마오. 바로 동무같은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현상은 목과하지 말아야 하는거요.》

대범은 뭐가 뭘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담배를 피워물었다. 켜다. 그렇지만 피웠다.

지배인실 앞마당을 걸어오는데 아름드리 느티나무옆에 영희가 얼굴이 해쓱해져서 서있었다. 순간 대범은 가슴이 섬찝했다. 혹시 영희가...

대범은 영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가 아프오?》

《아닙니다.》

영희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그럼?》

《용서하세요. 저는 지나가다 다 들었어요.》

《으흠... 용서야 무슨 용서, 그거야 내탓도 아니고 영희탓도 아니지, 생활이란 단순하지 않은니까.》

《아니예요. 직장장동지, 그건 제가... 제가...》

《됐다. 사람들앞에서 꼭 1등이라고 선포해야만 1등은 아니다. 생산수자야 어디 가겠니?》

대범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걸어갔다.

(글쎄 말이야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인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말았다. 1등도 사랑도...)

영희는 여전히 얼굴이 해쓱하니 질려서 멀어져 가고있는 대범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날 오후, 고속도절삭경기대회총화가 있게 될 공장문화회관은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대범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 머리를 거연히 쳐들고 점잖게 회관으로 들어갔다. 참새처럼 재재거리기 좋아하는 처녀들이 쪼고 까부는 소리가 들린다.

《어마나, 1가공직장장동지를 좀 봐. 잔뜩 위신을 차리누나.》

《글쎄말야. 아마 이번에두 1등이 자신있는 모양이지?》

《영희동무가 있지 않니?》

대범은 입이 쓰거운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공장직맹위원장이 연락에 나가 총화보고를 하고 다음은 지배인이 나가 순위를 발표했다.

《1등에 2가공 라경만동무.》

사람들은 눈이 등그래져서 박수를 쳤다. 어떤 사람은 무의식중에 영희쪽을 보기까지 했다. 영희는 얼굴이 발긋해서 앉아있었다. 2등에 하영희라고 했을 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채 가만히 일어났다 앉았다.

마지막으로 지배인이 회의를 결속하면서 일부 동무들은 경쟁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보니 기대관리에서 무관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자 홍수가 밀고나간 벌판에 바위돌들만이 땡그랗게 솟아

있듯이 회관안에는 대범직장장과 영희 그리고 그의 두 교대공처녀들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영희는 일어설 기운도 없는듯 얼굴이 백랍처럼 하얗서 앉아있었다. 갑자기 선옥이와 또 한 처녀 혜은이가 영희의 잔등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제가 그만 경쟁에만 눈이 어두워서 기대관리에 대해선 흑, 흑흑...》

《언니 저두...》

영희는 두 처녀를 량팔로 껴안고 눈물속에 웃어보이며 달래듯이 말했다. 미소속에 빛나는 이슬은 구슬처럼 반짝거렸다.

《울지들 말아요. 동무들은 잘못이 없어요. 나는 책임기대공이 아니예요.》

《안야요. 언니, 이제라도 지배인동지를 찾아가서 말하겠어요.》

《그러지들 말래두. 그러면 나두 울겠어, 응 그러지들 말아요.》

영희의 두눈귀에선 수정같은 눈물이 가득해졌다.

대범은 못볼것을 보았을 때처럼 고개를 외로 돌렸다. 그가 오죽 가슴이 아프면 처러라.

《됐소. 동무들은 돌아들 가보오. 그리구 영희동문 나와 좀 같이 가가요.》

영희는 일어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대범직장장의 뒤를 따랐다.

대범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자 목이 타는듯 고뿌에 물을 따라 꿀꺽꿀꺽 마셨다.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풀이란말인가?

영희는 고개를 다소곳하고 문앞에 서있었다. 대범은 불현듯 처녀에게 런던의 정이 쏠리는것을 느꼈다. 수많은 총각들이 그에게 원심을 써오다가 종당에는 그한테 코방을 맞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꼬리를 사렸었는데 이번에는 도리어 그 반대로 된 셈이 아닌가. 아니 코방을 맞은 정도가 아니라 만좌중에서 무참히 망신을 한것이다.

《게 좀 앉아라.》

대범은 먼저 자리에 앉으며 영희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살뜰하던지 그 말을 한 당자까지도 가슴이 몽클해질 지경이었다.

영희는 치마주름을 비다듬어내리고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영희 괴롭지? 믿음에 대한 배반처럼 가슴아픈 것은 없으니까...》

처녀는 눈길을 내리깔고 차분히 쓸어내려 반반해진 치마주름위에 두손을 올려놓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더니 피로움에 이길수 없는듯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피로와하지 말아라. 생활이란 다 그런게 니까.

나는 그 동무가 그렇게 순진한줄은 몰랐구나. 그 동문 아직 생활이라는걸 무엇인지 모르는 동무더군.》

이 순간 대범은 영희한테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수 있을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교훈은 말해주듯이 교사와도 같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물론 비판할수 있지. 규정두 중요하구. 그러나 영희, 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한것일까? 더구나 사람들과의 호상관계는 단순하지 않아. 그런데 그 동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더군, 그저 말끝마다 규정, 원칙이거던, 글썽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몰라도 어떻게 자기 애인이 한 일을...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라구,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도 그렇지... 이미 다 결정된 일을...》

《그렇지만 지배인동지가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기하라구 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말이였다.

《그렇다구 다 제기하면 되냐. 새겨들어야지. 그건 말하자면 이제 의견이 없겠지요? 그럼 이만합시다. 하는 뜻이란말이야. 영희두 아직 나이를 헛먹었어. 벌써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구 우리 공장에 온지가 몇년이야? 6년째가 아닌가? 그런데 두 아직 <학생>이란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영희를 <원규정동무>라구 하거던.》

영희는 눈길을 내리깔며 호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너무나 어이없어서일것이다. 하지만 대범은 그 모양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해가지고 말했다.

《물론 가슴이 아플테지, 더구나 가장 믿던 사람한테서 배반을 당한다는건 참기 피로운 일니까. 그러나 너무 피로와하지 마오. 사람이란 생활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진가를 알게 되는것이요. 때문에 사랑도 일시적인 흥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영구하지 못한것이 아니겠소. 너무 피로와하지 마오.》

대범을 쳐다보고있던 영희의 눈굽에선 갑자기 눈물이 펴 퍼져올랐다. 그것은 넘쳐나는 술잔처럼 건드리면 쏟아질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목메어

중얼거렸다.

《저는... 그래서 그런게... 아닙니다... 저는... 자신이 얼마나... 증오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만약 상철동무가 아니었다라면 저는 어떻게 될번했어요. 당과 조국 앞에 바치는 량심을 더럽혔을게 아니예요. 그런데 직장장동진 무엇을...》

처녀는 무슨 말인가 더 할듯 가늘게 입술을 떨더니 옆으로 몸을 돌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

대범은 두눈이 켜켜져서 처녀가 사라진 문쪽을 넋없이 바라보았다. 한방망이 호되게 얻어맞은듯 머리가 뻥해졌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는 지금까지 타고난 천품처럼 새겨져있던 너그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고뇌의 빛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대범은 무겁게 방안을 거닐었다. 처녀가 다 하지 못한 말을 스스로 찾아내여 음미해보려는듯...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가로 다가가던 대범은 굳어지듯 서버렸다.

공장정문을 향해서 두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영희와 상철이였다. 그들은 저녁녘의 창미빛노을을 담뱃피 받아안으며 무엇인가 속삭이면서 다정하게 걸어가고있었다. 그것은 다시한번 그의 머리를 세차게 때리는 방망이와도 같았다. 그러자 눈앞이 번쩍하면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불꽃들이 축포마냥 피어오르며 저녁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해나가는듯했다. 영희는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처녀였다. 아버지수령님과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한치의 드림도 타협도 융화도 모르는 처녀였다.

그런데 자기는 한점 티끌지 않은 순결무구한 처녀한테 그 어떤 《생활철학》을 설교했는가? 지지해주고 찬양해주어야 할 대신 피로움과 고통은 얼마나 주었으랴.

대범은 온몸에 묻은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먼지들을 털어버리듯이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아니, 더는 그렇게 살수 없다.

생활! 그것은 승부를 다투는 경기장도 아니고 명성을 떨치기 위한 무대도 아니다. 새로운 대본을 창조할 때마다 달라지는 무대배우의 연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범은 그 어떤 날카로운 환희와 기쁨, 쓰라린 비애를 안고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영희는 자기의 사랑하는 청년과 나란히 걸어가며 대범에게 아니 온 세상에 대고 이렇게 웨치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원히...》

꽃다발

한원희

1) 창공을 나는 어린 새

락원역에 멎어선 평양행 려객렬차는 손님들을 재촉하는듯 벌써 두번째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었다.

영애는 자기를 내려워주려 나온 주형공처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지만 려차에 오르지 못하였다. 혹시 이제라도 작업반장이 나올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반장은 아마 나오지 못할거야. 일이 바빠서...》

《아직도 못나온걸 보면 그런것 같다. 어서 려차에 올라라.》

다른 한 처녀가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려차원이 호각을 요란스럽게 불어댔다.

영애는 하느수 없이 려차에 올랐다.

《그럼 수고들해!》

《영애, 작업반일은 걱정 말구 토론만 잘하고와!》

《넌려 말아, 토론도 잘하구 평양구경도 잘하구와야 한다.》

《응, 알겠어.》

영애와 작업반동무들이 이렇게 웃고 떠들며 마지막 작별을 하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일 때 《영애동무!》하고 부르짖으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야, 반장이 온다!》

《반장동무, 빨리, 빨리요!》

처녀들은 조바심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작업반장 태석이는 지금까지 일하다가 나온듯 작업복차림으로 급히 달려왔다.

영애가 서있는 승강대앞으로 달리는 그는 손에 들고 나온 두툼한 편지봉투를 계주봉처럼 넘겨주며 숨이 차서 말하였다.

《차간에서라도 읽어보시오!》

《알겠어요.》

그들은 그이상 더 말하지 못하였다. 영애는 려차를 따라오며 손을 흔들어주는 동무들에게 마주 손을 흔들었다.

태석이는 그냥 그 자리에 선채 말없이 영애를 바라보았다. 영애는 지금 반장이 흥분하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흥분하면 저런 모습으로 말이 없으니까.

《반장동무-! 어서 들어가-세-요!》

영애는 입가에 손오가리를 해대고 소리쳤다. 태석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변

손을 들어 젖더니 천천히 돌아서서 역사쪽을 향해 갔다. 반장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영애는 려차안에 들어가 제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작업반장이며 정다운 동무들이 눈에 얼른거려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늘 자기가 가는 평양길은 자기보다 반드시 반장이 가야 할 길이다.

이번에 국에서 소집한 국산하 노동자, 기술자들의 경험발표모임에서 영애가 토론하게 되어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반장이 연구하여 생산에 도입한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려차는 어느덧 삼교천다리를 두다리며 힘차게 달린다. 영애는 손수건을 흔들어주는듯 흰연기를 무럭무럭 올리는 정든 공장지구를 바라보았다. 온 공장이 자기 하나를 내려주면서 《락원의 딸답게 토론을 잘하고 오라》 절절히 부탁하는것 같아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그래, 락원의 딸!! 참 가슴울렁이게 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난 아직 멀었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였다. 그러자 그는 어렸을 때의 못잊을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공장정문으로 향하는 갈림길에는 전화의 날, 락원의 10명당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유화가 높이 세워져있었다.

영애는 자기 학급 사로청처녀애들과 함께 떠나고 온 꽃모를 유화앞에 정성껏 옮겨가고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옆을 지나가던 한 공장청년이 그들의 모습을 대견히 바라보고있었다.

《애들아, 너희들은 참 좋은 일들을 하누나. 나도 좀 끼워주렴. 좋은 일을 혼자만 하면 나쁜 애들이지.》

청년은 팔을 썩썩 걷어올리며 다가왔다. 처녀애들은 약속이나 한듯 《어서 오세요!》하고 쟁쟁한 목소리로 한결같이 대답하고는 청년이 자기들과 함께 일할 자리를 얼른 내주었다.

그중 한 처녀애가 방그레 웃으며 청년에게 물통을 내밀었다.

《아저씨, 여기에 물 좀 길어오세요!》

《그래, 거참 작업조직을 썩 잘하는구나. 물은 아예 내가 맡기로 하자. 그래 네 이름은 무엇이야?》

청년은 물통을 넘겨받으며 이렇게 잘 어울려 돌아갔다.

《리영애예요!》

처녀에는 포릿포릿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른 애들이 중구난방으로 제동무를 자랑하였다.

《그 앤 우리 사로청위원장입니다!》

《최우등생입니다!》

《대단하구나. 너희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잘하는 참 훌륭한 학생들이구나!》

청년은 눈감박할 사이에 물을 펄펄 길어다가는 조심스레 꽃모에 물을 주곤하였다. 그리고 꽃모가 실수없이 뿌리를 내리도록 처녀애들의 일손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너희들도 커서 이 꽃처럼 아름답게 퍼나야 한다. 그래 너희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하려니?》

청년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처녀애들은 삽시에 조용해졌다.

영애는 말없이 머리우의 유화를 한참이나 우리르다가 나직이 대답하였다.

《난 녀성주형공이 될래요!》

위대한 수령님 앞에 정중히 서서 복구건설은 넘려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녀성주형공의 신념에 찬 모습을 바라보는 영애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게 된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실 영애는 어머니를 통하여 10명당원들의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그가 공장유치원에 들어가던 첫날아침엔 꽃리봉을 곁에 달아주며

《네가 한 십년쯤 먼저 태어났더라면 아버지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릴수도 있었을텐데...》하고 못내 아쉬워도 했었다.

정전직후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유치원의 두 어린 남녀애들이 꽃다발 드린 일이 있었다. 그때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나야 여기에 늘 오는데 꽃다발은 무슨 꽃다발...》

하고 자애롭게 웃으시면서 두 어린이들을 안아주시였었다.

온 락원땅이 그이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였었다. 영애의 어머니는 수령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항시 새겨있어 그런 말을 했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영애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10명당원도 부러웠고 꽃다발을 드린 유치원어린이들도 부러워졌다. 그래서 그가 수령님을 모신 유화앞에 정성껏 꽃발을 가꾸는지도 모른다.

한동안 그들은 아무말없이 꽃모를 심어갔다.

《그럼 너는 중학교랑 다 졸업하고 우리 작업반에 와야겠구나!》

《아저씨네 작업반이 주형작업반이에요?》

영애의 눈은 다시 별처럼 빛났다.

《그래 수령님께 기쁨드린 그 녀성주형공이 일하던 작업반이란다.》

《야, 아저씨 참 좋겠어요. 나도 커서 아저씨와

함께 일할테어요. 좋지요?》

《중구말구. 우리도 그 녀성주형공처럼 살려고 맹세를 다졌단다!》

그후 영애는 그 청년과 한번도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었다...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영애는 당초의 결심대로 직장으로 진출하였었다.

그는 작업장에서 뜻밖의 사실에 부딪쳐 참으로 놀랐다. 오래전에 꽃모를 심었던 그 청년이 자기 앞에 나타날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공장로동가에서는 영애와 몇번 담화해보고는 대번에 마음에 들어 다른 부서나 직장에 내려보낼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 부서의 욕심을 채우리라 고 여러번 시도하여보았다. 그러나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주형작업반에 보내주세요.》 하고 앉아 버티는 영애를 더는 어쩔수 없었다.

하기는 학교에서도 대학으로 가라고 추천하였건만 직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그의 요구를 끝내 막지 못했었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드디어 영애는 작업반으로 내려갔다. 작업반장은 다름아닌 꽃을 같이 심던 그 청년이었다. 그는 주철직장 주형작업반장이였다.

그는 태석이를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순간 너무 반가와 자기도모르게 《아저씨!》 하고 부를것만 같아서 울렁이는 가슴을 가까스로 달래였다. 짐짓 모르는체 하려니 얼굴만 점점 빨개지였다. 그는 무엇인가 랑심을 속이는것 같아서 또다시 말할가 말가 무척 망설였다.

(아니 안돼, 난 그 녀성주형공처럼 산다고 내자신이 인정할수 있을 때에야 말할테야!)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귀를 짓자 이내 가슴이 안정되었다.

태석이는 받아친 배치장을 보지 않고 우선 자기앞에 서있는 처녀부터 훑어보았다. 아직 단발머리에 학생복을 입고있었지만 처녀꼴이 잡힌 날씬한 몸매여 두눈이 어글어글 빛나고 얼굴색이 해맑은 신입로동자가 자기앞에 서있는것이였다.

귀염스레 꼭 다물고있는 저 입이 열리면 분명히 하얗고 가지런한 이발이 그의 얼굴을 더 한층 아름답게 단장시켜줄것이라고 태석이는 생각하였었다.

《이름은?》

《거기 썩여있어요!》

처녀는 태석이 들고있는 배치장에 눈길을 주며 조용히 대답했으나 가슴이 다시 널뛰듯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반장이 나를 알아볼가. 아니 못알아볼거야. 우린 1년에도 한뼘씩이나 자라는 소녀였으니까.)

그러나 영애는 자기의 이름 석자는 예나 지금 예나 변함이 없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아니다나를가, 배치장에 적혀있는 리영애라는

이름을 보자 반장은 한순간 놀라는듯하더니 추억의 빛이 젖어드는 눈길로 영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리영애라, 흠, 같은 이름이 있을수 있지. 열아홉살이라... 내가 알고있는 리영애도 열아홉살쯤 되었을텐데... 동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나는 동무를 다른 영애와 헛갈려보는것이겠지.》

하고 능청스러운 미소를 짓는것이였으나 눈만은 간간스레 영애의 얼굴을 살펴보는것이였다. 더는 속일수 없었다. 영애는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호호호, 그래요, 아저씨 저예요!》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할거지 그렇게 숨박꼭질 할건 뭐가, 응?》

반장은 반갑게 웃으며 영애의 두손을 힘있게 잡아흔들었다.

《잘 왔다. 인젠 때가 됐단말이지. 끝내 오고야 말았구나! 사람이 한번 먹은 마음이야 굵히지 말아야지!》

태석이는 오래간만에 손아래 누이동생을 만난 듯한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영애도 손우 오빠한테서 느끼게 되는 그런 따뜻한 정을 느끼었다.

이리하여 그는 마치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어린 새처럼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혼사망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천정기중기가 우뢰울듯 달음치고 어마어마한 용선로가 주련이 늘어서서 주황색 쇠물을 폭포치듯 쏟아내는 주철직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2) 새로 받은 충격

산과 강과 들을 끝없이 뒤에 남기며 기세좋게 달리던 렬차는 어느 한 중간역에서 멎어섰다.

영애는 자기의 추억도 이 중간역에 멎어서는 듯한 느낌을 안고 체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오르며 붐비는 역구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처녀동무, 여기 빈자리에요?》

영애는 자기더러 묻는 새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손님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다치며 재삼 물었을 때에야 얼굴을 붉히며 《아이참, 안됐어요. 어서 앉으세요.》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시원스레 빛나는 두눈을 가진 녀인이 자기를 내려다보며 정찬 웃음을 담고있었다.

《아니예요. 내가 혹시 동무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녀인은 말끝을 웃음으로 대신하듯 또다시 조용히 웃어보였다.

꼭선미가 뚜렷한 두 입술사이에 회고 가지런한 이와 알릴듯말듯 패이는 불우물, 반쯤 귀를 가리

우며 굵실굵실 빗어 틀어올린 머리는 그가 차려입고있는 연한 수박색 양복과 잘 어울려 매우 고상하고 침착해보이게 하였다.

영애는 녀인과 무슨 이야기든지 나누고싶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첫대면이교보니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이윽고 렬차가 떠나자 멈추어섰던 영애의 추억도 새로운 구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영애가 주형작업반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한지 한달가량 되었을가말가하는 어느날 태석이는 영애를 작업반의 모범로동자로 키워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영애가 10명당원들이 일하던 작업반에 큰 포부를 안고 자진하여 온것이라던가, 지금 힘든 일국은 일 가리지 않고 일하고있는 모습이라던가 눈썰미가 있고 손이 남보다 쥔것이 능히 로력혁신자로 자랄수 있는 기질을 갖추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애도 자기 생활의 모든것을 일에 바치였다.

그는 남보다 한두시간 먼저 출근하여 그날 작업준비를 다 해놓고 일에 달라붙으면 끝날 때까지 한번도 쉬지 않았다.

저녁늦게 잠자리에 들면

(내가 오늘 그 녀성주형공처럼 일했을가, 아니면 아직... 그런데 참 피곤하구나. 그도 나처럼 이렇게 피곤해하였을가.)

그는 혼자 중얼거리다가는 가물가물 잠겨드는 졸음에 취해 꿀처럼 단 잠에 온몸을 맡기는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계획을 두몫세몫 해내곤하였다.

마침내 영애가 공장에서 선참으로 상반년계획을 완수하는 날이 왔다. 온 공장이 그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태석반장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영애를 작업반의 혁신자로 키워 전체 작업반원들을 그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는 당초의 계획대로 일이 진척되고있기때문이었다. 이제 영애에게 부족되는것은 기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며 자기의 머리로 기술공정을 단축하며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스스로 찾을 줄 아는 주형공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10명당원들처럼 살수 있는것이다.

차츰 많은 공장사람들이 영애를 기특하게 여겼다.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진하여 어렵고 힘든 일터에 서서 년초에 상반년계획을 끝내고 그 본

새대로 계속 내닫고있는 영애를 도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영애는 기술학습도 일을 많이 하자고 하는것인데 이번만은 지원자들과 함께 일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음번엔 꼭 참가하리라던 그 결심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지원자들이 찾아왔기때문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작업과정의 기술공정단축이라든가 기타 이런저런 기술합리화안에도 생각할 시간적여유가 없었다.

지원자들과 함께 이루어놓는 높은 생산성과는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영애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요인으로 되게 하였다.

(이번 생산전투나 치른 다음에 하지.)

태석이는 이러한 영애의 심리를 모르는바 아니었다. 영애는 어느날 태석반장의 가슴아픈 비탄을 받고야말았다.

《여기는 10명당원들이 일하던곳이요,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그들의 신념을 꺾어버릴수 없소!》

순간 영애는 가슴속에서 무엇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딥고선 발밑이 사정없이 흔들리는것 같다. 다음순간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끝내 주형장을 뛰쳐나가고말았다.

영애로 말하면 누구보다먼저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우수한 노동자였다. 그의 로력적성파를 축하하여 공장속보판엔 《락원의 참된 딸》이란 제목으로 10명당원들의 뒤를 믿음직하게 이어나간다는 내용을 큰 글씨로 써서 내다붙이였다. 사람들이 그 속보판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그 속보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영애는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 속보가 싫지 않았다. 그는 남몰래 가슴을 울렁이며 좀 더 많은 일을 하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단말인가.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된다는 반장의 말은 무슨 말인가.

작업반휴계실 책상우에 엎드려 그는 한동안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때 일을 그려보면서 달리는 차창밖을 내다보는 영애는 지금도 얼굴이 붉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옆에 있는 녀인의 시원스런 두눈을 얼른 훑쳐보았다. 자기를 보고있지 않나 해서였다. 그러나 녀인은 줄곧 창밖에만 시선을 주고있었다. 영애는 그제야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난 왜 반장의 속깊은 마음을 몰랐을까.)

철길의 이음짚을 타고 넘는 렬차의 툄동적인 음향이 깊은 추억을 불러내는것인지 아니면 그 철길과 자기가 타고가는 렬차를 말없이 반들어주는 침묵때문인지 어쨌든 영애는 항상 자기를 반들어주는 반장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날밤.

영애는 집에 돌아가 밥을 먹는등마는등하고 자리에 눕자 온밤 신열에 떠들 앓음소리를 내였다. 그러나 새벽일찍 일어나던 버릇이 붙어서 제시간에 문득 눈이 떠지고 반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였다. 하지만 몸이 천근처럼 무겁고 머리가 펄펄 돌아가는듯하여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

(1분동안만, 1분후엔 무조건 일어나야 해.)

그는 눈을 감은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였다.

그는 10명당원의 한사람이었던 그 녀성주형공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의 정신적지탱점을 견지하여왔다. 헌데 어제저녁 태석반장이 한 그 말은 영애의 그 지탱점을 사정없이 흔들어놓았다.

그가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오전 열한시가 훨씬 넘었다.

《아이참, 내가 어찌자고...》

그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입다가 앓은뱅이책상우에 사과며 사탕팩들을 넣은 구력과 웬 도면두루마리 하나, 몇권의 책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그 옆에 쪽지편지도 있었다. 영애는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편지내용인즉 작업반일은 걱정 말고 며칠간 쉼쉬라는것 그리고 몸이 글을 읽을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공부할것을 권고하고 아래와 같이 계속하였다.

《영애동무, 오늘부터 우리 작업반은 유압식굴착기에서 심장부위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품을 주물생산하게 되였소.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여간 힘든것이 아니요. 공장기술부의 몇몇 사람들은 이 부분품만은 수입에 의거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있소. 나도 몇번 시험하여보았는데 실패하였소. 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찾았소. 문제점은 어떤 설계도면을 작성하는가에 달려있소. 어떤 기사나 연구사보다도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편지는 끝으로 몸조리를 잘할데 대하여 다시 부탁하고 태석이란 두글자를 적어놓았다. 도면은 태석이 그린것이 분명하였다.

영애는 크나큰 흥분이 높뛰는 가슴을 달래이며 공장으로 쟁걸음을 놓았다. 그러나 막상 주형장 문앞까지 다달으니 잠시 머뭇거리짐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불과 한것남짓이 누워있었지만 며칠간이나 공장에 나와보지 못한듯한 느낌이 들어 선뜻 문을 열수 없었다.

안에서는 반장의 말소리가 났다. 아마 점심을 끝내고 잠시 휴식하는 틈을 리용하여 새로운 생산과제를 이야기하는것 같았다. 영애는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릴것 같아 거기 그냥 선채 반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공장을 찾

오실적마다 그때 그 녀성주형공을 감회깊이 추억 하시면서 아직도 그 동무가 있는가고 물으시곤 하 시었습니다. 우리가 전후 양수기를 만들 때에도 물으시었고 탐식기중기를 만들 때에도 여기에 오 시어 락원의 로동계급이 일을 잘하니 그때 그 동 무가 더 보고싶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무가 아 직 있는가 물으시었습니다…》

영애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학습을 통하 여 이미 그 내용을 뜯금으로 외우다싶이하였지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것처럼 가슴이 후두두 떨려났다.

태석이는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말을 이어 나갔다.

《앞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을 다시 찾으신다면 일잘하는 동무들을 보니 그때 그 녀 성주형공을 찾으신것처럼 기쁘시다고 만족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여나갑시다. 그 녀성주형 공을 대신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립시다!》

영애는 태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자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손가락잡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래 그건 내 마음이었어. 그러나 난 아직 안 돼.)

오후작업종이 울렸다.

영애는 봉긋한 가슴을 들먹이며 작업장에 들어 섰다.

(그 녀성주형공을 대신하는 사람! 불타는 충성 심에 기술을 소유한 인간! 열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그의 가슴에선 이런 생각이 설렘였다.

(만일 그 녀성주형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한 다면 어떻게 일할가, 그의 눈빛은 어떻게 빛날가, 무슨 말을 우리들에게 할가, 걸을 땀 어떻게 걷 고 하루계획은 몇배나 넘쳐낼가, 그가 수령님을 또다시 모신다면 인젠 무슨 말과 행동으로 기쁨 을 드릴가.)

이렇게 생각한 영애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 가 그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맡기고 간듯싶어 어깨가 무거워지는것을 스스로 느끼었다…

그날 영애는 태석이와 함께 새로운 주형제작에 달라붙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품인데다가 그 것을 새로운 주물방법으로 하자는것이여서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착상은 기발하고도 단순하였다. 누구나 한번 보고 한번 들으면 쉽게 리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품생산시에 오작은 계속 생기는것이 었다. 역시 새로운 설계도면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있었다.

3) 반장의 모습

난생처음 제손으로 안면수술을 한 어린 의사가

환자의 얼굴에서 봉대를 푸는 날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심정이 영애의 가슴에서 못건디게 울렁이 었다.

지금 영애와 태석이는 상기도 뜨겁게 열기를 내뿜고있는 주형틀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있었다. 그들은 지난밤에 새 주형에 쇠물을 부었던것이 다.

이것이 성공되면 작업능률을 10 배로 올린다. 말하자면 열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담당해낸다는 것이며 수많은 생산면적과 주물사를 절약하게 된 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것은 이 부분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마침내 주물품이 떨어져나왔다. 영애와 태석이 는 두툼한 솜뎃어리장갑을 끼고 그것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며 살펴보았다. 모든것이 제 대로 되었다.

어쩌면 그리도 백광을 뿌리며 불티를 날리며 자기옆에 꿈쩍 열씬하지도 말라고 사납게 확확- 열기를 내뿜으며 모든것을 인정사정없이 태워버 릴듯 하던 쇠물이 이렇게 얄전하게 바라는 그대로 새 주형에 들어가 굳어졌는지 알수 없는것이 었다.

태석이와 영애는 으르릉대던 사자를 잠재워 놓 은듯한 기분이었다. 성공이었다!

그들이 작업장을 정리하고 주형장을 나섰을 때 에는 이미 삼태성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늘엔 무수한 별들이 정다운 빛을 뿌리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거나 하듯 소곤대는것 같았다.

어데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영애는 가슴깊이 맑은 공기를 한껏 들여마시면서 이 땅에 서 살며 일한다는것은 참으로 얼마나 보람찬것인 가하는 생각이 가슴속 어데선가 헛순처럼 돌아나 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태석이를 돌아보았다. 그 러나 태석의 걸음은 심상치 않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금방 쓰러질듯 비칠거리었다.

《반장동무, 왜 그래요, 네?》

영애는 그를 붙잡아세우며 다급히 물었다.

《아니, 조금… 몸이…》

태석이는 애써 기운을 솟구며 몇발자국 내짚었 으나 다시 기울기를 흔들리는것 같았다.

《반장동무, 어디가 아파요? 네? 반장동무-!》

뜻밖에 당하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여 처너는 안타깝게 부르짖기만 하였다.

《괜찮소… 어서 가자…구.》

태석이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하였으나 그것이 잘되지 않는듯 머리를 흔들어버렸다.

영애는 그를 온몸의 힘을 다해 부축하여 한발 자국 두발자국 걸었다.

영애는 반장도 이런 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었다. 사실 그의 눈에 비쳐든 태석의 모습은 어떤 불과 물속에라도 꺼꾸러지지 않을 의지강한 사람이었다.

영애는 학교때 자기를 배워주던 선생들을 정신력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무랄데없이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던것처럼 반장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대하여왔다.

그리하여 영애는 자기와 작업반동무들이 반장의 방조를 받는것은 응당한것으로 알았고 반대로 반장을 방조해줄 생각은 꿈에도 못해보았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것이였는가를 지금에야 깨달았다.

반장은 작업반동무들이 앓거나 피곤해하는 눈치를 보이면 휴식을 시킨다, 가정방문을 한다, 있는 정성을 다하였건만 나는 왜 반장이 이렇게 될때까지 도와주지 못했던가. 처녀의 두눈엔 자책의 이슬이 방울방울 내뿜었다.

태석의 집은 공장에서 멀지 않았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그의 안해는 놀란 낯빛을 짓다가 이내 침착해졌다.

영애는 그의 안해와 함께 태석이를 자리에 눕힌 다음에도 안절부절 어쩔줄 몰랐다. 다 자기때문인것만 같았다.

태석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어버렸다.

《아주머니, 내 얼른 진료소엘...》

자리에서 일어서는 영애를 붙잡아앉히며 그의 안해는 조용히 웃어보였다.

《아버지일은 내가 알아요. 조금 안정한 다음에 미음을 잡숫게 하자요. 그런데 그 일은 성공했나요?》

《네, 성공은 했지만 반장동무가...》

《그럼 됐어요!》

이날밤 영애는 그의 안해한테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공장에서는 몇달전부터 태석반장의 건강이 넘려되어 여러차례 료양갈것을 권고하였었다. 그러나 태석은 영애의 기술혁신을 끝내기전에는 갈수 없다고 매번 사양하였었다.

그래서 반장의 안해는 남편의 약으로 쓰자고 산청을 힘들게 구해왔으나 태석은 산청마저도 다룬데 썼다는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주형설계도면을 위해 밤마다 지새웠다는것을 알았을 때 영애는 그만에야 흐느끼고말았다...

영애의 옆에 있는 녀인은 새로운 풍경이 바뀌는 차창밖을 내다보기가 무척 즐거운듯 명상에 잠겨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영애는 녀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아까 반장이 차간에 올라가서라도 읽어보라고 주던 편지생각이 났다.

《어마나, 내가 그만...》

그는 반장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린 자신이 민망스러워 부리나케 가방에서 두툼한 편지를 꺼내었다.

《...영애동무, 동무가 해야 할 토론원고를 약간 수정보충할 문제가 생겼소. 물론 이미 준비한 원

고대로 토론을 해도 무방하오. 그러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참고하여주시오. 시간이 없어서 동무와 미처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주시오.》

영애의 가슴은 몹시 뛰놀았다.

(무슨 문제일가?)

마치 차창밖에서 급히 달려와 뒤로 재빨리 물러나버리는 전주탑들처럼 새라새로운 생각의 토막들이 영애의 머리속에서 재빨리 흘러갔다.

영애는 단숨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리 읽었다. 실로 놀라운 발견이였다! 영애는 편지를 제가슴에 꼭 갖다대었다.

지금 리용하는 설계를 수정하여 또다시 더욱 합리적인 새 설계도면을 완성해낸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기술공정을 절반이나 줄여놓는 것이였다!

영애는 금시 뜨거움이 눈굽에 젖어들어 슬그머니 차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공연히 옆에 앉아 있는 녀인에게 눈물을 보이고싶지 않았다. 자기만이 이 뜨거움을 오래오래 간직하고싶었다.

영애는 락원역에서 렬차가 떠날 때에야 뛰어나오던 반장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렇다. 어제밤에 태석반장은 새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시험주물까지 하였을것이며 그 결과를 이 편지에 쓰느라고 역에 늦어 나왔던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금 눈굽이 뜨거워났다.

(토론을 잘하자. 모든것을 숨김없이 말하자. 김태석반장이 이 모든것을 해결하였다고 회의참가자들앞에서 말하자, 그래 축하의 꽃다발은 그가 받아야 한다!)

영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자 가슴이 평온해지고 까닭모를 기쁨이 밀물처럼 흘러들었다.

차창밖으로는 영화의 화면처럼 새로운 풍경들이 끝없이 흘러갔다.

영애는 먼 강기슭에서 강바닥을 파내고있는 굴착기를 띠여보았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두손을 모아쥐며 가쁜 탄성을 내질렀다. 마치 렬차를 타고 렬행하고있는 어머니가 먼 들판에서 일하는 사랑스런 아들을 본 심정이라 할가. 누가 보거나 말거나 락원은 외진곳에서 저렇게 역센 팔을 내두르며 일하는것이다.

옆에 앉아있는 녀인도 그 굴착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것 같더니 마침내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호-》하고 아쉬운 소리를 내었다. 두녀자는 약속이나 한것처럼 동시에 차창에서 물러났다. 하자 그들은 자기들 두사람이 각기 굴착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것을 알았을 때 서로 놀라 상대방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윽고 영애의 얼굴에 의미있는 미소가 피여났다. 녀인의 얼굴에서도 여유있는 웃음이 꽃피었다.

《난 락원기계공장마을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락원에서 만든 굴착기를 보면 그냥은 못스쳐치나요.》

너인의 목소리는 그의 의젓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잘 어울리는 맑고도 정다운것이였다. 영애는 그의 음성에서 친근한 정을 느끼였다.

이리하여 두 녀자는 오래간만에 만난 언니와 동생처럼 다정하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너인은 기계공업부 처장이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생활을 허물없이 이야기하였다.

무슨 말인들 못했으랴. 너인은 정전직후 락원기계공장 유치원에 다니였지만 지금까지 거기서 한번도 일해보지 못하였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인민학교를 다닐 때 평양으로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 이사하여갔기때문이었다.

영애는 갑자기 너인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는 듯하여 섭섭하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뜻밖의 사실에 놀랐다.

《정전직후였어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시였어요. 그이께 우리 반 유치원 남녀 두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렸어요. 남자애는 김태석이라고 지금도 락원기계공장에 있어요. 그리고 처녀애는 저였어요!》

순간 영애의 온몸엔 세찬 흥분이 파도치였다. 그의 귀에는 그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하셨다는 말씀도 그는 이미 전설처럼 들으며 자라나지 않았던가. 다만 영애는 이 꿈같은 순간 한없는

영광을 안고 조용히 말하고있는 너인을 넋없이 바라볼뿐이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10년 먼저 태어났더라면 너도 수령님께 유치원생으로서 꽃다발을 드릴 수도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던 그 말!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다름아닌 우리 태석반장이였고 이 너인이었구나!

아, 태석반장! 10명당원들이 섰던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세워주려고, 아니 온 작업반을 그 자리에 세워 충성의 꽃들을 말없이 피워가는 사람! 태석반장이 글썽 그런 사람이었구나!

영애의 두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내렸다. 어린날에는 폭탄구멍이를 메우고 심은 꽃들을 가꿔 수령님께 꽃을 꺾어드렸던 태석이, 오늘엔 10명당원들이 지녔던 그 신념을 온 작업반에 꽃피워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있는것이다.

너인은 영애가 울고있는것을 보자 하던 말을 그치고 자기도 하얀 수수건을 꺼내서 눈굽을 가볍게 닦았다.

영애는 너인에게 태석이가 자기네 작업반장이라고 종내 말하지 못하였다. 왜 그런지 태석의 모습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렇듯 평범한 인간이라고 선뜻 말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마침내 객렬차는 평양에 들어서면서 기적울 높이 울리였다. 마치 영애의 격한 마음을 대신해주기라도 하듯이-!

배고동소리

로승모

어디로 떠나는 배고동소리나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며
지워지지 않는 생각을 남기며
서해 멀리 사라지는 배고동소리

없어지는 섬
없어지는 나루터
물과 이어진 섬에서
낯익은 기계배 영원히 떠나간다

오 못잊을 소리 배고동소리
새 영화 실어오던 그 저녁이면
집집의 창문들 열리게 했고
반가운 손님 실어온 그날엔
나루터가 하얗게 덮이게 하더니

귀에 익은 저 소리 배고동소리
이제는 멀리멀리 사라지느냐
물에서 뻗어온 꿈같은 새땅

간석지 새땅이 섬까지 닿아...

아침저녁 실어오던 뜨거운 사랑
어버이사랑이 너무나 커서
실어오고 실어와도 못다 실더니
너 이제는 모든것을 새땅에게 맡기고
이제는 어디로 떠나가는것이냐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새땅을 따라
우리에게 어느때나 와닿으려니
오곡백과에 산촌의 진미도
뜨거운 은정과 함께 와닿으려니

수평선너머 머나먼 섬으로 어서 떠나라
엇바뀌는 새생활이 너무나 커서
가는것보다 맞는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즐겁게 너를 보낸다
기억속에서만 울러오고 울러갈 배고동소리여!

창작적사색과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

장정춘

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창작적사색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창작은 사색의 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작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색을 하여야 한다.

창작적사색이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것은 그것이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전제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이 깊이 사색하고 잘 다듬어서 하나의 작품을 써도 걸작이 되도록 써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문학예술론》, 401페이지)

모든 걸작은 깊은 창작적사색이 낳은 열매였다.

사실상 생활에 대한 탐구와 사색을 게을리할때 철학적으로 심오한 문학작품의 창작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은 명백하다.

오직 탐구와 사색을 심화함으로써만 철학적으로 심도있는 걸작을 창작할수 있다.

1

물론 작가의 사색은 스스로가 언제나 심오한 진리에로 곧바로 도달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사상과 다방면적인 생활체험을 자기의 기초로 하고 거기에서 사색의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될 때 비로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작가의 창작적사색은 언제나 또 이렇게나 저렇게나 일정한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진행된다.

사색과 탐구에 미치는 철학적사상들과 문예리론들의 영향은 그의 성과를 좌우함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졌다는것을 문예사적경험들은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사상과 리론에 고무되고 거기에서 옳은 관점과 방법론을 찾게 될 때 사색은 참으로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 전반적인 예술적완성을 이룩할수 있도록 작가를 힘있게 도와줄수 있다.

향방을 잃고 암중모색할 때 작가의 사색에 빛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사상이며 리론이다. 그것은 작가에게 생활을 보는 《눈》을 띄워주고 현실을 분석하는 《자》를 준다.

장편소설 《평양시간》, 《령마루》 등의 창작경험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장편소설 《령마루》를 구상하는 사색과정에 작가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안겨줄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성을 찾고 그것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작용과 역할을 하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자기의 수기에서 쓰고있다.

또한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작가는 자기가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생활탐구와 창작적구상에 들어갔을 때에는 갈팡질팡하면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실을 회상하고있다.

종자리론의 진수를 파악함으로써 작가는 창작에서 열쇠를 잡아쥐게 되였으며 그의 사색의 길에는 문이 열리지게 되였고 신심과 용기가 생기게 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작적사색이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함에 있어서 옳은 세계관과 방법론에 의거할 때 참으로 거대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의 해발아래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오늘의 우리 문학의 자랑스런 성과 그자체가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는 진리이며 산 현실이다.

반대로 자본주의, 봉건주의 등 반동사상의 영향은 작가들로 하여금 객관적현실, 인간과 생활을 대함에 있어서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게 하며 그들의 사색과 탐구에 해독적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불건전하고 비현실적인 사고활동을 조장시키고 장려하는데로 나가게 된다.

현대부르조아철학과 문예사조들, 각종 기회주의 사상조류들의 악영향을 받는 작가들의 사색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이며 현실과 유리된 공허한것인가 하는것은 부패타락한 그 문학의 반

동적정체가 여지없이 자체폭로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상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는가 또 어떤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고와 탐구를 기울여나가고 심화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사색의 질을 좌우하고 그 진리성을 검증하는 근본조건으로 되며 나아가서 문학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성과 철학성을 규정짓는 초석으로 된다.

작가의 사색은 또한 풍부한 생활적체험으로 안받침될 때 은을 낼수 있다.

생활에 기초하지 않은 사색, 그것은 한갓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 당은 작가들이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 앉아서 좋은 글을 쓸수 없으며 생활체험을 풍부히 하고 현실속에 들어가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항상 간곡한 가르침을 주고있다.

축적된 생활체험의 토대우에서 사색하고 환상의 나래를 펼칠 때 사색은 언제나 생활에 대하여 진실하게 말할수 있을것이다.

생활은 환상의 어머니일뿐아니라 사색의 옹고그름을 판가름해주는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관》이기도 하다.

생활은 그자신과 상반되고 개인적취미로 외곡된 그러한 《사색》에 단호한 징벌을 내리고 작가를 건전하고 고상한 사색의 길로 인도해준다.

생활은 거울이다.

그것은 사색하는 작가에게 옳다, 아니다, 혹은 지나치다, 미약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것이 곧 나다! 라고 환희에 차서 웨치기도 한다.

생활은 언제나 작가 그자신보다 총명하다.

생활을 왜소화하지도 않고 미화분식하지도 않으며 사진기와 같이 복사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진실하게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생활은 이렇게 가르치고있다.

작가는 생활의 이 믿음을 저바리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자기의 기초로 삼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생활체험을 자기의 자양으로 하게 될 때 사색은 참으로 걸작을 낳을수 있다.

2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창작적사색이란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른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창작적사색에 대한 이러한 정식화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것으로서 작가들의 창작과정자체를 신비화하고 문학작품을 그 어떤 《선천적재능》의 산물로 보는 부르조아적견해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작가들의 창작을 무한히 고무하는 추동력으로 된다.

창작적사색을 탐구의 과정이라고 한것은 사색을 그 구체적인 발현형태에서 본것으로서 인간과 생활을 대하는 작가의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질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것을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라고 한것은 사색을 그 원천의 견지에서 봄으로써 창작에 선행하는 작가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해준다.

자체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숙련과정에 사색은 심화되고 세련되며 온갖 산만무질서를 제거하고 사고활동에서 목적지향성이 뚜렷해지게 된다.

창작적사색을 탐구의 과정으로 작가적자질의 반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른 그 어떤 《령감》으로 리해하는것이 얼마나 허황하고 무근거한것인가 하는것이 명백하게 된다.

작가의 사색은 항상 넘치고 또 넘쳐흘러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작가는 부단히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쌓아감으로써 자신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작가의 자질, 그것은 마를줄도 모르고 멈출줄도 모르는 사색과 탐구의 끝없는 원천이며 훌륭한 문학작품창작의 영양소이다.

그러나 자질은 그자체가 사색을 대신하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자질이 높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시대와 생활, 인간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한다면 날로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을것이다.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자, 이것만이 사색의 세계를 깊게 넓게 개척해나갈수 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사색은 생활에서 출발하지만 결코 생활에 구애되지 않으며 생활에 바탕을 두지만 생활 그자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상과 허구와 예술적과장의 도움으로 생활을 더 아름답게 더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줄수 있다.

때문에 그것은 아름답고 고상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할수 있

는것이다.

사색의 세계에는 풀잎에 구르는 작은 이슬방울로부터 끝없이 넓은 하늘과 풍만한 대지, 무변광 대한 우주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반영된다.

인간의 힘의 위력은 그가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있으며 이러한 사색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있다.

진리에 대한 발견도 세인을 경탄케 하는 과학적창조도 바로 여기에서 움트고 여기에서 탄생된다.

공상이 현실로 되고 가설이 과학으로 정의되며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그 모든 기저에는 끝없이 깊은 사색과 탐구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사색은 그대로 작품에 반영된다.

작품의 구절구절에는 사색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다시금 독자들의 사색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어머니조국의 귀중함과 위대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노래한 서정시 《나의 조국》의 한구절만이라도 상기해보자.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라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여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터져 젖어드는것이나

위대한 조국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얼마나 독자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가.

《나의 첫삶과 함께》자리잡은것,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슬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조상들의 넋이 숨배여있고 오늘의 환희와 랑만을 안은 땅, 내 조국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하게 하는 이 시구절을 시인의 깊은 철학적사색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시인이 창작을 위해 사색을 깊이하면 할수록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사색도 자연히 깊어지지 않을수 없다.

생활과 인간, 시대에 대하여 혁명과 투쟁에 대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독자들은 오래동안 작품이 안겨주는 여운을 간직하고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다. 그런 작품일수록 내용은 무게있고 안겨오는 사상은 철학적으로 심오하다. 결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없는 작품들은 읽고나서도 남는것이 없게 된다. 그런 작품은 얕은 내를 들여다보는것처럼 뻔드름하여 독자들이 사색할만한 아무런 생활도 주지 못한다.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수려한 호수,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아름다운 광채, 그런 작품은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사색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가.

사색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사색할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은 작가의 창작적사색의 심오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가 알고있는 훌륭한 문학작품들은 모두가 강한 여운을 안겨주고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오래동안 독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작품들이었다.

명가사의 항구성도 혁명적대작의 영원한 생명력도 바로 이러한 사색의 열매였다. 거기에는 잊혀질래야 잊혀질수 없는 생활의 진리, 의의있는 인간문제가 있으며 모든 독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릴수 있는 위대한 생활의 철학이 있다.

3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철학적깊이문제는 그 어느 분야나 측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창작의 전과정을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전반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다 같이 특징짓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창작과정의 모든 고리에서 기울여지는 작가의 창작적사색은 마땅히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근본전제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선 창작적사색을 깊이할 때만이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요인으로 되고 있는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것은 철학성보장에서 이 세가지요인들이 작품의 근본핵에 대한 문제,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의 호상관계문제 그리고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근본문제들을 가장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기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것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무엇인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속에서 어느것이 본질적인것이고 어느것이 비본질적인것인가 하는 근본문제를 해명하는데 귀착된다.

이것은 작가의 깊은 사색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니 그것은 의의있는 인간문제와 본질의 탐구는 그자체가 구체적인 사고활동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기때문이다.

생산문제, 전투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적문제들의 수풀속에서 인간문제를 찾아내고 인간문제를 밝혀내는 과정,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을 보여주는 과정은 곧 사색의 과정이며 추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반화의 과정이다.

외형상으로 볼 때 생활은 언제나 본질을 전면에서 드러내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로는 부정이 긍정으로 가장하고 허위와 위선이 정의와 진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가 하면 미덕은 깊숙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숨기고있어 좀처럼 그 진면모를 드러내지 않는 때도 있는것이다.

현상속에서 본질을, 우연에서 필연을, 혼돈속에서 합법칙성을 추구하여 들어가는 과정, 진주보석처럼 빛나는 진리의 세계에 탐구해들어가는 과정은 그대로 작가의 사색과 사색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다 고심어린 탐구와 긴장된 사색의 결과였다. 그것은 중첩되는 사고활동의 무수히 많은 고개들을 넘어 탐구와 탐구, 사색과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비로소 얻어지는 창조물이다.

이와 같이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나갈 때 작가는 비로소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혁명연극 《성황당》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의 모범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만사람의 가슴가슴에 깊이 새겨준 이 명작들의 거대한 생활력은 거기에 심어진 종자의 철학적심오성에 있으며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제기에는 있다. 명작들의 종자가 안고있는 시대의 본질, 생활의 진리는 피어린 항일의 불길속에서 확고히 체득된 신념과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며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인민의 오랜 투쟁의 교훈이다.

창작적사색이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근본전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철학성보장에

서 역시 중요한 요인들로 되고있는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문학작품에서 생활의 새로운 탐구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탐구로, 인간의 새로운 성격적미,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의 탐구로 된다.

인간학인 문학에서 생활묘사의 힘은 생활속의 인간묘사에 있으며 인간성격의 탐구에 있다.

작가는 사색을 용하여 생활의 새로운 탐구를 지향함으로써 전형화를 실현한다.

작가의 깊은 창작적사색에 의해서만 전형창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력혁신자들, 투사들, 영웅들의 위훈은 그것자체로도 얼마나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가.

그러나 작가는 현실에 대한 수동적인 전달자, 기록자가 아니다. 보다는 인간내면세계, 정신적미의 탐구자이며 시대와 생활의 본질에로 검질기게 추구해들어가는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사색가이다.

꾸준한 사색속에서 작가는 드디어 일정한 시대와 사회의 본질적특질을 체현한 전형을 창조할수 있으며 바로 그것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인물, 자기들의 지향과 념원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고 거기에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도 함께 담아볼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주인공들인 순녀, 갑룡이, 꽃분이 등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며 장편소설 《새봄》, 《생명수》에 나오는 최명진, 박대성들도 또한 그런 인물들이다.

작품창작에서 성격창조는 전혀 새로운 한 인간의 《탄생》으로 되는만큼 작가의 머리속에서 인간성격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고있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인물이 가지는 개성적표현은 각이하다. 지향과 의지의 강렬성에서, 심리와 감정의 섬세성, 취미와 기호 등 구체적인 기질의 다양성에서...

작가는 사색속에서 이 모든것을 창조해야 한다. 깊은 사색을 거침으로써만 주인공들, 각양각색의 인간성격들이 형성되여나가며 아직 불명료한 인물들이 점차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특징,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걸음새를 가진 하나의 뚜렷한 산 개성으로 시대와 생활의 전형들로 완성되여나간다.

작가는 상상속에서 늘 그들과 함께 산다. 기쁨도 괴로움도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감수한다.

그리하여 작가의 머리속에서는 하나의 산 인간생활이 자리잡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탄생될 작품속에서 독자들이 보게 될 그것과 거의 꼭

같은 그런 생활이다. 혹은 언덕길과 마을, 혹은 공장구내, 지심깊은 막장, 바다와 산들이, 혹은 끝없이 술렁이는 강물과 풀향기 싱그러운 수림들이 보인다. 거기에서는 벅찬 노동과 생활이 들끓으며 인간들의 행복과 불행, 사랑과 증오의 하많은 사연들과 감정들이 얹히고 풀려나간다.

사색에 의하여 무르익혀진 그 형상들은 걸으며 행동하며 웃고 말하며 드디어 작가의 심장의 문을 거쳐 바깥으로 나온다.

이처럼 창작적사색은 문학작품에서 생활의 새로운 탐구의 요인으로 전형창조를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창작적사색은 또한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의 활용을 적극 추동하는 요인으로 도 된다.

사색이 없이 단 하나의 묘사, 단 하나의 표현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창작실천에서는 종종 깊은 사색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묘사와 언어표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어떤 경우인가.

묘사된 모든 화폭이 나무랄데 없고 빠짐없이 처리되어있으며 섬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어쩐지 힘이 없고 살아움직이는듯한 압동이 보이지 않으며 무뎡하고 생기가 없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깊은 사색이 보이지 않으며 인차 바닥이 드러나고만다.

사색하게 하고 환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고 여운을 안겨주어 두고두고 생각케 하는 여기에 예술의 힘이 있고 감화력이 있으며 또 그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것이다.

사색하게 하는 요인으로 될수 있는 그런 세부를 잡아쥐고 인상깊게 묘사할 때 그 형상이 안겨주는 감동과 여운은 비길데 없이 큰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상 그대로를 제시만 하는 《세부》, 너무도 뻔드름하게 다 보여주고 너무도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해주는 그런 《세부》에서는 묘사가 제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역시 너무도 보여주는것이 적게 될것이다.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헤아리게 하는 세부묘사는 깊은 창작적사색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

흔히 다 보고있으며 별치 않은듯이 생각되는 평범한 자연묘사를 통해서도 심오한 사회적의미를 부여할줄 알며 생활적진리를 특징지을줄 아는 능력, 그것은 작가의 깊은 사색을 거침으로써만 가능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눈석이에 대한 자연묘사가 몇군데 쓰이고있다. 그중에서 한구절을 보기로 하자.

《마안산계곡들을 흘러내려 이도송화강에 합쳐

지는 실개울들은 얼음이 다 풀렸다.

음지쪽 바위밑에서 지꽃게 도사리고있던 얼음 덩어리들은 검불이 박힌 자리에서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며 녹기 시작하였다.

겨우내 두터운 눈이 하얗게 덮여있던 밀림속의 땅거죽은 온통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유구한 세월을 두고 덧쌓이며 썩어온 락엽층밑으로는 흐린 눈석임물이 숨새여내렸다.

넘쳐나는 봄시위물이 마안산계곡들을 광광 울리며 쏟아져내렸다.

풍만하게 넘치면서 흘러내리는 눈석임물은 얼음장들을 등등 떠이고 바다로 흘러갔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그자체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문장들과 련결되면서 보다 큰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안산에 나오시여 여러해동안 묵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문서보따리, 불신과 모멸의 문서장들을 불살라버리셨다는 놀랍고 장쾌한 소식이 삼시에 동서남북 곳곳으로 번져나갔던 당시의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상징이다.

바로 여기에 이 자연묘사의 깊이가 있고 의의가 있으며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적인 세계가 있는것이다.

광막한 밀림을 씻어내리고 넓은 대지를 적시며 장엄하게 넘쳐나는 봄시위물, 그것은 그대로 사람들의 가슴에 서렸던 죄악과 배신과 불신의 차갑고 두터운 얼음장들을 깨뜨리며 녹아내리는 봄시위물이다.

그것은 바야흐로 시작되는 봄의 따스한 애무의 손길이 만물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정답게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삶의 노래, 광명한 새세계의 기초를 예고하는 장엄한 서곡이다.

그것은 력사의 눈석이다.

흰구름 피어나는 다양한 봄날 준엄한 겨울을 이겨낸 가지들에 움을 틔워주고 생명을 약동케 하는 어머니의 손길같이 부드럽고 따스한것, 그것은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해발이다.

바로 것처럼 두터운 신임과 의리, 것처럼 한없는 사랑의 태양이 있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넘치며 출렁이며 바다로, 혁명의 대양으로 흘러가는것이다.

이처럼 작가의 창작적사색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활세부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안겨지는 사상미학적작용력은 비할바없이 커지게 되는것이다.

창작적사색에 대한 리론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철학적깊이를 더 잘 보장할데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탐구와 고민의 나날

-장편소설 《령마루》의 창작과정을 더듬으며-

엄단웅

△ 기본자세

문학은 인간학이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것이 문학일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글들이 다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씌여지는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을 취급한 현실물창작에서 문학 아닌 문학,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생산기술실무소설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간혹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 원인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우선 현실을 대하는 우리 작가들의 눈, 즉 미학적기본자세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배낭을 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걸기한 《근》광산의 로동계급을 찾아떠난것은 1976년 봄인가싶다. 약동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당이 화력을 집중하고있는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찾아떠나는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까지 나는 광산이나 탄광에 가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깊은 골짜기를 누비며 내달리는 렬차칸에 앉아 나는 광산에 가서 한두달 파고들면 광산실정을 료해하고 나가서 소설의 종자도 줄거리로 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름지기 광산일이란 복잡한 기계공장이나 화학공업부문과는 달리 굴을 뚫고 광석을 캐는 일이니 농사일처럼 단순한 로동일것이다.

그러나 막상 광산에 가보니 나의 이 단순한 생각은 여지없이 뒤집히고말았다. 무엇보다 우선 웅장한 그 대자연과 그를 정복하기 위해 벌려놓은 거창한 생산규모앞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골짜기가 어찌나 깊은지 목이 아프도록 머리를 잔뜩 뒤로 제끼고 쳐다보지 않으면 푸른 하늘을 바라볼수 없을만치 산들이 높았다. 험한 그 산세에 뒤질세라 선광장의 스펀트지붕이 하늘을 찌를듯이 치솟은 그 산발의 거의 절반을 뒤덮고있는듯싶었다.

광산지휘부로 올라가는 길옆에는 공무직장이 자리잡고있었는데 그 공무직장 하나의 규모가 어찌나 큰지 자동차나 트랙토르를 만들어내는 큰 기계공장을 련상시켰다.

길에는 자동차가 끊임없이 왕래하였는데 거의 나 다 시내에서 볼수 없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대구경포처럼 무한궤도차에 이끌리어다니는 생전 처음 보는 대형채굴기계들이었다.

모든것이 엄청나게 커보였다. 자연과 설비 기 자체뿐아니라 사람들의 체구도, 인사할 때 내미는 그들의 손도 지어 려관식당에서 쓰는 국사발이며 세멘장에서 쓰는 세수바가지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크고 투박한것들이었다.

광산에 도착한 첫날 우선 나는 이 모든것에 위압을 느끼였다. 하지만 나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한것은 이튿날 인차를 타고 굴안에 들어가 내가 여직 알지 못하던 그 신비한 땅속의 세계를 알게 된 뒤부터이다.

패속도로 달리는 인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어둠을 뚫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채굴장들은 그곳으로부터 케지를 타고 수직으로 다시 수백미터를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이 기본경도를 축으로 하여 다시 수많은 굴진경도들이 거미줄처럼 뻗어갔으며 그 굴진경도를 따라 채굴장의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있다. 그리고 그 채굴장으로 난장에서는 끊임없이 빛을 보내주고 압축공기와 물을 보내주고 지령대에서는 교환대를 통해 끊임없이 작업지령을 전달하고있다.

지하막장의 전투지휘부에는 전등불이 휘황한 공연무대가 있으며 진료소에서는 광부들이 태양등을 쪼이고 식당에서는 오이랭채에다 맥주를 마시고있다. 회의장도, 사무실도, 목욕탕도, 도서실도, 침실도 없는것이 없으며 그것은 말그대로 땅속에 자리잡은 하나의 도시였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간사회는 지상에 있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습관되어있다. 세상이란 말 자체가 거기에서 나왔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가 딛고 살아온 땅밑에도 이와 같은 훌륭한 도시가 있고 들끓는 인간세상이 있다는것을 미처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발견한 새로운 《대륙》이다. 나는 흥분으로 가슴이 설레이기도 몸안으로 죄여들기도 하였다. 나의 무던

이 붓끝으로 내가 새로 찾은 신기한 이 《대륙》을 어떻게 정복할수 있겠는가? 나는 이와 같은 벽찬 창작적흥분으로부터 취재에 달라붙었다.

닥치는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것들을 취재수첩에 적어넣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적어넣은것은 내가 여직 알지 못하던 땅속의 비밀과 채굴공업에 대한 기술실무적 지식들이었다. 광산의 지하구조는 어떻게 생겼으며 굴진과 채광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며 현대적채굴설비들과 기재들은 어떤것들인가? 나는 몹시 바빠 보내는 광산기사장을 붙잡고 채광학에 대한 초보적인 기초강의를 듣기도 하고 광산기술과에 가서 채래식 수동식착암기며 현대화된 착암대차의 구조, 명칭, 성능을 적어넣기도 하였으며 채굴공정을 이해하기 위해 막장지령실에 가 앉았기도 하고 채굴현장에 나가 눈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작품의 료락을 머리속에 무르익혀보느라고 하였다. 이렇게 아마 한달나마 지낸것 같다. 어느덧 두툼한 취재수첩 한권이 다 채워졌다. 그러나 이상한것은 기술실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것이였다.

나는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현지취재기일은 거침없이 자꾸 흘러가는데 갈수록 앞이 막해지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일생을 지하막장에서 살면서 광산학을 질문으로 해온 사람들도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채굴공업발전을 따라가기 바쁘데 광산이란 난생처음 보는 내가 불과 한달사이에 그 모든 지식의 요새들을 점령해보려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였겠는가.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광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가지고는 채굴의 종합적기체화가 실현되고있는 현실생활을 그려낼수 없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 집요하게 매달려있었다. 나는 한달남짓한 그간의 현지생활을 스스로 총화하고 광산생활을 빨리 파악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것은 모든 작업공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길이었다. 나는 채굴막장에 나가서 착암기를 직접 손에 잡아보기도 하고 착암조수가 되어 불호스를 바로잡아주기도 하였다. 한번은 발파수들의 일손을 도와준일이 있었다. 도화선에 불이 달리고 70센치밖에 안되는 도화선이 치직치직 타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제 5분후이면 폭발이 진행되는것이다. 발파공들은 빨리 대피장으로 나가라고 거듭 권하였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도화선에 불이 달리는 아슬아슬한 광경을 보고싶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자리를 뜨지 않고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도화선에 불이 달리고 발파수들이 대피소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자 나도 그들과 함께 광석무지를 헤집으며 대피장소로 내달리었다. 그러다가 쇠돌무지에 발이 걸쳐 엎어지면서 허리를

물치였다. 요행 대피장소에 거의 다달았을 때 일여서 발파공동무들이 나를 대피장소에 끌어들여주었다. 때를 같이하여 요란한 발파소리가 일어나며 돌파편들이 날아와서 맞은편 갱도벽을 후려갈겼다. 나는 물친 허리때문에 며칠 고생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인것이다.

채굴중대장, 교대지령장들의 사업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들과도 생활을 같이 해보았다. 갱장과 함께 막장에서 침식을 같이하기도 하고 광산기사장과 같이 차를 타고 그가 가는데로 광산구내를 돌아보기도 하였으며 그가 소집한 이동참모회의나 현장기술협의회에 참가하여 말없이 한쪽구석에 앉아있기도 하였다. 취재대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것보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직접 보고 느끼고 받아안은 이 체험방법은 확실히 광산을 이해하는데서 유익한 방법이었고 일정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활이 두달 남짓하게 다시 흘러갔다. 어느덧 취재수첩 한권이 더 불어나고 광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료략적으로나마 어렵듯이 이해되는듯 싶었다. 그러나 막상 기술협의회나 이동참모회의에 참가하여보면 의연히 광산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것인가를 깨닫고 낮이 붉어지며 물어보기조차 면구스러운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공무직장에서는 광산에서 새로운 선반기대를 더 주겠다는데 왜 싫다고 하는지? 갱장들은 현대화된 대형착암기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왜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에서 말밖에 자꾸 오르는지 중요하게 논의되는 문제점자체를 이해할수 없는것이였다. 광부들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주고받는 부유벨트요, 꼬론가요, 브로크요, 발파효률이요 하는 술어자체를 이해할수 없이 답답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고보니 광산을 기술실무적으로 파악한다는것은 몇달동안의 시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소설의 종자며 줄거리를 세운다는것은 더욱 막막하였다. 나는 다시 초조와 불안에 휩싸이였다. 점점 헤여날수 없는 미궁에 빠져 도저히 뚫고나갈수 없을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광산기사장과 함께 거의 해발 2,000미터나 되는 수직갱건설장으로 간적이 있었다. 차는 깎아지른듯한 아슬아슬한 산벼랑을 끼고 굽이돌며 여러 시간 산정으로 돌아올랐다. 산이 어찌나 높은지 창밖을 내다보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령마루에 오르자 숨을 돌리려고 차에서 내렸다. 사위를 둘러보니 험준한 산발들이 머리를 추켜들고 파도쳐 일어섰는데 그 웅장한 대자연의 위용앞에서 나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켜보고있었다. 허리에 흰 안개를 백포처럼 두르고 거연히 머리를 추켜들고있는 그 영웅적기상은 신비롭고 숭엄하기까지 하였다.

《저기 저 봉우리의 높이와 2,300미터인가 되고 이쪽 범처럼 생긴 저 봉우리가 2,100미터입니다. 이 근방의 산발들은 모두 2,000미터이상들이지요.》

기사장은 손으로 산발들을 가리켰다.

얼핏 보기에 그 산발들은 그의 말대로 우리 나라의 명화, 맹호도나 투전도에 나오는 사나운 짐승들이 여기저기 눌러앉은것 같았다. 그리고보면 봉우리들은 마치 두발을 척 짚고앉아 조으는듯 앞을 내다보는 범의 머리갈기도 하고 흘러내린 산발들은 마치 고풍처럼 패인 발의 갈비대갈기도 하였다. 자연이란 얼마나 웅장한것인가. 나는 수억년전 지구의 지각운동으로 이루어졌을 이 대자연의 신비로운 창조물앞에서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압감을 느끼었다.

《범처럼 사납게 생긴 저 산악이 어떤것은 속이 텅 비어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세로 무수한 갭도를 뚫고 채굴공간을 형성해냈으니깐요. 말하자면 껍데기만 남은 종이범이지요. 이제라도 폭약을 장치하여 폭발시키면 평지처럼 풀썩 물러앉을 겁니다. 앞으로 저 산발들이 하나하나 모두 인간의 힘에 의해 정복돼나갈것입니다.》

기사장의 말이였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장엄한 그 산발들을 다시한번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렇다! 기사장의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산속으로 열기설기 뻗은 무수한 갭도와 채굴공간으로 하여 어떤 산속은 텅 비어있다. 산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지압을 유지하기 위해 남겨놓은 잔주만 아니면 이제라도 무너져내릴것이면 한다.

우리가 올라오면서 지나온 갱지휘부가 아득히 굽어보이는데 실오리같은 광차꼬리가 땅밑으로 천천히 기여들어가고있었다. 이 거대한 산악에 비기면 사람이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큰 바위를 기여가는 작은 물체만한 크기도 못된다. 그러나 작게만 보이던 그 사람들은 우주공간에 솟아오른 거대한 지각의 한 부분을 파내여 껍데기만을 남겨놓지 않았는가, 그리고보니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힘의 위압을 느끼게 하던 이 대자연 우에는 그 어떤 보다 크고 위대한 힘이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힘이란 얼마나 장한것인가. 하기에 예로부터 인간은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여직 어째서 룡을 낚는 전설의 장수같은 이 인간들을 보지 못하고 지내왔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나는 벽찬 흥분에 휩싸여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깊이깊이 되새겨보았다.

수직갱건설장에 도착해보니 거기서는 대수직갱공사가 벌어지고있었다. 수직갱의 규모에도 놀랐지만 나는 우선 그 육중한 대형설비들과 기자재들을 해발 2,000미터 가까운 이 험한 산꼭대기로 끄집어올린 사람의 힘을 놓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모름지기 육중한 그 대형설비와 기자재들은 작은 토막으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화물차에 싣고 험한 저 산벼랑들을 툴아올랐을것이다. 마치 개미떼들이 입에다 작은 먹이들을 물어서 옮기듯이...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작은 그 힘들을 조직하고 합쳐 성스러운 창조적로동으로 대자연을 하나하나 정복해나가고있다.

나는 광산에 와서 하늘높이 솟아오른 산발과 대형착암기와 복잡한 기술실무에 위압을 느끼고 거기에 파묻혀 그 모든것을 지배하는 주인인 사람, 만물의 령장인 인간을 보지 못하고 허튼 취재를 해온 일이 부끄러웠다.

나의 가슴은 새로운 창작적충격과 환희로 부풀어올랐다.

나는 지난 3개월간의 현실탐구가 헛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절절히 깨달았으나 마음은 서운함보다도 기쁨으로 가득차올랐다.

주체적문제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나는 3개월간의 우여곡절을 통해 문학의 본연의 자세로, 작가의 기본자세로 되돌아왔다.

△ 종자의 탐구

나는 이 거창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주인,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들에 대한 탐구의 길에 들어섰다.

어제날과 같이 광산기술과나 대형착암기나 착정기대신에 갱합숙으로 식당으로 사무실로 광산의 주인인 광부들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 기사장-현우림도(새로운 의미에서) 윤혜영기사도 금옥이도 제대군인 희철이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다 희망찬 삶과 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기뻐도 하고 실망도 하며 슬퍼도 하고 웃기도 하며 한숨도 짓고 우리 현실의 평범한 인간들이였다. 넓은 의미에서 이런 인간군상들은 우리는 이미 소설문학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그러나 문학은 같은 현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시대적 성격으로 전형화되고 새로운 예술적형상으로 첨부되는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과업이 전면에 나서고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3대혁명시대의 특징을 체현한 주체형의 새 인간이란 대체 어떤 사

람들인가? 그들의 본질적인 성격적특질은 무엇이며 그들의 삶의 목적과 지향은 어떤것인가? 나의 창작적고충은 한결을 더욱 깊어갔다. 탐구와 고민의 나날이 다시 흘러갔다.

소설의 주인공인 광산기사장 현우림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원래 말이 적고 무뚝뚝한 성미인데다가 자기 자랑을 수치로 여기고 자기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정신세계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번은 우연히 그의 건강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때 자신이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 다만 며칠이라도 못다한 일을 더 해보려고 병원을 뛰쳐나왔던 사실을 실토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지난일을 무심히 털어놓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받아안은 나의 충격은 컸다. 거기에는 죽음보다 더 억센 그 어떤 삶의 신념이 맥박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의 몇마디 말속에는 내가 그토록 모색한 주체형의 새 인간의 특질 즉 인류의 가장 높은 리념인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성스런 그 길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가장 본질적특질이 구현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죽음,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소박한 인간철학으로부터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목마를 타고 전쟁을 벌리던 일리아드로부터 우주비행선을 타고 행성으로 날아가는 시대의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철학과 문학사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론의를 거듭하고 고민하여왔는가. 그러나 멸망에 직면한 현대제국주의자들이 죽음의 공포속에서 몸부림치는 오늘 지구우에는 죽음을 모르는 새 인간들이 태어나고있다.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 정당한 자기 위업에 대한 신념으로 하여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정치적생명으로 하여 영원히 죽음을 타승한 새 인간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인류력사우에 탄생하고있다.

이 작품의 종자라고 할지, 아니면 이 소설의 직접적인 착상의 동기랄가 혹은 극적계기랄가 한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나는 여기로부터 인간의 두 생명 즉 정치적생명과 육체적생명에 관한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제기할수 있었다.

자주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수령을 위해, 주체위업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 길은 오직 영광의 한길이라는 사상적결론을 도출할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종자를 형상으로 충분히 꽃피우지 못하였다. 원래 계획에는 로영민교수(기술부원장)를 통해 그 철학세계를 형상적으로 깊이 추구하려고 시도했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것이 유

감스럽다.

△ 작품의 구성과 인물형상

- 소설의 구성

소설문학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몇가지 구성법들이 있다. 그것은 물론 작가들이 오랜 창작실천과정에 쌓아올린 귀중한 경험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옳게 살려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고정불변한 수법으로 절대화할수는 없다. 왜냐 하면 문학의 형식은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즉 내용에 상응하게 항상 변화발전하게 마련이며 사람들의 예술적사고능력과 미의식의 발전에 따라 더욱 완성되고 풍부화되기 마련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실천에서는 틀에 박힌 구성형식에다 기계적으로 현실생활을 뜯어맞춤으로써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도식적인 관박이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어떻게 하면 실생활을 꾸민잡음이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구성을 완성하겠는가 하는 고민이었다.

여러가지 각이한 안의 틀거리를 세워보았다. 어떤 줄거리는 시종 기사장과 갱장과와 첩예한 갈등으로 또 어떤 방안은 갈등을 전혀 무시한 인간관계로, 또 어떤 방안은 기사장이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후 90일간의 생활을 그린 일기체형식으로, 각이한 구성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지금의 구성형식에 이르렀다. 집필도중에 몇차례의 수술도 진행되였다. 소설이 완성되기전에 이 작품의 구성에 대하여 각이한 의견들이 제기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각이한 의견들에 대해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론의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왜냐 하면 작품은 주관적산물이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것으로서 항상 공정한것이 기때문이다. 나는 이 작품의 구성을 놓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면서 기존구성형식에 매여달리지 말고 매번 새로운 구성을 세워야 한다고 한 당의 가르침대로 자기 식대로 써봤기때문이다.

- 인물형상

주인공의 성격을 어떻게 전형화하고 개성화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산 인간처럼 생동하게 전형화하고 립체화하겠는가?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인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것 같다. 나는 다만 여기서 이 작품창작과정에 체험한 잊지 못할 한가지 곡절만을 적어두려고 한다.

그것은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내가 시도했던 전도법이다.

규정된 성격을 처음부터 제시하여 앞이 뻔히 내다보이게 함으로써 작품을 단조롭고 뻔드름하

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 광산에 처음 온 윤혜영의 시점을 빌어 전도적인 수법으로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끌고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쉽게 말하면 그가 관료주의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 이 형상시도가 작품창작과정에 그토록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하였다. 작품의 초고가 제출되었을 때 이런 관료주의자가 어데 있는가, 성격의 일관성이 없다, 앞뒤가 모순된다... 의견은 끝이 없었으며 나는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 고치느라고 진통을 겪었다.

물론 그런 의견을 야기시키게 주인공을 형상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자신에게 있다. 나는 재고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소화하느라고 고심하다가 지쳐 앞부분의 그 관료주의적요소들을 모조리 깎아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범한 두번째 실수였다. 제기된 의견들은 소화되고 작품은 거침새 없이 매끈하게 다듬어졌으나 거기에는 주인공의 개성도 형상적향취도 없는 개념화된 판박이 기사장만이 남았기때문이다. 만약 이때 동지들과 집단이 내가 범한 이 실수를 제때에 바로잡아주지 않았다면 소설은 돌이킬수 없는 실패를 면치 못했을것이다.

윤혜영은 새삶을 창조해가는 우리 시대 한 여성의 전형화된 성격으로서 현우림이 도달한 삶의 《령마루》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이다. 그러나 창작적의도와는 달리 그의 형상에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그때 광산에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직접 무어주신 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내려와서 광산의 기술혁명수행을 도와주고있었다. 윤혜영의 원형인물은 바로 그 성원중의 한사람이었다. 아이 셋을 집에 두고 현장으로 달려나온 여성과학자동무를 한번 만나보는것이 어머니는 당조직의 권고를 듣고 나는 두차례에 걸쳐 도합 3~4시간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그때 그는 중화제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몹시 바빠 보낸 때여서 좀처럼 시간을 내기 바빠하였다. 그러나 그 짙막한 시간의 취재를 통해 나는 3대혁명이 심화되어가는 오늘 우리 녀성들앞에 나서고있는 문제들과 그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삶의 지향과 뜨거운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작품의 주요인물로 그의 생활을 취급하리라고 점찍어두고 후에 다시 만나 취재를 구체화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그후 다시 만날 기회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때 취재를 충분히 하였더라면 그의 생활을 재미있게, 더 깊이, 더 실감있게 그릴수 있었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지금도 아쉽다.

박상만갱장과 강희철을 비롯한 제대군인들 그리고 금옥의 형상은 더욱 불만스럽게 짝이 없다. 그러나 어쨌든 책이 나간 다음 소설의 그 주인공들과 낯모르는 여러 독자들로부터 그런 책을 더 많이 써달라는 고무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생각되는점이 많다.

이 책이 다소나마 독자들의 마음에 들게 쓰여졌다면 그것은 결코 나 개인의 창작성고가 아니다. 작가의 노력이나 고심과 창작적결실은 결코 같은것이 아니다. 나에게 만약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인간철학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만약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책이 어떻게 완성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작가들에게 주체적인 혁명적문제사상으로 눈을 환히 띄워주시고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꽃피우기 위해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사랑, 뜨거운 은정의 결실이였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가사

묘향산의 두봉화

홍기품

묘향산의 두봉화 빨간 두봉화
송이마다 기쁨안고 곱게도 피었네
아 아름다워

산속에서 속절없이 피고지던 꽃
해님 별님 너를 찾아 향기를 주었지
아 은혜로워

너를 보면 그 은정 가슴에 젖어
마음속에 안고가는 정다운 꽃송이
아 못잊어라

묘향산의 두봉화 빨간 두봉화
그 사랑을 전해가며 붉게 피여라
아 두봉화야

백수림의 봄시위

정해경

우리 나라 서북단에는 아름답리나무들이 들어선 백수림이라는 울창한 숲이 있다.

백가지나무가 무성하여 백수림이라 불리워오는 수림속을 단 한번만이라도 직접 거닐어볼 행운이 차례진다면 천태만상을 이룬 숲의 조화에 반하여 아마 천수림, 만수림이라고 경탄해마지않을 것이다.

어찌 그뿐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향긋하고 시큼하고 들크무래하고 알락지근한 백수림의 초목들이 다투어 풍기는 독특한 숲향기며 마음을 현혹시키는 숲세계의 깊은 정서에 대하여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다만 물은 고기를 낚고 산은 재부를 낚는다는 전해오는 말을 깊이 새겨보기 바란다.

이런 좋은 숲속으로 두사람이 걸고있었다.

아름이 벌게 살찐 나무들이 소리치며 치솟아 마치 고층건물사이의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듯한 그 모습에서 더욱 인상깊은것은 앞장서 걷는 사람의 체모이다. 얼굴이 강마르게 생기고 몸이 체소하나 모든것이 제자리에 꼭 박혀있어 강인한 빛갈을 풍기는 60대의 아버이는 호합스러운 침엽수 밑에 선 쇠스레나무와도 같았다.

그뒤로 끈에 매운 사람처럼 따르고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외양으로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나는 백년대목과 힌배기를 하는 산판의 <레스링선수>입니다. 37년간 병원에라고는 문전에도 가본 일이 없지요.》라고.

이들은 백수림이 주고받는 독특한 음향에도, 폐장을 짜릿하게 자극하는 숲향기에도, 바스락거리며 숲에 떠도는 새침한 봄기운에도 반향이 없이 침묵을 선언받은 사람처럼 묵묵히 마을쪽을 향하여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길뿐이었다.

이들은 군당위원회의 부름을 받고 갔다 돌아오는 서인식아버이와 박승국청년이였다.

이제까지 백수림작업소의 소장이였던 사람과 여직 서인식이미에서 작업반장을 하다 그의 후임으로 작업소장이 된 승국은 제각기 깊은 생각속에 묻혀 걸기만 하였다.

5월중순이라고는 하나 숲속에는 아직 군데군데 두툼한 눈이 그대로 무드기 쌓여 눈치를 보듯 희끗희끗한 빛을 발산하고있었으며 퍼런색을 바래기 시작한 얼음장들이 으스스진 골짜기마다에 흰곰처럼 웅크리고 앉아 입을 찹찹 벌리고 랭기를

토하고있었다.

겨울은 이 숲에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들이닥쳐 모든것을 퐁퐁 얼구어놓고야 《내 왔소.》하고 잉- 소리를 치지만 봄은 어딘가 멀리에서 지친듯 조금씩 소심하게 기색도 없이 조심조심 햇순이 돌아나는 유연한 구름나무잎으로, 작은 굴을 헤가르며 땅밑에서 빼여져오르는 꽃다지의 새싹머리로 살근히 찾아와 방긋이 미소짓는다.

그래서 숲사람들은 겨울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봄은 땅밑에서 올라온다고들 한다.

개울녘에 꼭 박아선 물버들가지마다 붉은 물이 들고 산에 들어찬 것비나무, 분비나무, 잣나무침엽에 희뽀얀 젖빛이 내돌고 침엽수가지밑에서는 물매채나무와 백리향이 애뜻이 피어나며 첫 향기를 조금씩 날리고 땃들쪽이 조용히 작은 잎을 피우는 소리가 사처에서 다득다득 들리고 풀이끼들은 금방 록색물감을 먹인듯 파래졌다.

참으로 고산지대의 《표본실》이라고도 할수 있는 백수림이었다.

숲에 봄을 알리는 신호수인 느릅가지새가 분주히 서둘러 목청을 돋우고있었다. 이깔송이만한 종고비도 작은 몸뚱이를 치장하고 봄의 도래를 알리려 이 나무 저 나무 즐거이 옮겨다녔다.

절기는 립하를 지나 소만을 오늘래일하지만 숲의 봄은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있었다.

어제 이들이 백수림을 넘을 때만 해도 쌀쌀한 바람이 숲을 건드리며 갈꺽질을 하였는데 오늘 아침나절은 바람 한줄기 없는데다 땅밑에서 더운 김이 물씬물씬 솟구쳐오르는 풍성한 날씨로 변하여 미구에 무슨 광태가 터질상싶은 느낌을 주었다.

승국이는 갑갑한 마음을 안고 서인식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서인식이 먼저 무슨 말이든 꺼내주었으면 꼭 막힌 가슴이 열릴것만 같았으나 그는 말문을 봉하고있어 어쩐지 마음속은 레사롭지않게 그저 불안스럽기만 하였다.

(나에게 사업을 인계할 아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승국이는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 작업소장의 직책을 인계하고 작업소교관으로 일하게 된 서인식에게 여직 백수림작업소를 빗내여온 좋은 사업작품과 오랜 경험을 승국에게 넘겨주라고,

그래서 백수림작업소의 명예를 계속 떨치라고 했다.

군당을 나서자 서인식아바이는 승국이의 손을 잡고 당의 신임을 잊지 말고 일군의 본분을 지키자고, 자기가 늙어서 마음이 미치지 못한 일까지 안고 백수림을 추세워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돌아가서 인차 인계사업을 끝내자고 했던 것이었다.

승국이는 인계라는 말에 선뜻한 감정을 느끼었다. 여직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작업반원들을 데리고 하루에 수십립방을 하기도 힘부쳐하던 자기가 하루에 600여립방을 내는 작업소의 주인으로 여섯개의 별목구역을 관할해야 하며 생산과 이어진 모든 일에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낙구름처럼 무거운 것이 가슴속으로 충충이 차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인식아바이가 한뼉 자기의 마음을 바친 이 백수림속을 걸자니 가슴속에 서리는 감회가 깊을 것이었다.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비바람 눈서리에 더 다듬어져야 할 산기슭의 애송이 사시나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렇다, 나는 일무게나 생활에서도 송진내에 폭 걸지 못한 풋내기다. 그러니 나에게 넘겨줄 백수림을 걸자니 소장아바이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리라...)

승국이는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서인식아바이의 심적충격을 덜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산을 넘어오다 쉬고간 둔덕이 나졌다. 작업소장이 되고보니 어제 서인식아바이가 이곳에서 했던 말뜻이 되새겨졌다. 그 마디마디가 승국의 가슴에 다시 메아리를 일으켰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지. 나라 영토의 4분의 3이 산이니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 얼마나 무거운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산림문제가 그처럼 중하길래 해방된 이듬해 첫봄에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손수 나무를 심으시였거던. 나라의 모든 산업건설이 다 그러하지만 산림의 만년대계도 이렇게 시작되어 오늘의 림산공업이 뿌리를 내린 것일세.》

서인식아바이가 해준 이 말을 되새겨보니 자기가 갓 배치되어왔을 때 산속에서 담배 한대를 잘못 피운 것이 죄가 되어 그에게 탁달을 받던 일이 가슴을 저미었다.

《이 사람이 산사람이 옳은가! 한점의 불꽃이 수백년을 공력들여 키운 숲을 일겁에 불태운다는 걸 모르는 녀석이 산림을 꽤 지켜내겠나말이야.》

그때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다. 삶의 년륜속에 가지가지의 생활들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때 서인

식아바이가 한 말이 승국이의 가슴에 꼭 박혀 만년자극제처럼 그를 자극하곤 하였다.

승국이는 어제 다리섬을 하며 숲에 사는 생각을 더 깊이한 이곳에서 숲을 두고 생산을 두고 들끓는 마음을 서인식아바이앞에 쏟아놓고싶었다. 하건만 서인식이 그 자리를 모르는듯 스쳐 지나고 말았다.

승국이의 가슴속에서는 서인식소장과 일해온 지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승국이가 작업반장이 된 첫째 어느 달이었다. 승국이는 몸이 화독처럼 달아가지고 작업반원들을 다몰아대였지만 월계획이 미진되었다. 하나 승국이는 몸속에 짙은 힘과 투지를 다 퍼내어 일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며 생산총화회의장으로 갔다.

《계획을 못한 작업반장은 나가시오. 자기 임무를 못한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면 깨끗한 마음들까지 흐려지오. 승국동문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소.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백수림작업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계획을 하고 봐야 하겠소. 동무같은 작업반장들이라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소. 사람은 늘 자기가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하오. 그게 바로 량심이란 거요!》

너무나도 뒤흔친 비판이었다. 그때 승국이는 철이 들어 처음으로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한뼉도 못되는 문턱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무거웠던가. 아직도 그 문턱이 눈앞에 선하였다.

그후 승국이는 작업반원들과 다른 일에는 다소 용서가 있었어도 생산에 대해서만은 타협을 몰랐다. 그래 여직 다달이 계획미진을 모른다. 사업소 생산총화회의때면 승국이는 주석단에 앉군했고 토론의 영예가 스스로 차례지군했다.

승국이가 이렇게 지난 생활경로를 되짚아보고 있을 때였다.

《작년 봄장마가 5월말이었지?》

조용하고 따분한 침묵을 깨는 서인식의 목소리였다. 그 음조속에는 은근하고 부드러운 것이 깔려있어 대번에 승국이의 마음을 확 끌어당겼다.

승국이는 숨이 활 나갔다. 별로 대답을 버리지 않아도 말머리가 저절로 잡히었다. 작년장마가 승국이의 생활에 충격적인 사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요. 4호지 철길을 건너편 잣덕기슭에 갖다붙여 우리 작업반이 영차를 손으로 밀어놓고 상반년계획을 했었으니까요. 그날이 바로 5월 29일이었지요.》

승국이 말을 듣고 잠시 음미해보던 서인식은 자기 속심을 이렇게 내비치는 것이었다.

《계절을 앞당기는것 같구만. 날씨 노는걸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서인식이의 선언적인 말에 승국이의 가슴은 덜컥하였다. 예의치 않았던 기후변동에 대한 경고는 승국이의 가슴에 충격적인 상념을 불러왔다.

자연의 변태와 기후, 기온에 대한 서인식의 판단은 언제나 일기예보처럼 들어맞군해서 그의 말을 들으니 승국이는 쏘아져내리는 눈사태며 미친듯이 광란을 부리는 봄장마를 보는것 같았다. 그중에서도 여직 자기가 맡고있던 작업반토장에 쌓인 통나무가 걱정되었다. 그 통나무가 호수에 말려들기만 한다면 입는 피해가 작년 장마정도의것이 아닐것이였다. 우선 100미터다리를 칠것이고 다음다음 내려가며 생산에 막심한 손해를 줄것이였다.

아마 숲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봄장마라는 말에 별로 흥미가 없을테지만 조국땅 서북단에 사는 숲사람들은 첫봄이 따듬거리기 시작하는 3월초순부터 줄창 이야기의 화제로 입에 담는 말이 봄철장마이다.

평야지대에서는 눈석이라면 자연이 주는 오락처럼 여기며 사출장화나 신고 즐거운 마음으로 봄맞이를 할테지만 숲의 눈석이는 봄을 잉태하는 자연의 어마어마한 변태현상이여서 그 광란적인 사변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여지는것이였다.

집채같은 얼음장이며 산속에 쓸모없이 누워있던 진대목들이 물결에 말려들어 미옥을 부릴 때면 숲사람들은 자연의 심술궂은 횡포와 힘겨운 시험을 해야 한다.

봄장마는 겨울을 이겨낸 숲사람들과 물려가는 겨울간의 마지막 대결과도 같은, 말하자면 숲사람들의 의지와 용맹을 시위하는 시련의 무대이기도 했다.

올해는 전에없이 눈이 많이 내려 숲속에 숨이 불처럼 두툼히 무진데다 골짜기마다에 버금이 난 얼음장들이 틀고앉아있어 봄장마가 더 무섭게 예감되었다.

그리고보면 서인식아바이가 여직 봄장마를 두고 생각을 몰아온것이 분명했다.

승국이는 서인식아바이의 이 속내를 알고싶어하는 참을수 없었다.

《소장아바이 어떻게습니까?》

승국이는 여직 입에 올랐던 버릇대로 서인식을 소장이라 불렀다.

《별로 땅김이 훈훈한게 일이 날것 같지 않습니까?》

승국이는 일이라는 말에 박력을 주어 말하고는 그의 대답을 초조히 기다렸다.

《내 그 소리요. 봄장마가 당금 떨어질것 같소.》

이렇게 말하는 서인식아바이의 음조에는 승국이의 생각을 더 깊이 몰아가는 동감의 표시가 함함이 배여있었다.

잠시 얼굴색을 바꾸어 화색을 띤 서인식이는 승국이를 던지시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부터 이 백수림의 작업소장은 승국동무요. 난 작업소 교관이구. 알겠소?》

하고 힘주어 말하고나서 쪼각난 가지사이로 흐린 하늘을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살피고있었다.

봄장마가 눈섭밑에 다달은 이 시각 서인식이는 작업소장이 된 승국이를 크게 믿는것이였다. 그래서 승국이의 가슴은 더 급히 뛰놀았다.

높은 나무가지우에서 산수피 한마리가 화려한 꼬리를 뺏뺏이 세우고 날아내리며 애처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작은 산짐승의 울음소리라기보다 자연의 변태현상을 선고하는 비명소리여서 불안한 선물과 같이 마음을 휘저었다.

어딘가 초간히 떨어진곳에서 숲사람들이 《기상대》라고 일러오는 짝쥐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간간이 울렸다. 보지 않아도 짝쥐는 분주히 내다말리운 것을 제굴로 물어들일것이였다.

사색으로 좁혀진 서인식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승국이는 찌직 코김을 다물아쉬며 봄장마에 대처할 방책을 모색하고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24년간이나 해해년년 계획을 해오던 백수림이 이 승국이 앉자마자 눈사태처럼 밀려내리는게 아닌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것 같이 뛴뛰였다.

하건만 서인식이는 급한 기색이 없이 묵묵히 걸음발을 바꿀뿐이였다. 다만 이따금 하늘의 변화현상에 얼굴에 담았던 기색을 바꿀뿐이였다.

서인식으로 말하면 일에 근면하고 생활에 성실한 일군이였다. 통나무생산을 한개 작업소의것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조국이 창조하는 재부의 한부분으로 여겼다. 그러길래 매사에 원칙과 요구성이 높았다. 이런 소장이 오늘 승국이에게 백수림이라는 조국의 숲의 한부분을 맡기게 된다.

승국이는 너무나도 일찌기 이런 일이 차례진것이 무거웠다. 지기가 좀 더 오록을 썼더라면 서인식아바이가 오늘처럼 늙지 않았을것만 같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승국이의 이런 자책의 회역을 서인식아바이가 조용히 흔들어깨웠다.

《아무래도 비만 내리면 락자없이 큰일이 날것 같소.》

근심이 다분히 배인 서인식의 이 말은

(네가 작업소장을 꽤 해낼수 있겠나 보자.) 하

고 승국이 가슴에 저울추를 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인식이의 안정 흐린 두눈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홍수가 왈칵 치밀어올랐다. 정식 사업인제도 받기전에 된경을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차게 울리는 가슴의 진동을 멈출길 없었다.

그렇다고 봄장마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횡포 속에 전 소장을 떠밀어넣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수도 없는 일이다.

하늘에서 퇴성이 터졌다. 붉은 뱀같은 번개불이 눈뿌리를 빼갈듯 눈덕을 내리치며 번쩍거렸다. 속을 더 바짝 조이는것이 자기가 작업반장을 하던 4호지토장이었다. 그곳에는 상반년계획을 하느라 끌어낸 300여립방의 통나무가 쌓여있었다. 이것이면 작업소 반나절 생산량이 되는것이다. 이 나무를 공으로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더럭 겁부터 났다.

작업소장이 된 첫걸음앞에 놓인 장애는 너무나 힘부치는 높고 큰것이었다.

《우르릉!》

퇴성은 승국이의 마음을 더 조이였다. 하늘에서는 소낙비를 실은 무거운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위압하며 배회하고있었다. 우우- 하늘에 비질하듯 숲이 일시에 휘여들며 찬기를 몰아왔다. 모든 징후는 비발이 머리우에 박두했음을 선언하고있었다. 새들이 나무잎처럼 바람에 날리다 수풀속으로 돌덩이 떨어지듯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더운 기온과 우에서 내리누르는 찬기운이 부딪쳐 급격한 기압차이를 일으키며 안개를 낳았다.

승국이는 마음의 용단을 내렸다.

《서아바이, 내 4호지토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300립방의 통나무가 있습니다.》

급하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언제나 말을 채 하지 않고 속에 남겨두는 버릇이 있는 승국이의 가슴속에서는 한말보다 남겨둔 생각이 더 많았다.

(생산, 작업소장이 통나무를 내놓고 무엇에 필요한 사람이겠는가. 홍수에 통나무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욕심이 속에서 불뚝거렸다.

서인식은 대답이 없었다. 여직 오랜 생활을 통하여 승국이 속내를 꿰뚫고있는 그가 얼굴에 더 검은빛을 담을뿐이었다.

승국이는 더 이려고저리고 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투박한 발걸음은 벌써 4호지로 달리고있었다. 이 순간 승국이의 가슴에 초점 잡힌 생각, 그것은 생산, 통나무뿐이었다.

《여보게, 서제.》

무거워진 대기를 가르는 서인식아바이의 석심

한 목소리가 승국이의 발걸을 잡았다. 둘은 4호지로 가는 구룡다리 첫지점에서 마주섰다.

《소장이 100미터다리로 가라구. 게가 우리 작업소의 대목일세, 생명선이야. 객차가 오후 4시경에야 다리목에 와닿을걸세. 민네, 명심하라구.》

이렇게 단기운으로 마디마디빚어올린 서인식은 승국이가 걸던 4호지쪽으로 걸음을 놓는것이였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의 걸음은 너무나도 단호하였다. 마치 목표를 향하여 걷는 병사의 걸음처럼.

승국이는 선자리에 굳어졌다. 자신의 립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순간이였다. 소장의 사업을 며칠후에 인계하자던 아바이가 갑자기 소장의 위치에다 자기를 세우려는 그 뜻이 스스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바이가 온 작업소 골안의 물이 쏠리는 다리목으로 자기를 보내는것은 마치 새 소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시험이라도 해보려는듯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100미터다리로 가야 한다. 그리하여 어제날에 생산계획을 미진하여 총화회의장에서 밀려나갔던 대답과 함께 오늘의 시험에 합격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 소장앞에 취해야 할 나의 임무이다.) 이것은 생산문제뿐만이 아닌 인간이 한 인간에게 자기 속을 보여주는 사람 호상간의 문제, 믿음과 신임에 기초한 중대한 사업이기도 하였다.

숲은 그 무슨 하소연이 그리도 많은지 진정할 줄 모르고 설레였다.

서인식아바이는 멀리 산기슭으로 사라지고있었다.

승국이는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이때 굵은 비방울이 지상까지 달리는 경쟁을 한듯 내리쳤다. 승국이의 걸음은 빨랐다. 벌써 개울에서는 시꺼먼 골개수가 자락을 넓히며 소리를 높이고있었다. 어디선가 가까운곳에서 눈사태가 이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려왔다. 금방 어느 골짜기가 쓸어내릴지 모르는 긴장한 순간이였다.

창살같은 비발이 허공중에 흰발을 그리였다. 숲이 뿌리채 뽑힐듯 바람의 희롱에 몸부림쳤다. 물소리는 기세를 올리며 귀청을 쭈시고들었다.

승국이가 100미터다리에 다달았을 때였다. 작업소 사무원들과 몇몇 로인들이 립철용 소차를 물고와 방금 일판을 펴는 때였다.

《아니 이게 승국반장이 아닌가, 어서 오라구.》

둘두지 방틀에 올라서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을 하며 일을 갖추던 태을수로인이 승국이를 알아보고 무등 반가와했다.

《소장아바인 안왔소?》

저쪽 교각밑에서 작업소통계원 봉육이가 목소리를 뽑았다. 승국이가 4호지로 갔다고 대답하자 《소장아바이가 어째 여기 일을 두고 4호지로 갔소?》

하고 의심과 불안을 담은 목소리가 되올렸다. 그 말은 이상하게 승국이의 가슴을 쿵 쳤다.

마치 이곳 사람들은 소장만이 이 다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듯하였다.

승국은 이 사람들앞에서 자기도 서인식아바이 못지않게 다리를 지켜낼수 있는 일꾼이라는것을 꼭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심이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았다.

그는 팔을 부르짖고 나섰다.

비는 더 소란스럽게 내렸고 물소리는 점점 험해갔다. 승국이는 생각해보았다. 큰물피해를 막으면 교각앞에 짜놓은 4각돌두지앞에 3각돌두지를 한개 더 세워야 했다. 그래야 떠내려오는 얼음과 통나무를 막아낼수 있었다.

승국이의 3각돌두지안은 절대적인 찬성을 받았다. 승국이가 3각돌두지방틀을 올리자 모두 돌을 날라다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다. 마을쪽으로 이어진 철길을 타고 쌍둥이어머니가 큰 가슴앞으로 번갈아 두주먹을 흔들어대며 달려오고있었다. 늘 자기 집에서 백수림의 가수가 나지 않나 보라고 아들딸 쌍둥이 자랑을 하는 아주머니였다.

그뒤로 들품이 이어진 마을사람들의 행렬이 보였다.

《내인들이 뭘다... 여기 승국반장이 와있는데.》

울수로인이 쌍둥이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였다.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승국이가 작업소장이 된것을 모르고있었다. 오히려 이 순간 승국에게는 그것이 더 편했다.

3각돌두지는 시시각각으로 높아갔다. 울수로인이며 쌍둥이어머니는 산판일에 썰썰나는 승국이가 작업소장이 없는 새에 100미터다리에 나타난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물결이 험해졌다. 너인들은 모두 돌두지에서 밀리워 다리우로 올라갔다. 돌두지에 돌채우는 소리, 무엇이 떠내려온다고 짹짹 고아대는 너인들의 목소리, 사두정을 박아대는 둔탁한 마치질소리, 광란하는 물결, 씹없이 지뢰가 터지듯 팡팡 솟구쳐오르는 물갈기... 어마어마한 봄장마였다.

승국이는 수세가 험해질수록 4호지토장의 통나무생각이 깊어졌다. 토장좌우팔짜기로 두갈래의 물줄기가 흐르고있는데 그것이 토장으로 흘러든다면 서인식아바이의 힘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산판일을 다 제 한가슴에 안지 못하는것이 원스러웠다. 일생의 폭풍같은 시기에 사는 청년으로 무슨 일이든 못하랴 하는 힘이 불끈 불끈 솟았다.

《나무 내려온다.》

어느새 나왔는지 백수고등중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왁작 고아대였다. 아닌게아니라 큼직한 진대나무가 등깃거리며 방금 짜놓은 3각돌두지앞으로 다가오고있었다.

갈구리가 달린 장대를 거머쥔 승국이는 첫 장애물과 힘내기를 걸어보고싶었다. 승국이가 허공중에 들었던 장대를 내리치자

《잡았다》하는 환성이 분수처럼 터졌다. 승국이는 진대목을 힘껏 끌어당겨 교각사이로 쓸어넣었다. 그 큰 진대목도 승국이 갈구리에 걸려 코궤운 송아지처럼 꼼쩍을 못했다.

《여보게, 승국반장, 아무래도 한돌기 더 올려야겠네.》

울수로인이 3각돌두지를 가리키며 걱정을 했다. 하나 로인은 험해진 물결앞에 어찌는수가 있느냐는듯 찻찻 입을 다셨다.

작업소 생명선을 지키는 일에 무엇을 가리랴! 승국이는 허리에 바줄을 매고 사뭇내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통나무방틀채를 어깨에 메었다.

《나오라, 나와.》

다리우에서 로인들과 너인들의 목소리가 고래고래 울렸다. 하나 승국이 나올 기세가 아니자 모두 와 달라붙어 승국이가 한돌기 더 올린 두지에 돌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불길처럼 널름거리는 검붉은 물결, 움썰거리며 육박해오는 얼음장, 깃쳐오르는 찬공기, 보기만해도 가슴이 싸늘하였다.

승국이 한쪽 방틀을 더 올리려 들어서려 했으나 허리에 맨 안전바줄을 놓아주지 않아 들어설수 없었다. 그러나 한쪽 방틀을 더 올리여야만 했다.

승국이는 다리우에 늘인 비상연락줄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자연의 피해로 다리가 파괴되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다리옆으로 쇠바줄을 늘였던것이였다.

허리에 맨 바줄을 다시한번 힘주어 맨 승국이는 쇠바줄을 타고나갔다. 험한 물결우에 꺼꾸로 드렁드렁 드리워나가는 승국이를 보며 너인들이 끝끝 혀를 찼다. 승국이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기색들이였다. 학생들이 혁명가요를 합창했다.

승국이가 바줄을 드리워 통나무방틀을 들어올리자 와 환성이 터졌다. 돌이 중심화력구역에 떨어

어지는 포탄처럼 3각돌두지에 떨어졌다.

이런 때였다. 《비켜라》하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승국이 쇠바줄에 매달려 물결을 내려다보니 뻗뻗이 일어난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내려오고 있었다. 압축공기가 터진 듯한 요란한 소리가 골짜기를 휩쌌다. 봄장마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른 것이었다.

승국이는 부리나케 바줄에서 내려 다시 방금 짜놓은 3각돌두지앞에 번지르고 섰다.

《거짓바라-!》

다리우에서 고향소리가 합창으로 울렸다. 수십 킬방이나 될 얼음장이 제우에 서있던 통나무들을 그대로 품에 안은채 움쉴움쉴 다가오고있었다. 승국이 장대가 물 한복판으로 날아갔다. 철썩 장대가 떨어지자 얼음장에 박힌 나무에 쇠갈구리가 단단히 박혔다.

(생명선을 침해하러구?! ... 어디 이 승국이 숨씨를 맞췄 보아라.)

승국이는 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장대를 힘껏 끌어당겼다. 몇사람의 손이 승국이 장대를 잡았다.

《영차, 영차.》 보듬소리가 울렸다. 집채같은 얼음장이 좁처럼 수그러들려 하지 않았다. 을수로 인은 앉았다섰다 진정치 못하며 《당겨라, 당겨.》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곰쩍 안할것 같던 얼음장이 통나무를 품은채 뺨그르 돌더니 다리밑으로 설거져내렸다.

《야.》

환성이 축포 터지듯하였다. 이젠 크고작은것을 가려볼새없이 강전폭을 덮고 나무뿌리, 진대목, 얼음장들이 쓸어내렸다. 기상학적으로 말하면 10바르라고 해야 할 물결이었다.

승국이는 그 혼탕속에서도 4호지통나무가 떠내려오지 않나 심경을 썼다. 부모가 백년 가도 제자식의 용모를 기억하듯 승국이는 자기가 생산한 통나무를 눈결에도 알수 있었다.

《쿵!》

돌두지에서 둔중한 소리가 울렸다. 고래등때기처럼 시꺼먼 진대목이 물속에 숨어 내려오다 3각돌두지를 친 것이었다. 진대목이 가로 걸리자 장애물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다.

승국이는 진대목에 쇠갈구리를 박았으나 쌓인 장애물이 너무 많아 움직여주질 않았다. 승국이 얼굴에서는 땀물, 비물이 섞여 철철 흘러내렸다.

이제 조금만 더 이대로 놓아둔다면 3각돌두지

가 위험했다. 승국이는 위험을 무릎쓰고 방틀을 타고 나가 진대목의 초리에 갈구리를 걸었다.

이때 몇개의 장대가 물위에 떨어져 진대목에 갈구리를 박았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것인가를 볼 계체가 못되었다.

《영차 영차.》 안간힘을 쓰는 합창소리가 물결위에 울려퍼졌다.

3각돌두지에 걸렸던 진대목이 장대에 끌려 그 많은 오물을 허리에 안은채 다리밑으로 떠내려갔다.

승국이는 자기옆에 다가선 사람을 가려보는 순간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작업반의 프락트로운전수 철진이었다. 안해가 친정에 첫해산을 하러 갔다고 현장합숙에 올라와있는 친구였다. 그 청년뒤로 상차공 두명이 더 보였다.

승국이는 눈앞에서 병긋 불꽃이 일었다. 4호지 토장을 버리고 온것을 보면 필경 그곳 일이 잘못 된것 같았다.

《정신들있소? 4호지통나무가 어떻게 됐소?》

승국이의 목소리는 무거운 마치로 굵은 통나무를 때리듯 투박하고 거칠었다.

《소장아바이가 있습니다. 토장우 샘골물끓에 통나무바자를 치고 물을 토장우로 예돌려대는데 굉장합니다.》

《아니 그럼 토장이 더 위험하지 않소.》

승국이는 덮칠듯 말을 재촉했다.

《토장일이 좀 더 어려워도 100미터다리로 쏠리는 물이 줄어드니 좋다는겁니다.》

《뭘라구? 그래 소장아바이 어깨에 토장을 지워놓고 개바닥구경을 왔단말이요.》

승국이는 기상이 퍼래서 그들을 쏘아보았다.

《객차 올 시간이 되어오는데 100미터다리에 위험이 생기면 안된다고 우릴 떠밀어보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승국이는 그만 손맥이 탁 풀리었다. 객차야 오늘 못오면 래일 올수도 있는 일이고 그것이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알쥔한 생산로력을 때여보낸단말인가. 한 인간에 대한 믿음의 기둥이 무너져내리고있었다.

(어떻게 하루사이에 생산에 대한 생각을 몸에서 뗄수 있겠는가. 과연 그의 심혼에 몇가지가 있었던 말인가. 그럼 그때 나를 산판으로 돌려세운것도...)

서인식아바이의 마음을 가늠해보는 승국의 입은 소래를 씹은듯 쓰거웠다.

(어쩌면 사람의 맘세가 그렇게 달라질수 있겠

는가, 어제까지 생산밖에 모르던 그가 오늘은 지엽적인 생각을 하니 책임을 벗었다고 생산이란 말까지 몸에서 털어버리자는건가...)

그럴수 없었다. 서인식아바인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새 임무를 받은 승국이 일이 부칠가봐 자신의 수고로 승국이 힘을 덜어주자는 것인가? 서인식아바이는 승국을 100미터다리로 보내놓고도 믿지 못하는것 같았다.

《올라가오. 동무넌 생산을 잊었소?》

하지만 철진이가 대답도 하기전에 다리우에서 독촉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여보게들, 뭘하나!》

승국이 장대도 내밀기전에 얼음장이 3각돌두지를 치받았다. 돌두지가 기울어지며 물에 덮이고 있었다. 승국이는 모두 다리우로 올려보내고 자기만 이 마지막돌두지에 뽐내셨다. 또 한개의 얼음장이 4각돌두지를 《쿵》받았다. 4각돌두지가 ㄱ자형태로부터 -자형태로 되었다.

승국이는 장대로 든장질을 하여 겹질기게 들어 붙은 얼음장을 떼내었다. 산기슭에서 쿵쾅거리는 악기소리가 울렸다.

다리우에서는 승국이 올라오라고 바줄을 내리 드리웠다. 4각돌두지로 물이 넘어서러 널림거릴 때 승국이는 바줄을 탔다. 이제는 4각돌두지를 없애는것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었다. 승국이가 바줄에 매달리며 쥘쥘하게 샷대질을 한 그 찰나에 승국이 서있던 돌두지마저 넘어지고말았다. 이젠 물결이 기복이 줄어들었다. 물결우에 잔 푸성귀들이 떠내려올뿐 중량물은 더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서인식이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마침내 생명선을 지켰다는 기쁨이 가슴속에서 너울쳤다.

《반장동무! 물이! 물이!》

다리우 철길에 넘적 었드려 물결을 살피던 철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귀바퀴우로 두손을 부쩍 쳐들었다.

《물이 준다. 봄장마를 이겼다.》

누구에게라없이 온 우주에 대고 고하는 장쾌한 탄성이였다. 철진이가 산기슭에 대고 모자를 벗어 흔들자 《와》합성이 터지고 환영곡이 울렸고 출판이 벌어졌다.

그제야 승국이는 이미 다리목에 객차가 와 서 있는것을 보았다. 그리고보면 시간이 퍼그나 지난것이였다. 승국이는 물이 순간순간 폭폭 줄고 있는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였다.

모두가 다리우에 네모난 큰 체구를 세우고 거인처럼 서있는 승국이란테로 시선을 뚫고있었다.

이 순간 승국이는 4호지로 달려가꿈은 생각이

육 치밀어올랐다. 그대로 쌓여있는 토장의 나무를 제눈으로 확인하고싶었다.

순간이 다르게 물이 오금을 꺾었다. 이젠 장마엔 개의치 않는다는듯 객차쪽에서 왁작대는 웃음소리가 장단치듯하였다.

산기슭에 하얗게 늘어섰던 사람들이 객차쪽에서 일어난 새로운 화재거리에 흥미가 동해났던지 그리로 와르르 쓸어가고있었다.

객차쪽에 갔던 을수로인이 얼굴에 기쁨을 빗발처럼 내뿜으며 승국이앞으로 다가왔다.

《여보게 승국반장, 철진이 색시가 달같이 환한 아들을 나 업고왔네그려. 그리구 도에 예술경연 갔던 우리 백수림애들이 1등을 하구 상을 타가지고 왔네. 경살세. 백수림의경살세.》

을수로인은 젊음이 되돌아온듯 활력에 넘쳐 말을 번졌다.

객차쪽에서 울리는 성대가 높은 쌍둥이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별로 귀맛을 돋구었다.

《이사람 철진이, 이젠 아애비가 뻘다구 점잔을 빼나? 어서 가보라구.》

을수로인이 승국이옆에 서있는 철진이의 등을 철썩 같겼다.

철진이는 방금 핀 꽃처럼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히물거리며 객차쪽으로 뛰어갔다.

《모두 기다리네, 가보자구.》

승국에게 이렇게 말한 을수로인이 앞장서 걸었다. 승국이는 김발이 솟구치는 얼굴을 넓은 손바닥으로 뽐뽐 훑치며 을수로인의 뒤를 따랐다.

가는 채구명을 새어나오듯 비말이 되어 날리던 비가 멎고 안개가 폭 끼였다.

객차결에 둘러섰던 사람들의 시선이 승국이란테로 모여들었다. 학생들의 번쩍거리는 악대가 환영곡을 불어댔다.

《글쎄 승국반장이 아니였다라면 벌목공감을 나 업고 오는 철진이 색시가 한지에 나앉아 님생각을 할번했다이.》

경마군처럼 흥이 나서 승국이의 앞장에서 걷던 을수로인이 말을 길게 늘어붙이자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어디 그뿐인가요? 승국반장이 아니였다라면 노래부르러 갔던 우리 백수림애들이 울면서 울번하진 않구요?!》

쌍둥이어머니가 도예술소조경연에 갔다오는 오누이 쌍둥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입담을 피우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좋다고 기악을 울리고 환성을 터뜨렸다.

어느새 객차에 올라 안해의 품에 안긴 아들을 들여다보고난 철진이가 웃음주머니를 흔들거리며

승국이앞으로 다가왔다.

《반장동무,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겠다고 전보가 오긴 했지만 이런 날씨에 우뚝우뚝 올줄이야...》

철진의 가식 없는 인사말속에 부처간의 살뜰한 의리가 풍기였다.

승국이는 백수림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이들과 함께라면 두려울것이 없을 것 같았다.

물이 줄어들자 사람들이 마을로 향하였다. 이들은 흥뜬 마음을 안고 끝없이 걷고싶었던지 그 누구도 객대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다만 올수로 인을 비롯한 몇명의 로인들과 마을아낙네들의 익살에 못이겨 철진이부부가 객대에 올랐을뿐이었다.

객차가 자리를 뜨자 사람들의 행렬이 마을쪽으로 움직였다. 앞에서는 학생들의 악대가 승전고처럼 기세를 돋구었고 사람들속에서는 말소리, 웃음소리가 진한 향수처럼 싸고돌았다.

승국이는 다리목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작업소장이 된후 첫 승리를 이룬곳이었다. 백수림사람들과 더 깊어지고 정들인 잊지 못할 다리였다.

이때 다리위로 건너오는 서인식아바이의 체소한 모습이 보였다. 승국이의 온몸에서는 뜨거운 것이 해살처럼 피어올랐다.

승국이는 이 다리를 어떻게 지켜냈으며 작업소의 생명선을 자기가 어떻게 고수하였는가를 서인식에게 말없이 보이고싶었다. 그래서 맞받아 다가가던 승국은 서인식아바이앞에서 굳어졌다.

온통 흠발림이 되어 볼품없이 후줄근해진 옷, 조글조글한 눈덕우에 도글도글한 땀방울을 엮은 피곤이 실린 초라한 얼굴, 깊은 뜻이 담긴 눈동자는 바로 언젠가 그를 회의장에서 내보내던 그때처럼 번쩍이고있었다.

《도에 갔던 우리 애들이 왔소? 철진이 쳐두 오구?》

서인식은 문득 이렇게 물었다. 통나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하는 서인식으로 인앞에서 승국은 미처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얼굴에 대답하였다.

《왔습시다. 우리 백수림애들이 1등을 하구 철진동무 안해는 생남을 했습니다.》

승국은 틀림없이 다리를 지켜낸 자기에 대하여 아바이가 치하할 말을 미처 골라내지 못하여 이렇게 허두를 뎌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고했네. 승국소장, 정말 큰일을 했네. 우릴 믿었길래 이 장마속에서도 백수림사람들이 길을

떠난것이구 제시간에 제품으로 돌아올수 있은게 아닌가.》

승국은 그만 목구멍이 껍 막혀 숨소리마저 거세차게 울릴뿐이었다. 승국은 이제야 자기를 다리로 보낸 서인식아바이의 심혼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승국이가 생각한 생산때문이라 아니라 작업소장이 무엇을 두고 고심하고 마음을 써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가르쳐주려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인식아바이가 승국이 가슴에 선참으로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첫 인계였다.

서인식아바이는 무슨 생각을 불러오는지 환희에 넘쳐 다리목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승국이는 벽차오르는 심장의 박동을 바이 주체할길 없었다. 더없이 귀중한 순간,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생활의 교훈의 순간이었다.

《생각나오? 10년전에 생산을 미진해 쫓겨나던 일이...》 서인식은 어딘가 먼 하늘끝에서 생각을 불러오듯 술머리를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식에게 매를 안기는 부모의 심정은 자식에 비하여 몇곱절이나 더 아픈 법이요. 자식은 살로 느끼지만 부모는 뼈로 느끼는 법이구던.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 때로 그런 수법도 써보는거요. 나는 그때 승국이를 조국앞에 자기 목을 지킬줄 아는 인간으로 키우고 싶었던거요. 이 땅우에 자기 발자국을 찍어가는 인간,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람의 정을 안은 오늘의 승국이를 보고싶었던거요. 아! 좋은 봄이요. 이야말로 백수림의 봄시위요!》

승국이는 체내의 모든것이 용암처럼 뜨거워져 깃쳐오름을 전신으로 느끼고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왔다. 승국이는 그 눈물로 마음속을 정갈히 가져내고싶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안은 일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안은 사람, 그가 바로 백수림의 전 작업소장 서인식아바이였다.

승국이는 서인식아바이의 가슴에 고인 마음의 보물이 자기 가슴속으로 빛발처움을 느끼였다. 그 빛발을 안고 생애를 누벼가고싶었다.

쌍둥이어머니가 달려오고 마을사람들이 달려와 서인식아바이와 승국이를 둘러쌌다. 쌍둥이어머니가 신이 나서 승국이가 다리를 지켜내던 이야기를 퍼내기 시작했다...

행렬은 다시 마을을 향하여 흐르기 시작했다. 악기소리, 웃음소리가 백수림이 풍기는 향기와 손잡고 즐거이 머리우에 떠돌고있었다.

백리향의 향긋한 향취가 훈훈한 바람에 실려와 물씬 풍기였다.

오늘저녁이면 백수림의 새 작업소장에 대한 이야기로 온 마을이 잠들지 못할것이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

한중모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퇴폐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부르조아문학을 광범히 류포시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방증상하고 각종 반동사상과 부패한 생활양식을 고취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리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 저작선집》, 5권, 제2판, 458페이지)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군사파쇼통치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하는것과 함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문화적침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의 한 고리이고 놈들이 침투류포시키는 부르조아문화는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데서 막대한 해독적작용을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문학예술을 문화적침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동원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동적부르조아문학이 큰물진 때의 흙탕물처럼 범람하여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는데 작용하고있는것은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문화적침투의 결과이다.

1

모더니즘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류포되고있는 반동적부르조아문학 특히 부르조아형식주의시문학의 지배적인 사조를 이루고있다.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형식주의를 일삼는것은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부르조아문학의 주요한 경향이며 특징이다.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

아문학은 공산주의를 비방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면서도 많은 경우 문학의 사상성을 부인하며 그 사회적기능을 반대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아문학가들이 문학이 사람들에게 선진사상을 넣어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남조선의 부르조아 작가, 시인들과 문예비평가들은 문학작품이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사상을 표현하며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부인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서 그 리면에서는 인간을 모독하고 생활을 외곡하며 반동적인 사상과 부패타락한 생활양식을 설교하고있다.

모더니즘시문학은 남조선에 널리 퍼져있는 반동적인 부르조아형식주의문학의 주되는 사조의 하나로서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아문학이 얼마나 퇴폐적이고 파국적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반적으로 문예사조로서의 모더니즘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는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나타난 여러가지 부르조아형식주의 문예사조를 통털어 이르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는데 거기에는 상징주의, 인상주의, 사상주의(이미지즘), 다다이즘, 주지주의, 초현실주의, 쉬루테알리즘을 비롯한 잡다한 문학조류와 류파가 포괄되어있다. 이로부터 모더니즘은 자기를 특징짓는 고유한 사상미학적경향이나 단일한 묘사수법을 가지고있지 않으며 따라서 모더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도 서로 같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문예사조로서의 모더니즘에 대하여 말할 때 주로 그것을 시문학령역에 한정시켜 사용하고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에서 주도적인 조류를 이루는것은 주지주의와 초현실주의이다. 남조선에서는 이밖에도 상징주의, 사상주의를 비롯한 잡다한 시문학조류와 류파가 소개선전되고 또 창작실천에 이러저러하게 영향을 미치고있으나 그것들은 독자적인 흐름을 이루지 못하고 주지주의, 초현실주의는 상징주의, 사상주의, 다다이즘 등을 바탕으로 하여 태여났고 이 문학조류들이 모두

예술지상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시론과 창작수법에 의거하고있는것만큼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

남조선에서 주지주의와 초현실주의를 주도적인 조류로 하는 모더니즘시문학이 광범히 류포되어 시문학을 퇴폐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악성병균처럼 쪼먹는 해독적작용을 하고있는것은 서방부르조아시문학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주지주의나 초현실주의나 할것없이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은 서방의 모더니즘시문학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여 퍼져나갔다.

남조선의 정아무개라는 문학가가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 시에서의 현대성이 서구시의 그것에서 크게 영양받은것만은 문학의 어느 분야와 마찬가지로》라고 한것은 남조선에서 모더니즘시문학이 대두하고 류포되는데서 서방부르조아문학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대로 말하여준다.

민족자주의식이 마비되고 서방문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아시인들은 조선의 우수한 문학전통을 이어받아 시문학을 민족적바탕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릴 대신에 서로 앞을 다투어 서방모더니즘 시인들의 시론과 작품들을 소개선전하고 모방하는데 급급함으로써 남조선땅에 서방모더니즘시의 재판을 빚어내게 하였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은 티 에쓰 엘리오토, 뽀 발레리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서방의 주지주의시문학조류이다.

시문학상의 주지주의는 랑만주의를 비롯하여 주로 감정과 정서에 치우치는 문학적경향에 대치하여 《지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구호를 들고 제1차세계대전후에 영국, 프랑스 등에서 생겨나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들에 퍼졌으며 아시아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였다. 일제통치시기 조선모더니즘시문학의 대표적시인의 하나인 김기림의 《기상도》를 비롯한 시작품들과 비평도 주지주의적경향을 띤것이였다.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아문학가들은 엘리오토를 《20세기 전반기 세계시단의 한 엄연한 좌표》요, 《상징과 신앙의 위대한 시인》이요 뭐요 하고 높이 추켜올리면서 그의 시론과 시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고 그것을 옮겨놓는데 골몰하였다.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가들은 또한 발레리, 스펜더 등 주지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널리 소개선전하여왔다.

남조선의 한 부르조아시인이 남조선에서 서방

나라들의 주지주의시문학의 영향을 받아 모더니즘시들이 《지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가는것과 관련하여 《시의 지성 그것이 그 립각점을 전연히 서구에다가만 두고 전연 이 나라나 동양의 정신적전통이나 풍토는 등한에 붙이고》있다고 한것은 남조선의 주지주의적경향의 모더니즘시문학이 전적으로 서구주지주의문학에 바탕을두고 생겨나서 퍼져나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에서 모더니즘시문학이 대두하여 류포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 또하나의 문학조류는 서방의 초현실주의문학이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주의와 같은 주관적관념론 《리론》에 기초하여 문학창작에서 현실생활의 반영을 반대하고 리성과 경험의 역할을 부인하며 형상의 생활적론리를 무시하는 부르조아모더니즘시문학의 주요조류의 하나이다.

초현실주의는 그 《리론적지도자》라고 하는 앙드레 브르통이 1920년대중엽 파리에서 첫 《초현실주의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한무렵부터 1930년대초까지 퍼지다가 쇠퇴의 길에 들어섰으나 제2차세계대전이후시기에 브르통이 다시 공명자,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재출발하게 됨으로써 전후 모더니즘문학의 주요조류의 하나로써 널리 전파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초현실주의시문학은 그 《사상리론적기초》를 이루는 프로이드주의의 소개선전과 밀접히 결부되어 류포되어왔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무의식》(잠재의식)이며 그 주요내용을 이루는것을 《리비도》(성적충동)이라고 설교하는 주관관념론적심리학설이다. 프로이드주의는 이러한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예술가를 《현실을 등지고있는 인간》으로 보며 창작의 원천을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프로이드주의미학은 예술가의 창조적환상의 근원은 성적욕망에 있으며 문학의 창작과정이란 《무의식》에 대한 의식의 통제가 약화된 결과로써 그것은 마치 꿈을 꾸다거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것과 같은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프로이드주의미학은 그 반동적본질과 퇴폐적인 성격으로 하여 썩어빠진 서방부르조아 학자들과 문학예술인들의 환심을 사고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만들고 문학예술을 부패와 타락의 시궁창속으로 몰아넣는데 막대한 해독적인 작용을 하였다.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 문예비평가들과 작가, 시인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주의미학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떠벌이고 그것을 문학창작과 작품분석에 적용하는데 미쳐날뛰었다.

남조선의 한 필자가 벌써 1960년대초에 《해방 후 특히 6.25이후 외국 그중에서도 프로이드의 철학이 미국처럼 모든 과학과 문화부문에 가장 많이 침투해있는 나라와의 문화적교류가 심해짐》에 따라 남조선에 《프로이드나 정신분석학의 홍수가 닥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어떤 잡지에 쓴것은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에 의하여 프로이트주의가 남조선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프로이트주의가 광범히 소개선전되고 프로이트주의미학관을 바탕으로 한 서방의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문학작품들이 수입보급되는 가운데 남조선의 부르조아시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의식》의 세계에 파고들어 새로운 《이미지》(심상)를 창조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에서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더욱 세력을 뻗치게 되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시문학에서 초현실주의의 경향이 세력을 뻗치고 그것이 모더니즘의 주요조류의 하나로 되게 하는데서 해방전 모더니즘시문학의 대표적시인의 하나였던 리상의 시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해방전에 서방의 모더니즘문학의 영향을 받아 창작에서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갔던 리상의 작품들은 부르조아 모더니즘문학의 퇴폐성과 부패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리상의 시의 부패성과 파국상은 시《오감도》만 보아도 알고남음이 있다.

《오감도》의 《시 제2호》는 《나의아버지가나의결에서조올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와 같이 미치광이의 녀두리와 같은것을 띄어쓰기와 점찍기도 없이 련결해나가고있다. 또 《시 제4호》에서는 1, 2, 3, 4, 5... 등 아라비아수자를 꺼꾸로 뒤집어써서 배열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시 제5호》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는 도면까지 그려넣는 광태를 부리고있다.

리상의 시가 발표되었을 당시 그것을 《개수작》, 《미친놈의 잠꼬대》라고 규탄하는 투서들이 꼬리를 물고 신문사에 날아들었다는것은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오감도》와 같은것을 시라고 볼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부르조아문인들은

리상을 시만을 위하여 평생을 산 《수도사》, 현대시의 가장 빛나는 《기수》, 그로 하여 비로소 현대시를 가질수 있게 한 《영웅》, 《귀재》 등으로 추켜올리고 그의 작품을 현대문학의 《성서》라고 떠받들고있으며 모더니즘시인 특히 젊은 시인들이 그의 창작태도와 시작법을 따르는데 급급하여왔다.

남조선에서 서방 모더니즘시문학의 영향과 김기림, 리상 등 해방전 조선모더니즘시문학의 계보를 이어받아 주지주의와 초현실주의를 주도적인 흐름으로 하는 모더니즘시문학이 머리를 추켜들고 퍼져나감으로써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은 몰락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2

남조선에서 반동적인 형식주의시문학의 지배적인 사조를 이루고있는 모더니즘시문학은 그 퇴폐성과 파국상으로 하여 문학을 부패와 몰락에로 이끌어가고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는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형식주의는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키며 내용을 형식에 복종시킴으로써 예술의 사상성을 떨어뜨릴뿐아니라 그 예술성을 손상시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66 페이지)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작품들은 그것이 주지주의적경향의것이든지, 초현실주의적경향의것이든지 또 그 어떤 다른 경향의것이든지 할것없이 형식을 내용과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며 형식을 절대화하고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문학으로써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순수한 언어의 유희로 전락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모더니즘을 들고나오는 부르조아시인들이나 문예비평가들이 주지주의와 초현실주의가 어떻고 《의미의 시》와 《의식의 시》가 어떠하며 《시각적이미지》와 《초현실적이미지》가 어떠하다느니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췌치고있지만 모더니즘시문학은 그 조류와 류파에 관계없이 형식주의문학으로서의 반동적본질, 퇴폐성과 파국상에 있어서 공통된다.

사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인들은 제가끔 그 무슨 《새로운것》을 들고나오는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들이 지은 시들은 예술지상주의적인 미학견해와 형식주의적인 창작수법의 공통성으로 하여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아서 서로 분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은 무엇보다도 현실생활의 반영과 사

상의 전달을 반대하고 그 사회적기능을 부인하는 데서 나타나고있다.

엘리오토는 《예술작품은 그자체이외에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발레리는 《진정한 예술은 순수하고 그자체가 독립되어있으며… 그자체의 법칙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브르통은 초현실주의란 《심령의 순수한 자동현상》으로서 《리성에 의한 어떠한 감득도 받지 않고 미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일체의 관심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진술》이라고 하였다.

엘리오토와 발레리, 브르통의 이러한 미학적 관점과 견해는 《순수》문학, 예술지상주의에 대한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창작에서 작가의 사상의식, 세계관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작가의 계급적립장과 사상적관점, 사회적리상은 작품의 종자를 끌라잡는데로부터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데 이르는 창작의 전과정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 이로부터 문학작품은 당적, 계급적성격을 가지며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음의 순수한 자동현상》, 《그자체이외에 목적이 없는》 《순수하고》 《독립되어있는》 예술에 대한 브르통이나 엘리오토, 발레리 등의 설교는 창작에서 사상의식, 세계관의 역할을 부인하고 문학작품의 계급성과 당성, 인식교양적의의를 부인함으로써 문학이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 되는것을 방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가들은 서방모더니즘의 시론과 시문학의 영향을 받아 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과 정치적기능을 부인하며 이른바 무사상적인 시를 쓰는데 미쳐달뿔고있다.

남조선의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가 김아무개는 문학을 《사회개혁을 위한 방편이나 현실적투쟁의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없는자의 편에 서서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면서 《문학은 현실앞에 처음부터 아무힘도 없는것이거니와 또한 어떠한 힘과도 관계없는것이다.》라고 떠벌였다. 김아무개가 전두환역도의 극악한 군사파쇼통치로 말미암아 20 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생지옥으로 전변된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정치, 경제, 사회 각방면에 펼쳐 새로운 변환기》에 부딪혔다고 미화분식하면서 이러한 현실앞에서 《문학처럼 무력한것이 없다》고 지껄인것은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아문학가들이 떠들어대는 《순수》문학의 구호가 미제와 피뢰도당을 폭로하고 인민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진보적인 문학의 발전을 억제하며 사람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의욕을 마비시키는 퇴폐적인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은 《순수》문학의 구호밑에 인간성격과 현실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를 반대하고 성격의 사회계급적본질과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패덕과 패륜, 종교와 미신 등을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을 무기력하고 부패타락하게 만드는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모더니즘시인 오아무개가 《룡산에서》라는 시에서 《시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것은 시를 《순수한》것으로, 《무력한》것으로 보는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인들의 반동적인 미학관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오아무개의 시 《한잎의 너자》는 그의 예술지상주의적인 미학견해와 형식주의적인 창작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이다. 《한잎의 너자》라는 시의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시에 그려진 너자, 주인공 《내》가 사랑하는 너자는 사회적관계를 떠난 《순수한 너자》 즉 《너자만을 가진 너자》, 《너자 아닌것은 아무것도 안가진 너자》, 《너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너자》, 《눈물같은 너자》이다. 이 《한잎의 너자》는 이처럼 《순수한 너자》인것으로 하여 《나》에게 있어 《사랑스러운》 너자인것이며 너무 《순수》한것으로 하여 《절망적》인 그런 너자이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은 《순수》문학의 구호밑에 《순수》한 인간, 《순수》한 사람을 노래함으로써 인간성격과 인간생활을 외곡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회현실로부터 리탈시키며 그들을 무력하고 부화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오아무개의 이 시를 그가 그전에 쓴 어느 한 시에서 《계급 없는 사회》란 《력사의 종말》로서 《상상해볼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 봐야겠다》는 리유를 순전히 바람이 분다는 자연적인 동기에서 찾은 사실과 련결시켜볼 때 그의 《순수시》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물러서게 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인의 한사람인 김아무개는 시 《꿈이었던가》에서 주인공 《나》를 《죄인》으로 묘사하면서 《수억년간 죽음의 련쇄에서 악령들과 곤충들에게 시달려왔다》고 단말마적으로 절규하였다. 그의 시를 일관하고있는것은 죽음앞에서의 불안, 삶에 대한 의욕의 상실, 허무와 염세의 기분이다. 그의 시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상주의에 특징적인 시풍을 보이고있으며 거기에 일관하고있는 원죄의식과 허무주의는 주지주의나 상징주의의 영향과 련관시켜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초현실주의, 주지주의를 비롯한 남조선 모더니즘시문학의 여러 조류와 류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여있으며 그 반사실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본질에 있어서 공통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그 사상적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시는 시대정신과 선진적인 사상을 옹호 표현하여야만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들은 내용의 공허성과 허황성,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의 설교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최근에 한 필자는 《가장 좋은 시》란 《시대와 삶에 맞선 가장 높은 차원의 정신, 바로 이것임을 생각해도 좋을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시를 읽는다는것이 일종의 고통》으로 되고있는데 그것은 《가장 높은 정신으로서의 시를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썼다.

남조선의 한 문학잡지에 실린 이 글은 남조선에서 모더니즘시들이 그 사상적내용의 공허성과 퇴폐성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배척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은 형식면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조아문학자 김아무개는 시의 새로움은 내용보다도 형식에 관한 문제라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어를 전통적인 시의 어법이나 기존의 어법으로 사용치 않을 때 시에 대한 인식의 새로움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엘리오토가 시《황무지》에서 지난날의 시인의 시행을 인용하거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나란히 놓은것을 《기법상의 변혁》이라고 추켜올렸다. 이러한 설교는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을 파멸에로 이끌어가도록 부추기고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인들은 《참신한 형식》, 《세련된 기교》등의 허울좋은 미명아래 시를 짓는데서 문법과 작시법의 초보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은유를 비롯한 복잡한 비유와 암호와도 같이 애매몽롱한 상징적수법을 람용하고 논리적련관을 무시함으로써 시형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시에서 무엇을 말하려는것인지 전혀 알수 없게 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문인은 시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곳에 서있는것》이라고 전제하고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전혀 련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들을 무질서하게 라렬한 모더니즘시들을 합리화하면서 그 레로서 시《리듬》을 들었다.

김아무개의 모두 3 개 련, 6 개 행으로 된 시《리듬》은 점토로 된 조각품에 대하여 노래한것인데 《열어놓은 마음과 같은 창》, 《점토로 구운 세대의 건물은 눈섭이 없다》라는 첫 두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과 《창》, 《건물》과 《눈섭》사이에는 아무런 의미적련관도 없다. 그런데 마지막의 셋째 련에서 《아름다운 창들은 수집은 눈같이 눈동자같이 열린 빛의 틈새는》으로 시를 끝

맺었으니 사람들은 마치 미궁에 빠진감을 느끼게 된다.

리아무개의 시《구름의 테마》역시 서로 련관이 없는 사물과 관념을 억지로 결합시킴으로써 시형식을 파괴하고있을뿐아니라 시의 내용을 공허하고 무의미한것으로 만들고있다.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시는 구름을 노래하는것을 주제로 하고있지만 《상처의 껍질 넘나드는 완벽한 구름의 맨발은 이제 갈매기 나라로 가는구나》, 《이제 파도소리가 갈매기 나라에서 구름을 먹으리라》와 같이 구름과 상관이 없는 어휘들을 망탕 주어붙임으로써 정상적인 사고로써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고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에서 시형식에 대한 파괴현상은 시행을 구성하는데서 작시법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김아무개의 시《돌각담》은 그 내용이 허황할뿐 아니라 시 전편을 띄어쓰기와 점찍기도 없이 10개의 글자를 단위로 하여 시행을 만들어 련결시킴으로써 한 문장이 끝나는 마지막 글자가 다음 시행의 첫자리에 놓이게 하고 시의 운율을 완전히 거세해버리는 괴이한 현상을 빚어내고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에서 보게 되는 시형식의 파괴현상은 엘리오토를 비롯한 서방 모더니즘시인들과 리상 등 해방전 조선모더니즘시인들의 영향이 얼마나 짙게 미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상은 암호처럼 복잡하고 애매몽롱한 은유를 비롯한 각종 비유법과 상징적표현을 망탕 쓰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실례의 하나로 김아무개의 시 《있음은 듣는다》를 들수 있다.

송아무개는 이 모더니즘시인의 시에 대하여 평하면서 그의 《력사적인 공헌은 리상이후 가장 대담한 이미지와 메타포(은유)를 도입하여 리상보다 높은 문학성을 획득한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면 김아무개의 시의 대담한 《이미지》와 《메타포》란 과연 어떤것인가?

시 《있음은 듣는다》에서는 《여기는 어디인가 그녀를 처음으로 알았던 집이다》라고 한 둘째 련의 첫 문장이 시적구상의 출발점과 중심을 이루고있는데 이 《집》이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이해할수 없다. 그런데 시의 다음 련들에서 《나의 세계》, 《위로하는 거리》, 《하늘같은 해석으로 산다는곳》등 엉뚱한 표현들이 련이어 튀어나옴으로써 공간상 련관을 파탄시키고있을뿐아니라 현재와 과거, 미래의 시칭을 마구 뒤섞어 시간관념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있다.

이처럼 이른바 《이미지》가 동강나고 《메타포》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도무지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대하여 한 부르조아문학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고 부조리한듯이 보이지만 논리를 떠나 근원에 접근해가면 《눈으로 환히 보듯 존재의 본성이 확실해지고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고있다.》고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시에서 《그녀를 처음으로 알았던 집》은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너자의 태》를 말하는 한편 《가족을 형성하는 일반적의미로서의 가정》과 《인간의 공동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사회》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은 우주》를 말한다는것이다.

시 《있음은 듣는다》와 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남조선모더니즘시문학의 퇴폐성과 파국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하여 주고있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작품들은 언어사용의 규범과 작시법상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까다롭고 어려워져서 무엇을 말하려는것인지 알수가 없으며 이러한 난해성때문에 독자들로 부터 버림을 받고있다.

《새로운 어법》, 《기법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의 파국상은 외래어를 란용하고있는데서도 드러나고있다. 어떤 모더니즘시작품들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나 교장 이름을 비롯한 외래어들을 많이 쓰고있을뿐아니라 제목부터 외래어로 되어있다.

김아무개의 시 《나자로여!》는 산문으로 된 뜻이 닿지 않는 이야기를 한시행에 16자씩 토막쳐서 엮어놓았는데 6행밖에 안되는 이 짝막한 시에 다른 나라 사람과 교장 이름이 6곳이나 들어있어 마치 외국인이 쓴 다른 나라의 시를 번역하여 읽는감을 준다.

《마로니에》라는 술집에 앉아 그안의 풍경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느낌을 통하여 삶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설교하고있는 황아무개의 시 《정지된 오후에》도 역시 수많은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국적풍경을 자아내고있다.

다른 나라의 사람과 교장 이름을 비롯하여 외래어들을 많이 쓰고있는 남조선의 모더니즘시작품들은 민족적특성이 완전히 배제된 《국적 없는 지적유희》로서 미국식생활양식과 서방문화를 레찬하고 선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숭미사대주의와 서구숭배사상을 불어넣고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는 사상적수단으로 미제에게 복무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문인은 모더니즘시문학의 이러한 파국상과 관련하여 남조선시단에서 《감동의 상실, 지나친 언어질서의 파괴, 심상의 혼미, 감상의 탄주, 기록 없는 산문시》등 각가지 양상으로 《언어의 무기력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독자와의 통신을 단절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양상을 빚고있는것이다.》라고 썼다.

남조선의 모더니즘시문학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에서 퇴폐성과 파국상을 심하게 나타냄으로써 하여 날이 갈수록 란심적인 문학자들과 대중으로부터 더욱 큰 비난과 규탄, 배척과 버림을 받고있으며 갈수록 반동적본질을 더욱더 드러내고 쇠퇴의 길을 걷고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자유와 행복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야수적인 파썸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있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투쟁기세를 반영하여 진보적인 사실주의시문학이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사실주의시문학은 무엇보다도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억눌리고 짓밟혀 사는 근로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반영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폭로하고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지향, 민족통일에 대한 념원을 뚜렷하게 나타내고있는것으로 특징적이다.

어느 한 시인은 자기 시들에서 남조선의 군사파썸로동치밀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가난한 사람들 즉 말할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 란광로동자, 의지가없는 외로운 철공로동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나 어린 방직공,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날품팔이 로동자, 암흑천지에서 모든것을 빼앗긴 가난한 농민을 비롯하여 구두담기, 어부 등의 생활세계를 주제로 삼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느낌과 깨달음을 노래하고있다.

또 한 시인은 자기의 시들을 통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민족분열과 국로량단을 영구화하려고 공공연하게 획책하면서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야수적으로 란압말살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 지주, 자본가들만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과 고통만이 강요되고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남조선사회를 억압받고 천대받는 근로대중의 립장에서 폭로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표시하면서 남조선사회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길은 자기희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열릴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사실주의시문학은 시형식에서 민족고유어를 많이 쓰고 시를 알기 쉽게 만들려는 노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X X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전두환도당은 오늘 남조선에서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사조를 류포시킬뿐아니라 그것을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침투시키려고 발악하는 한편 남조선에서의 진보적문학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하는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부르조아문예조류의 퇴폐성과 파국상, 그 해독적작용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조국의 새 지도를 그리리라

황승명

벌써 그 몇번
책상을 마주하고
밤가는줄 모르누나
숙제장에 보풀이 일도록
다시 그리는 지도

점 하나
선 하나 틀릴세라
철부지 그 작은 가슴에도
소중히 간직된
나의 조국

굽이굽이 해안선을 따라
바투 잡은 그 연필은
더디게 움직여도
지켜보는 내 마음은 흐뭇이
조국의 새 기슭을 날으네...

비단섬이 어디냐
해풍에 펄럭이는 천막에
제대배당을 풀어놓고
내 밤새도록 잠못이루던
그 첫지점

아 수령님 펼쳐주신 설계도 따라
산악같은 파도와 싸우며
무연한 새땅을 펼쳐왔건만
또다시 다달아야 할
가도와 신미도

아득히 먼
청천강하구와 대동만에

천리제방은 곧바로 뻗어가고
30 만정보의 꿈같은
새땅이 펼쳐지리

아침저녁 굽이굽이 해안선을 에둘며
지금은 먼 학교길도
제방 따라 큰길 따라 곧추 뻗으리
그러면 미래에로 가는 그 길은
또 얼마나 가까와지랴

아 얼마나 크나큰 만년채부를
우리는 후대에게 넘겨주는것인가
천만년 묵은 바다밀이 드러난
기름진 그 땅을 안고
새 구획을 지으며
새생활을 펼치는
아들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

멀지 않구나
전변하는 땅
커가는 아이
뛰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 마음

섬들도 포구도 땅우에 옮겨왔은
그날에 아이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수 있으리
하나 바다를 밀어내며 걸어온
우리의 자욱자욱을 따라
끝은 자를 가지고 해안선을 그으며
그리리라
자랑찬 조국의 새 지도를!

해당화 붉은 기슭에서

강현세

정든 기슭 금모래우에
떨기떨기 해당화 붉어라
잘 있느냐 백사장이어
네 품에 자란 해병이 왔다

꽃송이마다 웃는 얼굴
붉은 입술을 방긋이 열어
기다렸노라 반겨주는듯
치절씩칠씩 파도소리 정다웁다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는구나
해상훈련의 잔물에 절어
내던지는 룡담도 짹짹하던 전우들
다감한 《갈매기》 들어

지금은 모두들 어디로 날아갔느냐
말해다오 해당화야
대대로 바다를 못보았다던 풍산내기
후치령 넘어 제집 문턱을

바다에 옮겨왔노라던 호탕한 친구
지금은 어느 해구에서 령해를 지키느냐

물넙에서 잔뼈가 굵어
일숨씨도 파도처럼 시원스럽던
우리의 갑판장
그는 또 어느 바다가에서
《젊은 갈매기》들을 키우느냐

아 함포에 찢긴 공화국기발에
위훈을 새겨 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아들들아 장하다
조국이 불러주던 믿음의 목소리
오늘도 파도에 실려 들려오고
그날처럼 해당화 향기
이 가슴을 적셔주거니

투쟁의 언덕 성장의 요람이여!
발목이 잡기는 백사장이여!
너의 품에 새긴 충성의 첫자욱
언제나 위훈으로 부르지 않았던가

조국을 안고사는 값높은 삶은
준엄한 시련의 날에 뿌리 내리더라
근위해병들의 고향이여!
내 못잇을 전우들과 더불어
바다를 지켜 바다를 지켜
언제나 이 기슭을 안고 살리라

백사장에 남긴 자욱에 이어
한치의 드림도 없이 걸어온 길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걸어갈 길 위에
그날처럼 아 그날처럼
꽃을 피우리라

저 억센 파도처럼
어떤 원썩도 단매에 족치며
피더라도 피더라도
사시장철 피는 붉은 꽃으로
꽃이라도 꽃이라도
진한 향기를 풍기는 꽃으로...

오 해병의 요람
해당화 붉게 피는 기슭이여!

흙이여

백의선

흙 한줌 듬뿍이 떠드니
어머니 살결같이 부드럽네
애뜻한 정 피줄속에 흘러들어
얼굴 묻고 한껏 취하고도싶네

흙이여 흙이여
버림받던 간석지 한줌 흙이여

너 어이 파도에 짓눌려
천년을 바다밑에 잠잠더냐
은혜로운 햇빛속에 첫 숨결받아
만풍년 꿈을 안고 태여났구나

흙이여 흙이여
축복받은 새 땅 한줌 흙이여

너를 위해 해일파도 맞받아 싸웠네
조수와 폭풍도 웃으며 이겼네
벽찬 생활의 고비 내 넘지 않았다면

흙 한줌 귀한줄 어떻게 다 알았으랴

흙이여
파도와 싸워이긴 나의 자랑이여

뜨거이 뜨거이 두볼에 비비니
조국의 큰 숨결 다 안겨주누나
아 내 청춘의 꿈 너에게 담았거니
너는 두고두고 기억해주리라

흙이여 흙이여
영원한 나의 기쁨 나의 노래여

나의 마음아, 이 흙속에 스미여 황금의 이삭되랴
나의 희망아, 이 흙속에 뿌리내려 억년 꽃피랴
폭풍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청춘이
아름다운 미래를 너와 약속했네

흙이여 흙이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살결이여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 호에서 계속)

11. 조국땅의 마지막 기슭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 떠난 우리는 이번에 《간석지 시초》를 세상에 내놓아 독자들을 기쁘게 해준 시인들을 만나러 간석지건설장으로 향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석지건설계획을 대담하게 세우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다그쳐 1980년대말까지 가도와 신미도, 정주와 청천강하구, 대동만을 비롯한 서해안일대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투쟁하는 간석지건설장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체험과 창작활동을 벌리고있을것인가.

△ 갈매기따라 먼바다로

그 옛날엔 한갓 작은 섬이었던 다사도가 물으로 돼버린 다사리에 우리가 도착한것은 한낮이였다. 평북간석지건설사업소가 여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이곳에는 학교, 병원,서관, 회관 그리고 아담한 소층주택들과 협동농장이 벌써 규모지게 자리를 잡고있었다. 그 언제인가는 파도세찬 바다였다는 환상적인 생각을 더듬으며 우리는 사업소 당위원회로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뜻밖에도 시인 백의선과 로승모를 만났다.

우리는 하마터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번하였다. 그들은 작업복차림새 그대로였고 바다바람에 얼굴도 검실검실 탔었다.

그들은 방금 가차도에서 들어와 사업소 전투속보원고를 쓰고있었다. 이들은 건설장의 초급선동원이면서 동시에 통신원의 역할을 하고있었다. 이곳 신문주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고 합평과 신문편집편성안을 토론하던 시인들이 우리를 만나자 반겨맞아주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업소의 실태를 얼마간 료해할수 있었다.

어서 현장으로 나가고싶었다. 시인들과 신문주필이 따라나섰다.

정문앞에는 승용차가 대기하고있었다.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양했다.

《그 먼뎌 어떻게 걸어간단말입니까?》

다사리에서부터 공사의 완공단계에 들어선 섬까지 거리는 무려 20여리가 넘는다고 한다. 걸자면 적어도 두시간은 실히 걸릴것이다.

《건설자들이 해감랑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지나가겠습니까? 걸겠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일행은 여러명이였다.

시인들은 우리를 전망대로 안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차례 교시를 주시었고 지어 이곳 귀염산에 오르시여 대계도간석지건설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아득한 지평선을 한눈에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흐뭇했다. 얼마나 기쁜진 땅이 눈앞에 펼쳐졌는가. 바로 발밑에까지 물이 들어와 세찬 갈기를 휘뿌리군 하던 이 땅에 행복의 씨앗이 뿌리내릴 날도 멀지 않았다.

《눈부리 아득하게 펼쳐진 저 무변광대한 간석지를 우리 수령님께서 건져주시지요.》

시인 백의선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금 시《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을 쓰던 때의 감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었다.

《우리가 간석지시초를 쓰게 된 경위는 정말 흥분없이 말할수 없습니다.》

시인 백의선은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 나라 잃고 땅 없어 쫓겨난 우리 겨레들을 가슴아프게 그리시며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조국이 해방되면 간석지를 개간하여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자고...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이 준엄했던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학자들로 답사대를 무어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시였다.

비단섬을 건설하던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가 억수로 퍼붓고 파도가 사나운 배길로 오시여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억수로 퍼붓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수령창길을 걸으시며 간석지건설의 빛나는 전망을 펼쳐주셨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현장의 건설자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빠짐없이 잘 받아냈다가 실천하라고 따듯이 가르쳐주었다...

이곳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에는 력사의 그날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처럼 궂은날에 비바람도 막아드리지 못한채 수령길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던 그 송구한 마

음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이건 다시 모실 그날의 기대속에 제방길을 고르고 잔디를 옮겨 심고 꽃도 피웁니다. 그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나마 로고를 푸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백의선동무의 그 말은 시구절에도 담겨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시 오시여 충성의 제방길을 걸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러러뵈고싶어하는 로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시에 담으려고 했는데 잘된것 같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웃는 그의 얼굴은 희열에 넘쳐있었다.

전망대에서 내려온 우리는 20리나 넘는 완성구간의 간석지제방길을 걸었다.

만년대개로 물려줄 제방길은 고르롭다. 제방쪽에는 언제 심었는지 대싸리가 폭 덮여 바람에 넘실댔다. 방금 썰물이 진 때여서 간석지에는 백학이 날아들었다. 흰 날개를 한껏 펼치고 훨훨 날으는데 저녁황혼이 곱게 물들어 마치 한장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백학이 많은데요!》

《그전에는 이고장에 갈매기떼가 덮이던곳인데 바다가 멀리 밀려가니 갈매기도 기슭을 옮겼나봅니다. 그대신 백학이 무리지어 날아오지요.》

우리의 감탄에 시인 로승모가 설명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갈매기를 따라 먼바다로 가고 있군요.》

《이렇게면 그렇지요.》

△ 달뜨는 밤에

무인디아의 한기슭, 천막가에 우등불이 타오른다. 우리가 2건설 2직장과 선박사업소에서 담당한 콘크리트제방공사장을 거쳐 우등불곁에 이른 것은 달뜨는 저녁이었다.

우등불이 타올랐다. 건설자들이 하루종일 젖었던 옷을 벗어 우등불에 말리운다. 힘살이 툭툭 불거진 가슴을 내놓고 왈작 떠드는 건설자들속에 끼여들던 우리는 깜짝 놀랐다.

《이게 누구요?》

시인 황승명이 우리를 알아본것이였다.

《난 또 누구라구?》

우리는 건설자들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옷을 말리우고 우등불에 섭조개를 구워 식초간장을 찍어내는 시인을 보자 여간만 반갑지 않았다.

《자 어서 앉으시오. 우리의 특산이요. 별맛이랍니다.》

황승명과 건설자들은 우리앞에 입을 찹찹 벌리고 김을 물씬물씬 풍기는 섭조개를 밀어놓아주었다.

《황승명동무는 <간석지 시초>에서 <우등불>이란 시를 썼는데 아마도 불무지에 매력을 느끼는

가부지요?》

《그렇수도 있지요. 여기는 제가 나서 자란고장입니다. 이곳 건설자동무들과는 파도와 싸우며 우정을 맺었지요. 또 이 우등불가에서 함께 래일을 그려본답니다.》

보시오. 어둠을 몰아내며 타오르는 우등불, 날이 새면 우등불은 스러지고 재는 파도에 밀려갈 것입니다. 이 밤을 기억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새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건설자들은 이 밤에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황승명은 자기가 쓴 시 《우등불》을 읊겠다고 일어섰다.

.....

그날의 그 기쁨을 노래하며
설레이는 갈숲에서 밤새들은 우짖고
머리위에 둥근달도 뜨겁게 속삭이는가
불무지가에 흐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올려라 손풍금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환희와 랑만을 선물에 담아
우리 함께 부르고 또 부르자

우리들은 모두 시인에게 박수를 보냈다. 우등불가에 올린 웃음소리 말소리가 파도에 실려 멀리 흘러갔다. 말이 났으니말이지 정녕 노래없이 는 지날수 없는 밤이었다.

황승명동무의 시를 듣고있던 우리는 시인 로승모에게 시선을 돌렸다.

《시<탄생>도 바로 이런 생활속에서 씌여진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탄생>을 쓸 때는 여기에 대사리가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시인 로승모는 자기가 시《탄생》을 쓰던 때를 이야기했다.

대사리기슭은 파도가 제일 사나운곳이였다.

번덕많은 바다가 갈기를 쳐들고 건설자들을 위협했다. 하늘도 바다편인듯 우뢰를 터뜨리었고 장검같은 번개를 제방위에 내리찍군했다. 자연과의 판가리싸움, 쌓아놓은 제방을 단숨에 동강내려고 달려드는 노도...

언제우로 달려드는 검푸른 파도속에서 건설자들은 모래가마니를 메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누군가 모래가마니를 멘채 밀물속에 잠겼다. 그래도 그 모래가마니를 놓지 않았다. 위협했다.

《물러서지 말라! 물러서면 제방을 막지 못한다.》

누군가가 목청껏 웨쳤다. 한몸이 그대로 제방이 된대도 유감이 없을 그들이였다. 여기에 시인들도 뛰어들었다...

용감한 인간들의 투지앞에는 횡포한 바다와 하

늘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제방우에 새벽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건설자들은 젖은 작업복을 쥐어짜입으며 감탕칠을 한 얼굴들을 마주보며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이때 누군가가 지난밤 첫아들을 보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희한한 소식입니까.》

《정말 심장의 벽을 두드리는 이야깁니다.》

《아마 제가 책상머리앞에 삼년석달을 앉아있어도 이 시를 찾아내지 못했을겁니다.》 ,

《언젠가 잡지 조선문학에 간석지 시초 <대자연의 정복자들>을 발표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시도 여기서 씌여진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시 《탄생》을 옮겨줄것을 요구였다.

《시를 잘 읊지 못합니다. 시인이라고 시를 잘 읊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어쭙게 웃으며 감정을 잡더니 시의 한토막을 읊기 시작했다.

.....

새땅이 태어나고
등근해 솟아오르는 이 아침
제방우에 모여앉아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때없이 날아든 희한한 소식
누군가 간밤에 첫아들을 보았다는
반가운 소식
.....

펼쳐지는 새땅에 이름을 지어주며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름을 달아주며
아 간석지 천리벌에 날마다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밝아온다

진정할수 없는 밤이다. 이 밤의 랑만은, 그들의 가슴가슴에 안겨진 신념은 그대로 시인들에게도 안겨져있다.

그것은 후대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할 새땅 간석지를 더더욱 넓혀가자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 오늘의 일은 후대들을 위한것이고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그 간곡한 말씀이다. 이 하나의 신념을 안고사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위훈담을 어떻게 다 전하랴.

△ 끝없이 이어질 랑만

물에서 뻗히 바라보이는 신미도,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사는 섬사람들이건만 그들은 얼마나 물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왔던가.

하루 한번 물길따라 찾아오는 기계배의 고동소리를 들으면 집집의 창문들이 열리고 아이들은 나루터로 달음박질치던 외진 섬기슭, 간혹 가다 바람이나 세차고 물결이 높으면 배길이 끊어져

바다속에 갇히던 섬생활. 섬사람들은 애꿎은 바다만을 나무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없는 경사가 다가오고있는 것이다. 물에서 막아나오는 산악같은 언제가 이제는 거의 섬기슭에 닿게 되었다. 멀지않아 이 외진 섬도 물으로 뿔것이다.

간석지건설-이는 새땅만을 얻어내는것이 아니다.

수천년 수만년 웅색하게 살아오던 섬사람들이 새로 생긴 물에 새 이름을 지어놓고 풍년농장을 꾸리게 된다.

우리는 시인 한원희, 한기운동무들이 신미도에 가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온하식부두를 만들어 돌을 싣는 일을 기계화했고 문짝식끌림배를 만들어 삽시에 난바다 한가운데 돌을 처넣던 건설자들은 구수한 담배를 피우며 휴식하고있었다.

우리는 끌림배우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고있는 한원희, 한기운을 만났다.

《마치 선장같은걸요?》

《아닌게아니라 선장노릇을 합니다.》

한기운동무는 한원희동무를 보며 웃었다.

《선장까지는 못되지만 장수가 된것 같습니다.》

한원희는 이 섬에 전해지는 전설을 이야기했다.

물에서 이 섬을 바라보면 마치 장수가 누워있는것 같이 보인다는것이다. 눈, 입, 수염, 코모양이 방불한데 이 거창한 장수가 서해안바다로 기여드는 왜적을 물리치고 태평하게 누워 자고있는것 같다는것이다.

이고장 태생인 한원희는 동요시절에 이 장수를 부럽게 바라보며 언제건 꼭 가보리라고 생각했다는것이다.

시인으로서 오늘 이 섬에 오니 자연을 정복하는 건설자들이 바로 어릴적동무를 같고 그들이 모두 장수처럼 보인다는것이다.

《그러니 한원희동무도 장수가 댜단말이군요.》

《이렇게면 그렇지요. 하하...》

우리들은 모두 유쾌히 웃었다. 아닌게아니라 이곳 건설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달려온 끝끝한 청춘들이라 나이와 생일이 엇비슷하다. 그들은 바다와 싸우면서 같은 성격으로, 같은 랑만으로, 같은 미래를 꿈꾸며 살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이 시 <해당화>를 쓰게 된 동기는 아닐테지요.》

《물론이지요. 저기를 보십시오. 한그루의 해당화가 곱게 피여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리키는 바다 맨 기슭에 붉게 핀 해당화가 바람에 나뭇기고있었다.

《한떨기의 해당화가 몇번째로 자리를 옮겨 여기까지 나왔는지 압니까?》

그의 말을 듣고보니 한그루의 해당화에도 깊은 사연이 있었다. 멀어진 물에 피어난 해당화를 이

곳 건설자들은 제방과 함께 이 섬에까지 옮겨오고 또 옮겨왔다.

꽃을 안고 향기를 맡아오는 처녀의 가슴은 너무도 알길없이 뛰었다. 발과공총각이 삽으로 들쭉 떠서 지고 기슭으로 나와 심어놓은것을 기증기운전공처녀가 마를세라 물을 주어 피웠다는 해당화.

꽃향기 만발한 때 이곳 청춘들의 사랑의 짝은 아무도 모르게 말없이 찾아들었다.

꽃을 안고 조국의 향기를 맡으며 래일을 꿈꾸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기에 대자연을 정복하는 그들이었다. 바다를 떠나 살수 없듯이 간석지를 떠나서 살수 없는 그들의 꿈은 전변되는 땅에 영원히 뿌리내릴것이였다. 처녀도 총각도 사랑이 있어 삶이 뿌리내리고 미래가 있어 난바다를 떠밀고 나가는것이다. 하나의 그 마음이 저기 해당화처럼 붉게붉게 피는것이 아니라.

《때문에 한원희동무의 시 <해당화>를 이곳 건설자들이 즐겨 읊는답니다.》

그렇것이였다. 그의 시구절은 우리도 기억하고 있다.

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바다를 길들이며 처녀총각이 맺은 사랑을 담아 붉게 핀 해당화.

끝없이 뻗어가는 새 동쪽에
또다시 또다시 너를 옮겨가리니
해당화는 바다가에 뿌리내리고
청춘들은 새땅우에 뿌리내리리
아, 해당화 해당화!

방금 작업이 시작되였다.

굴착기들이 섬을 흔들며 뿔뿔 돌아가고 운하식 부두에 정박했던 배들이 바다가운데로 떠난다. 신호공처녀가 빨간 수기를 흔든다. 짐실은 배는 새기슭을 잡으며 아득히 멀어져간다. 이 땅의 기슭이 아직 어디쯤까지 될지 모른다.

《신미도의 돌산은 멀지않아 저 바다밑을 메울것입니다.》

시인 한기운동무는 자기가 시 《우리는 가리새 기슭으로》를 쓰던 때를 더듬는듯 조용히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바다처럼 웅심깊고 꿈이 많고 의지가 강하다. 바다를 다스리면서 마음도 넓어지고 성미도 거칠어진듯하다. 하지만 실지로 알고보면 그들처럼 아량이 있고 인정이 깊고 통이 크고 단결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물의 사람들이 휴일이나 명절날에 안해와 같이 아이들의 손목을 이끌고 공원을 거닐고 극장구경을 갈 때 이들만은 도요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방을 지켜내는 전투를 벌린다. 사랑을 속삭이는 처녀총각들의 등을 떠밀며 물에 가서 쉬고 오라 해도 간석지의 해감탕내가 없는 거리의 산보는 습습하다는것이다.

물의 어디서나 볼수 있는 떨기진 꽃밭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간석지제방우에 별의별 꿈을 다 세우며 보내는 그 랑만의 시간없이는 적적하다는 그들, 그들의 삶은 바로 거창한 대자연을 정복하여 조국땅과 함께 넓혀가는 마음속에 있다. 하기에 그들은 당 제6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석지건설구상을 드림없이 관철하는 길에서 풍랑세찬 바다와 용감히 싸우며 앞으로 가고 또 간다.

우리는 한기운동무가 이곳 간석지건설자들만이 안고사는 그 고상한 성격적해를 종자로 하여 시를 썼으리라것을 묻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작가는 바로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조국땅은 끝없이 넓어진다는것을 구체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보았던것이다.

참말로 떠나고싶지 않은 간석지건설장이다. 우리는 간석지를 떠나기 앞서 시인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에 발표된 다섯편의 시들은 완전한 하나의 구성미를 가지고 시조를 이루었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수 있었는지요?》

우리가 제일 묻고싶었던 질문이다.

《그전에는 한사람이 시조를 쓰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시조의 창작은 서정시들을 그저 묶어놓은것이 아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별반 다른것이 없었다. 하나의 시조를 쓰자면 하나의 사상과 감정이 짜임새를 가지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가 진지한 탐구를 해야 한다.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나 듣고 시를 쓴다면 책상에 마주앉아있는것과 별차이가 없는것이다.

그들은 각기 개성도, 성미도, 문제도 다 다른 작가들이였지만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가다보니 결국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던것이다.

그것은 이곳 건설자들의 생활바탕에 깔려있는 단합된 의지, 굳어진 신념, 끝없는 랑만이 하나와 같았기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이 이 난바다와 용감히 싸울수 있는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것이였다.

시인들은 그들의 사상감정을 하나의 시조로 묶을 결심을 가졌다. 그래서 생활체험에서 부족한것은 서로 보충하였고 창작과정에 합평회도 거듭하였다.

결국 《간석지 시조》는 이곳 건설자들과 시인들의 한결같은 사상감정의 발현이였다.

간석지건설장은 여전히 우리 작가들의 현지생활기지이다. 건설자들에 의해 조국땅은 끝없이 넓어진다. 시인들도 조국땅 기슭끝까지 따라서며 많은 서정시들을 창작할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김원복

우리 나라 역사기록에는 《향산별곡》이라는 갈은 제목으로 된 두편의 기행가사가 전해지고있다. 그중의 한편은 백광홍이가 쓴것이고 다른 한편은 김현중이가 쓴 작품이라고 전해온다.

여기에 편집한 《향산별곡》은 김현중이가 박제가(1750~1805)를 따라 묘향산구경을 갔다가 쓴 것이라고 한다.

18 세기 후반기에 창작된것으로 추측되는 이 작품은 향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기행형식으로 노래한 가사이다.

이 가사는 봉건지배계급이 인민들을 기만하여 억압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로 리용하던 불교문화를 그대로 작품에 형상한 사상적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편집부는 독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의 고유명사들은 그대로 두고 어려운 한자어휘는 우리 말로 풀었다.

(편집부)

향산별곡

김현중

천지개벽후에 산천이 생겼으니
다섯산은 조종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한줄기가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명승지라
일국의 명산이요 절중에도 큰절이라
평생에 먹은 마음 향산구경 소원터니
춘삼월 호시절에 친구벗과 기약하고
행장을 급히 차려 한양성 뻗은길로
지팡이 둘러짚고 묘향산 찾아가니
백두산의 줄기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월림강 건너가서 향산어귀 다달으니
 시내가에 우는 새는 춘흥을 노래하고
바위우에 피는 꽃은 멀리 온 손 반기는듯
외사자 넘어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푸른 솔은 울울하고 록수는 잔잔하다
심진정 높은 집은 대소행차 맞고보내
일행을 재촉하여 내사자목 넘어드니
좌우의 터주신은 옛장수의 품체이라
홍살문 구경하고 조계문 다달으니
좌우의 금강신은 인사없이 손을 쫓네
영청각 산뜻하고 사적비 오래도다
명월당 해월당을 동서로 돌아보며
해탈문 넘어들어 문수보살 구경하고
천왕문 넘어드니 사방천왕 웅장하다
진상전 해회당을 좌우로 살펴보며
만세루 올라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남산에 웃는 꽃은 춘색을 띠여있고
푸른 시내 맑은 물은 좋은 경치 알리는듯
취운정 백운각에 가막까지 날아드니
신선세상 어디런가 하늘나라 여기로다
여래탑 십구층과 다보탑 이십층을

전후로 구경하고 대웅전 들어가니
의의한 편꽃대에 금부처가 거룩하다
이층전 높은 집은 반공에 솟았으니
신선의 조화인가 인간재주 아니로다
백옥루 광한전을 말로만 들었더니
오늘날 친히 볼줄 어찌하여 알았을가
총회문 넘어들어 명부전 들어가니
지장보살 우에 앉고 십대왕들 앉았는데
참혹한 지옥형상 날날이 그려있다
음향각 들어가서 구리향로 구경하고
심정당 수월당에 관음전 동림헌과
마하전 망월루를 차례로 구경하고
산길로 찾아가서 안심사 돌아드니
무수한 둥근 돌탑 도승의 유적이라
명월은 교교하고 청풍은 소슬하다
록수청산 깊은곳에 상원암 찾아가서
대하폭포 구경하고 정신이 시원하여
이중쇠줄 휘여잡고 인호대 올라가니
솔바람은 거문고요 두견성 노래로다
동편에 산주폭포 진주를 헤치는듯
천신폭포 높은 물은 벽공에서 내리는듯
룡연폭포 내린 물은 백룡이 서리인듯
신선들이 어데 사나 천하명산 여기로다
단군나신 자리라니 걸음마다 유심교야
상원암 들어가니 별유천지 여기런가
칠성각 구경하고 룡각바위 돌아드니
관찰사 태수이름 면면이 새겼으니
돌벽우의 조정갈아 옛말이 분명하고
온갖 꽃핀 산속으로 불영대 올라가니
단군대 여기언만 석굴만 남아있다
산천을 구경하고 만폭동 돌아드니

흰돌층층 천만대에 흐르나니 청계수라
 우적대 올라가니 신선내린곳이로다
 금강굴 내려오니 서산대사 수도처라
 사리각 들어가서 팔상족자 구경하고
 내원암 들어가니 산속의 중심이라
 무릉폭포 넘어드니 무릉도원 여기로다
 견불암 화장암과 사봉암 오봉암과
 불지암 보현암을 력력히 구경하고
 수충사 들어가니 임금문필 보관처라
 국진굴 보운암을 내릴적에 잠깐보고
 어사문 들어가서 영각에 들어서니
 서산대사 사명당의 화상이 거룩하다
 검을 짚고 일어서서 국사에 몸바쳤네
 비단가사 배장삼과 보석술잔 종려부채
 야광주 룡환장은 량대사의 유적이라

극락전 들어가서 날날이 구경하고
 대장전 들어가니 팔만경관 쌓여있다
 계조암 백운암을 자세히 돌아보고
 남정암 올라가니 저녁종이 울려온다
 비로봉 석가봉과 관음봉 개진봉과
 향로봉 원만봉과 미륵봉 칠성봉과
 지장봉 십왕봉 가섭봉 아난봉과
 상비로 수미대와 중비로 백운대와
 하비로 보련대와 삼성대 설령대를
 차례로 바라보니 가슴이 시원하다
 태백산의 중 아닌중 되고저 하건마는
 인간세상 더린 몸이 세상인연 미진하여
 두견성 한소래에 고향생각 절로 난다
 산수가 절승하니 명춘에 다시볼 뜻
 명산을 하직하고 고향으로 어서 가자

묘향산에서

조수삼

유서깊은 이 땅에는
 기이한 유적도 많아
 크고 깊은 산으로
 묘향산을 꼽으리라

서산대사 설법듣고
 물고기도 울었으며
 지광막대 한번 날리니
 표범도 숨었니라

나라가 위급할제
 서산대사 달려나왔고
 바로 여기서
 단군도 태어났다 하도다

서역에선 묘향산을
 가달산이라 하였거니
 동방인 우리 나라는
 극락세상이로다

무릉도원

박제가

발걸음소리 서로 들으며
 자옥한 골 찾아들어
 쳐다보니 파란 하늘
 기러기떼 날아가네

이리저리 나무로 막혀
 앞선 중도 안보이고
 아쉬울손 구름 깊이
 갈길은 어데인고

백척 높이 쏘는 폭포
 바위걸쳐 꿈틀꿈틀
 한발만치 솟은 해는
 사람 향해 붉었구나

두어라 절정엘랑
 구태여 가지 말자
 폭포근원 보았으니
 돌아갈길 바쁘도다

중편소설 《배고동소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문학예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전에 문예출판사에서 내놓은 중편소설 《배고동소리》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소박하게 담은 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기쁘게 할것이다.

중편소설 《배고동소리》를 펼치면 독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임없이 콩나물리야까를 끌고다니며 팔고있는 몸집이 작은 한 재일동포녀성을 보게 된다. 그가 바로 주인공 라금이다.

사람들은 그를 《콩나물집어머니》라고 부른다. 라금에게는 해방직후 미국놈 쫓차에 다리병신이 된 딸 일숙이와 아버지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들 철이가 매달려있다. 이 어린 오누이야말로 라금이의 희망이었고 생활의 전부였다.

나라없는 슬픔과 이국살이 고역에 라금이의 얼굴은 언제나 흐려있다.

그러던 어느날 함봉태가(해방전 라금이 남편 구봉주와 감옥살이를 한 총련 흑가이도 교육회 회장) 뜻밖의 소식을 안고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였다. 귀국의 배길이 열렸던것이다.

라금은 못잊어 그리운 조국으로 당장 가고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다리병이 재발한 딸을 귀국선에 태울수 없었고 더우기는 생사를 모르는 남편을 이국땅에 두고서는 차마 발길을 뻔수 없는 라금이었다. 그는 14살짜리 아들 철이만을 첫 귀국선에 태울것을 결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첫 귀국선은 배고동소리 울리며 니이가다항을 떠난다.

삶을 찾은 재일동포들의 감격의 환호성인가, 멀리멀리 울려퍼지는 배고동소리를 들으며 라금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있다. 그는 한편 새웃 한별 해입히지 못한채 아들을 조국으로 보내는 어머니로서의 송구스러움에 모태기기도 한다.

그날부터 라금은 더욱더 극성스럽게 콩나물 장사를 한다.

딸의 다리를 고쳐 조국으로 함께 가려는 꿈을 안고 치료비를 장만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연약한 녀인의 힘으로는 그 막대한 치료비를 마련할수가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동포들은 성의껏 라금을 도와나선다.

바로 그때 라금은 함봉태의 안내 설씨로부터 새로 세운 조선중급학교에서 식모가 없어 애를

먹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라금은 자진 식모로 들어갈것을 결심한다. 그것이 바로 먼지낀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아들에게 행복을 주고, 미래를 준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자각이였다.

라금은 중급학교 기숙사생들을 친어머니처럼 보살펴준다. 그는 두 오누이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조선중급학교 학생들의 어머니로, 온 흑가이도 동포자녀들의 어머니로 성장한다. 어느덧 라금은 《콩나물집어머니》로부터 《우리 학교 어머니》로 불리운다.

구름낀 하늘처럼 언제나 흐려있던 라금이의 얼굴에는 봄날같은 웃음이 피기 시작했다.

어느날, 뜻밖의 슬픔이 라금에게 찾아든다. 그것은 생사를 몰랐던 남편이 이미 해방전에 왜놈들에게 학살되었다는 비통한 소식과 딸 일숙이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기막힌 소식이였다.

그러나 라금은 벌써 개인적인 슬픔에 모태기는 세속적인 어머니가 아니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한 조선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기둥으로 자리잡고있었으며 그들모두를 아버지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려는 숭고한 정신의 높이에까지 도달한 어머니였다.

라금은 딸 일숙이를 귀국시키게 되며 더욱더 극진하게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살펴준다.

흘러가는 생활과 함께 드디어 라금에게는 기쁨이 찾아든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아들 구철이가 학원을 나오면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있다는 소식과 일본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했던 딸 일숙이의 다리가 완치되어 고마운 조국의 대지를 마음껏 활보한다는 가슴벅찬 소식이였다.

라금은 이때 처음으로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는 나라없는 서러움에, 고역에 울고있던 어제날의 라금이가 아니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의 활력으로 더욱 젊어진 라금이다.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마음껏 웃고있는 라금이다.

독자들은 중편소설의 마감에서 총련전체대회 대의원이 되어 도포로 가는 열차에 앉은 라금이의 어엿한 모습을 보게 될것이다.

라금은 차창너머 출렁이는 동해의 물결을 바라보기도 하고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기도 하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인다.

…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사회주의조국땅에 뿌리박은 거목이 되리라…

본사기자 리순우



《우리는 대학졸업생들과 중학교졸업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혁명적인 소설도 쓰고 연극과 영화도 만들며 노래도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단편소설

버드나무

김철진

나는 이날도 신문의 한 기사에 눈길을 박은채 오래동안 생각에 잠겼다.

참 고향이란 무엇이기에 60돐 생일이 지난 오년까지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것인지.

다 찌그러져가던 초가집이 3대를 물리며 살아온 나의 집이었고 버들방천에서 모기불을 훌훌 불면서 하늘의 별이야기로 서로 싱갱이질을 하던 그 여름밤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오솔길도 고향의 오솔길, 한여름에도 앞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던 우리 집 대와 함께 자라온 살구나무도 그렇다. 오늘의 행복이 크면클수록 고향에 대한 생각은 더해만진다. 만약 나라의 허리에 그 불화의 지경이 생기지 않았다면 결코 고향에 대한 이런 모태김으로 이렇게 가슴태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사에는 《버드나무회》라는 한 혁명조직책임자의 최후에 대한 소식이 실렸다.

《버드나무회》! 락동강이 굽이쳐 흘러간 기슭에 자리잡은 나의 고향마을에도 버드나무회라는 혁명조직이 있었다.

구진팔로인과 버드나무회에 대해서 나는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

구진팔의 한생은 어둠속에서 흘러갔다. 속절없이 타다 없어지는 인생의 등불을 안고 끝을 모르는 가시덤불길을 걸어가던 구진팔이었다. 허무한 한생의 고통이 끝나면 《이승》의 락원에서 즐기겠다고 꿈꾸기도 하였던 그였다. 구진팔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거기에 순간이나마 기쁨이 있었다면 쪽발이의 사슬에서 풀려난 해방년 그날 읍으로 달려나가 만세를 부를 때를 꼽을수 있었다. 하나 그것은 뒤미처 다가든 미군정이 인민위원회간판을 두드려부시는것과 함께 삽시에 날아났으니 이때로부터 생활은 더더욱 암담했었다.

한데 북조선을 먹겠다고 울리던던 미국땅크들이 병신이 되어 돌아나오고 《국방군》이 총대를

거꾸로 메고 남으로 줄행랑을 친후 그에게는 물론 온 월파마을에 천지개벽같은 경사가 생겼다.

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진팔이 같은 가난뱅이들에게 땅을 나누어준다는것이였다.

땅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갈망이 이제는 타서 한 줌의 재가 된 지금에 와서 구진팔에게는 이 일이 꿈만 같았다.

아침녘에 벌린 토지분여행사는 미국놈비행기가 지랄을 치는통에 저녁녘에 끝났다. 구진팔은 분명 제귀로 《구진팔 3,000평》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큼직한 도장까지 찍힌 토지분여증서를 받았다. 토지분여증서를 받아쥐었으나 구진팔에게는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눈곱에 고인것이 금방이라도 떨어질듯 흔들거리였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라는것은 쟁그리 빠지고 쓰러질것만 같았다.

마치 온 지구가 지금 자기 두손우에 받들려있듯이 그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 비칠거렸다.

구진팔은 간신히 밖으로 나왔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불타는 농무속에 취한듯 서있는 구진팔은 지금 현실과 꿈사이를 헤매며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귀에서는 왕벌의 울음소리처럼 봉봉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분명 3,000평이라는 소리도 섞여있었다. 구진팔은 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지만 그대로 거기에 있을수 없었다. 밭으로 나가보고싶었다. 밭에 나가 패말도 박고 땅도 돌아볼 생각이였다.

그는 누가 볼세라 회의장을 빠져나와 한달음에 집으로 왔다.

인민군대가 주고 간 연필로 종이장에 무슨 광대를 그리고있는 손자 동휘를 본 그는 입이 귀밑까지 돌아가서 손짓했다.

《이 녀석아, 날 따라와.》

그는 도끼를 찾아들었다.

호기심에 두눈이 동전처럼 된 동휘를 뒤에 달고 월파천으로 내달아간 그는 미출한 버드나무를 끌라 찍어넘겼다.

《할아버지! 그건 뭘하러 찍나요?》

버들피리감을 고르던 동휘가 눈을 깜박거렸다.

이 물음에 구진팔은 아지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쳐들었다. 빙글빙글 웃던 그는 이 일곱살내기가 알아들을 설명이 생각나지 않아 갑작스럽다.

꿈만 같은 이 일을 동휘가 다 알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해방년 가을 인민위원회가 생겨나 가난뱅이들이 잘살게 된다고 할 때 가냘픈 소원에 가슴들먹거리면서도 차마 믿지 않다가 북조선에서 농군들이 땅을 받고 잘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으며 구진팔은 몇밤을 밝혔는지 모른다. 부러움과 동경속에서 그는 얼마나 애타게 그 꿈같은 현실을 갈구했던가, 그런데 그것이 오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든것이다.

구진팔은 패말감을 쓰다듬다가 손자 동휘가 심중에 깊이 아로새겨두게끔 하려고 정색하여 말했다.

《우린 3,000평의 땅을 가진 땅임자란다. 이견 그 밭의 패말루 표식말꼭두루 쓸거다. 이제 있으니 이제 우리는 밥을 굶지 않을게구 넌 학교로 갈게다. 그러니 우린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다.》

가슴이 불시에 몽클해져 구진팔은 동휘의 까까머리를 두손으로 감싸안았다.

(우리가 잘살게 되다니?)

구진팔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스스로 놀랐다.

자산가와 천민이란 세상에 날 때부터 타고난것으로 알고있던 그가 팔자를 바꾼다는것이 정말 놀라왔다.

《할아버지의 옛말에서 나오던 그런 잘사는 사람이 되는거?》

동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채 두눈을 들어 할아버지를 뵈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이건 옛말이 아니다. 실지란말이다. 학교가는게 좋지?》

학교로 간다는바람에 성수가 난 동휘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길과 축축히 젖어든 눈길은 아랑곳 않고 기뻐서 정충정충 뛰었다.

구진팔은 말뚝을 멋지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서있게끔, 그래서 그는 옷부분만은 겹질을 벗기고 밀둥은 뒹두었다. 버드나무란것은 겹질 벗긴 부분이 흙에 닿으면 인차 썩기때문인것이다. 그는 글을 쓸 자리만은 도끼날로 대패질하듯 밀었다. 매끈히 깎여지자 그는 손가락으로 살살 쓸며 피어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동휘는 그 말뚝을 자기가 메고가겠다고 부산을 퍼왔다.

그는 세문의 집에 가서 《아니 이 밤에 말뚝을 안박으면 받아는 밭이 달아나겠다.》는 지청구를 들으면서도 구진팔 3,000평이라는 글씨를 받아가지고 밭에 나갔다. 그는 동휘가 옆에서 보는것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쳐 흙에 불을 비비었다.

그 구수한 흙냄새가 무엇인지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며 따뜻한 눈물을 짜냈다.

코와 눈언저리 그리고 입에도 흙이 가득 묻었다. 동휘는 애기버들같은 손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쓰다듬으며 흙을 씻어주었다.

《좀 묻었으면 뭐라나.》

《할아버지, 빨리 박아.》

동휘의 재촉이 구로인은 일어섰다. 옷등을 훌벗어 동휘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그래 박아보자!》

기쁨의 파도가 그를 두둥실 떠들어 어디로 가져가는것만 같다. 미칠것 같은 환희에 스스로도 놀랐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수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 산 그였다.

어제까지는 로동이 강요된 땅이었다. 지금은 로동이 권리로 된 땅이 되었다.

《땡! 땡!》

도끼질소리마저 그를 축복하는 음악처럼 멀리 멀리 메아리쳐 울렸다.

휘영청 밝은 달이 구진팔의 힘있는 도끼질을 공간에 그려 영원한 원을 새겼다. 정말 좋은 밤이었다.

모가 난것이 《사회의 법칙》이라고 알고있는 그에게 둥근 자연의 부드러운 미를 맞본 인상이라 할까.

하지만 그것도 자연의 혜택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이 혜택이 어떻게 차례졌는지를 그는 알고있었다.

낮이 되기를 참지 못하고 달려나온 이 밤이 이렇게 좋을수 있다는것도 새롭게 안 구진팔이었다.

자연이 어두운 밤을 만들어냈듯이 한가슴에 캄캄한 밤만이 꼭 찬 인생도 있다고 생각해오던 그였다.

하지만 낮보다 더 좋은 밤이 있다는것을 어찌 그가 알았으랴.

하늘에서는 못별들이 반짝이었다. 인덕이 많으면 한모금만 먹어도 《불로》하는 물을 내려보내 준다던 은하수도 머리위에 길게 누워있었다.

운명을 저 하늘끝에 걸고 덕없는 기대를 가져오던 허무한 나날이 이 패말에서 지경을 이루고 있었다.

구진팔은 패말과 더불어 이 땅을 그러안고 열밤을 새워도 부족할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동휘를 보고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동휘도 싫다고 안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래 좋다. 우린 오늘밤을 여기서 새자꾸나.》

구진팔은 패말에 기대여 동휘를 꼭 그러안은채 이 밤을 아름다운 꿈과 즐거운 공상속에 보냈다. 그의 한생에서 제일 행복스런 밤이었다.

동휘는 하냥 빙글거리고만 있는 할아버지를 보

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 버드나무패말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 영문을 알수 없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아직 단한번도 웃음을 보지 못하였던 어린 동휘로서는 할아버지에게 것처럼 크나큰 기쁨을 가져다준 버드나무패말이 옛말에서 듣던 방망이와 같은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원하는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방망이, 할아버지는 그런 방망이를 얻은것이라고 동휘는 생각했다.

학교도 가게 하고 잘살게 한다는 그 희한한 말뚝, 할아버지의 웃음속에서 자기 기쁨을 찾은 동휘는 그저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다.

새별처럼 반짝이는 동휘의 두눈동자를 들여다 보고있던 구진팔은 그를 그러안으며 희디흰 그의 살갗에 별에 타서 꺼멓게 된 주름진 자기 얼굴을 비볐다. 그리고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눈길을 던졌다. 세상에 낮과 밤이 왜 생겼을까? 길지 않은 인간의 삶은 그것도 절반은 캄캄한 밤이다. 어린시절 언젠가 구진팔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밤과 낮이 차이가 없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였다. 아니 이 밤처럼 더 기쁘고 행복한 《낮》은 없을상싶었다.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유난히 빛을 뽐고있었다.

구진팔은 방금 잠이 든 손자의 모습과 하늘의 북두칠성을 번갈아보며 온밤 별의별 생각을 다하였다.

자기 운명을 탓하며 온 겨울 문풍지와 함께 떨며 찢어진 구멍으로 차거운 빛을 던지던 저 달에도 허무한 기대를 걸어보던 구진팔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구진팔의 짚진 가난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결코 운명타이 아니었다.

새삼의 러명을 알리는 새벽이 동터왔다. 마을에서 닭이 첫 해를 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야흐로 시작될 새날의 서곡이 울렸다.

구진팔은 손자의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한가닥의 구김살도 없는 어린것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얼굴에 웃음이 실렸다. 구진팔은 자기도 희죽이 웃었다.

다음날부터 그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밭으로 다녔다. 땅의 주인이 된 이제는 그 누구앞에서도 굽히지 않아도 되었다.

이삭들이 패여가는 밭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의 호화찬란한 남은 생애를 웃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 뜻밖에도 미국놈들이 다시 밀려온다고 했다.

구진팔은 전를했다. 아니 다가드는 그 암흑을 믿고싶지 않았다. 한번 빛을 본 이상 그 찬란한 태양을 잊을수 없었다.

피로움으로 잠못드는 살롱스런 밤이 닥쳐왔다.

지주 라병부눔이 다시 기여들었다.

그는 밭의 여기저기에 박힌 제작인들의 이름자를 보고는 눈이 핵 돌아가서 말뚝들을 뽑기 시작하다가 제힘으로 그것을 다 뽑기에는 어렵도 없다는것을 때늦게나마 깨닫고 그날중으로 패말을 다 뽑아바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패말을 바치라니?》

라병부의 호령을 전해들은 구진팔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가물거리리는 등불밑에서 가을 나무잎처럼 누렇게 떠가던 한생이 이 패말에서 소생의 봄을 찾은 지금 그것은 너무나 모질고 끔찍스런 소리였다.

구진팔은 점도록 앉아 담배만 태우며 속을 끓였다. 이따금 카빙총소리가 위협하듯 야무지게 일어났다.

암담한속에서도 떠나가면서 하던 복에서 온 정치공작원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렸다.

《아버님, 온 조선사람들이 모두 미국놈을 반대해 싸우면 그놈들은 오래 못갑니다. 자기 행복은 자기가 지켜 싸워야 합니다.》

구진팔은 생각해보았다.

미국놈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천하에 죽일놈들이다. 지금 이렇게 그놈들을 저주하는것은 자기만이 아닐것이다.

행복의 대문을 열고 그 세계를 본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을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들고일어나면 정말 미국놈들이 오래 배겨낼수 없잖을까.

구진팔은 담배대를 토방돌우에 탕탕 두드리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저도모르게 성이 나서 중얼거렸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행복을 맛보았던 우리들이다. 거저 주지는 않을테다.》

구진팔은 그대로 도끼를 들고 울박으로 내달았다. 그의 눈치를 불안스럽게 살피던 동휘가 저만 치서 따라서는것도 모르고 밭으로 내달려간 그는 패말앞에서 한동안 굳어진듯 서있다가 도끼를 들었다. 그 얼굴은 검붉게 질렸다.

《멍!》

도끼소리가 울렸다. 도끼등은 면바로 패말을 맞히었다. 억울한 하소를 하듯 멍, 멍 소리를 내며 패말은 땅으로 땅으로 박혀들어갔다.

이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던 동휘가 쏜살같이 달려가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걸 왜 박나요.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 나는 학교도 못가게... 흑흑.》

동휘는 울음을 터뜨렸다. 구진팔은 전기에 맞은듯 흠칫했으나 아무 말도 안했다. 동휘는 그냥 엉엉 울었다.

《땅이 우리에게 아니면 난 학교로 못가지 않아요.》

동휘는 계속 같은 말을 곱씹으며 울었다.

구진팔은 입술을 짹 깨물었다. 어깨가 지진 만난 고목그루처럼 떨었다. 그는 피빛으로 된 눈으로 동휘를 내려다보다가 그를 밀치며 다시 도끼를 쳐들었다.

그는 힘주어 소리치며 패말을 땅속깊이 박았다.

이젠 땅우에서 패말은 보이지 않았다.

동휘의 연한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린 패말은 모든 기쁨과 희망을 애통해하듯 서서히 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패말을 박던 도끼질소리도 벌판위로 가느다랗게 여운을 남긴채 조용해졌다.

구진팔은 아무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동휘야, 이렇게 박아두면 패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울음처럼 들리는 그 말을 다른 누가 들었다면 가슴아파 머리를 수그렸으리라.

두사람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뜰줄 몰랐다.

패말 대신 돌처럼 굳어져서라도 그 자리에 서있고싶은 구진팔이었다.

구진팔은 패말이 땅속에서 썩어 거름이 될지라도 이 자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었다.

《내 땅!》

구진팔은 몇번이고 입속말로 외워보았다. 그리고 그 어떤 불타는 심장의 절규라도 하듯 두주먹을 짹 쥐고 팔굽을 꿇었다.

그리고는 되돌아서지 않겠다는 동휘를 끌고가며 속삭였다.

《저 패말이 다시 솟아오를 때가 올거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폭풍같은 울분이 맴돌이 치며 동휘만 아니면 쓰러져 태질이라도 하곤했다. 그래서 집에 오자바람으로 그는 막걸리를 취하도록 마셨다. 그리고는 동휘를 무릎에 앉히고 그 언젠가 들려주었던 방랑이를 얻은 소년에 대한 즐거운 옛말을 또 하였다. 그 옛말의 즐거운 세계에 잠겨들어 때때로 웃음까지 웃어가며...

옛말을 끝낸 구진팔은 농작 제일 깊은곳에 손을 넣어 한참이나 더듬더니 무엇인가 종이에 싸있는 것을 소중히 들어냈다. 그러는데 밖에서 《으흠으흠.》하는 헛기침소리가 났다. 지주 라병부가 온 것이 분명했다.

구진팔은 손에 든것을 급히 도로 제자리에 넣었다.

동휘는 어느때도 자기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방금 손에 든것을 급히 농작속에 넣는 것을 본일이 있었다. 무엇일까? 이전에도 지금에도 동휘의 호기심을 당긴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물어볼수 없었다. 지주 라병부의 출현은 즐겁던 그들의 동화세계를 뒤집어놓았다.

높은 구진팔을 보자바람으로 눈을 부릅떴다.

《자넨 말뚝을 안가져오나.》

동휘에게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던 구진팔의 얼굴에 억지로 썩워있던 면사포가 벗겨졌다. 그의 얼굴은 흠뻑이 되었다.

《안바치는가말이다.》

라병부의 두번째 호통이 채 끝나기도전에 구진팔의 석심한 분기어린 대답이 따랐다.

《모르겠수다.》

《뭘? 모르겠다구.》

라병부는 순종만을 알던 소작인의 반발에 처음에는 병하니 있다가 《이놈!》하고 소리치며 구진팔의 귀뺨을 호되게 갈겼다.

구진팔은 꺾꺾! 옷다가 용수철에 튕기듯 내달리며 라병부의 배허벅을 차 꺼꾸러뜨렸다. 그리고 그놈을 메주밭듯하며 소리쳤다.

《이 개야, 그 패말을 달란말이지. 미친놈같으니라구. 그건 내 가슴에, 이 구진팔의 가슴속에 박혀있다.》

이렇게 되어 구진팔은 이 동네에서 《주인》을 때린 첫 농민이 되었다. 라병부의 추김을 받은 당국은 이러한 두번째 농민이 생길까봐 구진팔을 경찰서 매질로 질을 들이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빨갱이 동정자》로 몰아 《가막소》로 끌어갔다.

구진팔은 동리사람들의 눈물어린 전송을 받으며 동구밖으로 걸었다.

자기 발이 보이는곳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패말이 솟았던 자리를 보고 또 보았다. 걸으면서도 돌아보고 또 보았다.

그것이 더 보이지 않자 그는 청정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푸른 하늘 두둥실 뜬 구름을 보며 기쁨과 크나큰 행복의 조짐에 구름을 탄것 같던 지나간 보름동안을 생각해보았다. 지나온 50평생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보름간이었다.

《구진팔 3,000평》이라고 쓴 패말이 하늘에 어려있었다.

(그래 놈들은 패말을 다 없앴다고 기뻐할테지만 패말은 저렇게 보이는것이야.)

구진팔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

몇해동안 감옥생활을 마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것은 여름도 다 간 어느 저녁이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달구지길을 걷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고향은 그전보다 더 초라하고 황량한 모습으로 그를 맞는것이었다.

모든것이 어두웠다. 모든것이 슬픔에 잠겨있었

다. 자기 발이 아닌 3,000명이 보이는곳에 이르자 그의 걸음발은 더욱 무거웠다.

그는 침울한 눈길로 발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채 패말을 박았던곳으로 다가갔다. 패말을 박은 자리를 섣뜻 찾지 못했다. 그의 기억을 방해하는것은 세가닥으로 뻗어오른 버드나무였다. 전에는 없던 버드나무였다. 난데없는 이 버드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박았는가.

버드나무를 바라보던 구진팔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가지 옷초리에 형겅이 감겨있었다. 누구의 세심한 관심속에 있는 나무였다.

《아!!》

그는 거꾸러지듯 뚫어앉아 정신없이 밑등을 찼다. 분명했다. 그것은 패말에서 돌아난 버드나무였다.

구진팔은 그만 버드나무아지를 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참 기막힌 일도 있지. 참 기막힌 일도 있지.)

버드나무를 쓸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느라니 가슴속에 무겁게 드리웠던 매연같은 절망감이 씻긴듯 사라져버리는것만 같았다. 그 어떤 알수 없는 환희가 전신에 휩싸였다.

(패말에서 버드나무가 나오다니!!)

구진팔은 매끄러운 버드나무잎사귀와 아지를 어린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듯 만졌다.

컴컴하게 녹색이 질어가는 잎들은 건들바람에도 연한 몸을 떨었다.

구진팔은 벌써 어지간히 실해진 줄기를 여전히 쓰다듬고있었다. 버드나무겉질이 윤나게 반들거리는 부드러운 감각이 느껴지자 그는 쓰러지듯 버드나무를 끌어안았다.

(이런 희한한 일을 보자고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구진팔은 삶의 소생을 이 버드나무에서 다시 찾은듯싶었다.

구진팔은 버드나무에서 눈길을 떼며 주위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누구야요?》하는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등뒤에서 낯선 소년이 의심쩍스러운 눈길로 그를 보다가 손에 들었던 물소레를 집어던지고 나는데 달려왔다.

《할아버지!!》

《...!》

《할아버지, 나 동휘야요.》

《뭐?!》

5년이란 세월이야말로 얼마나 기막힌 나날들이였는가, 구진팔은 알아볼수 없게 자란 손자를 꼭 그리안은채 부들부들 떨었다.

동휘는 집안일이며 동리일을 두서없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패말에서 돌아난 버드나무썩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부터 이야기하였다.

동휘는 버드나무의 애어린 아지를 누가 꺾을까봐 매일이다싶이 지켜본거며 오늘 라병부의 막내가 이 나무가지를 꺾으려드는걸 보고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울며 웃으며 했다.

《그래 용타 용타, 참 신기한 일이구나!》

구진팔은 동휘의 말을 꿈결처럼 들으며 버드나무가 나온것이 별로 신기스러워 그 어떤 행운의 징조처럼 느끼었다.

구진팔은 동휘의 머리를 그 어느때처럼 쓰다듬어주며 자기자신에게 하얗은 말을 속삭였다.

《동휘야, 이제 좋은 날이 올거다. 봐라, 이 버드나무가 왜 나왔겠니. 해가 그리워 나왔거든. 그래서 기를 써 땅을 뚫었을거다.》

이때 뜻밖에도 그 발에 라병부가 나타났다.

《거 누군데 남의 발에 와서 어슬렁거려 웅? 구진팔이?!》

《남의 발이라구? 이진 내 땅이웨다!》

구진팔은 멍멍이 대답하였다.

《뭘? 네 땅? 네 땅이 어디 있어? 네가 아직<가막소>밥을 덜 먹었구나.》

《뭘? 그래 내 땅이 없다구?》

구진팔은 주먹을 부르쥐고 맞받아나섰다. 그의 두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라병부는 구진팔의 뜻밖의 태도에 뒤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당장 때릴듯이 다가드는 구진팔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이 땅은 미군이 군용지로 쓰게 된 내 땅이다. 난 벌써 돈도 다 받았다!》

그는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황황히 사라졌다.

구진팔은 겁이 나서 출행랑을 놓는 라병부의 물골이 사라질 때까지 무섭게 눈총을 쏘았다.

《애야! 가자!》

그의 말은 통명스럽게 울렸다.

구진팔이가 돌아온지 사흘만에 갑자기 미군의 연유창고가 폭발하고 거기에 불이 일었다. 기름은 나흘동안 불었다. 연유창고 폭발로 마을이 뒤숭숭해졌다. 닷새만에는 법인들이 체포되었다. 거기에는 구진팔로인도 있었다. 그들이 사형장에 끌려나왔을 때 온 월파마을사람들도 다 모였다. 구로인은 줄곧 버드나무만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옆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저건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일세. 저 버드나무는 내 땅이라고 쓴 그 패말에서 싹이 나온거라네... 참 기막힌 일도 있지.》

월파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둔덕에 오른 구진팔은 눈을 싸맬 때까지 까딱 앓고 자기 발 3,000평을 보았다.

한놈이 구진팔의 눈에 검은천을 씌우려고 하자 그는 벽력같이 소리쳤다.

《야 이놈들아, 눈에다 그걸 가리면 내 발이 안보일줄 아느냐.》

그리고는 사람들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여러분! 울지들 마시우. 내 다시 오리다. 땅은 없앨수 없수다. 저 땅의 주인은 우리들이외다. 우리 마음이 다 합쳐 커지느라면 이 백정놈들의 세상은 망할거우다. 그날을 위해 힘껏 싸워들 주시우.》

구진팔은 할아버지를 소리쳐부르며 울고있는 동휘에게 머리를 돌렸다.

《애 동휘야, 울지 말아. 이제 버드나무가 크거들랑 나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농작속에 있는...》

구진팔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총소리는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구로인은 총에 맞았으나 할 말을 다 한듯 빙그레 웃으면서 쓰러졌다.

구진팔은 터갈라진 두손으로 으스스리게 땅을 끌어잡았다.

평생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죽어서라도 이루려는듯 그는 두줌안에 흙을 움켜쥐었다.

구진팔은 죽었다. 자기 땅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자기 땅을 가져본 기쁨을 것처럼 크게 알았던 월파마을의 첫 농민은 영원한 땅의 말뚝으로 된 것이다.

동휘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부락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한번은 꼭 보고야말리라고 생각했던 그 농작속에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두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집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할아버지가 조심히 두손에 받쳐들곤하던것을 동휘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것처럼 두손우에

받쳐들었다. 이전에는 썩 무거운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 가벼운데 동휘는 놀랐다.

(할아버지는 몹시 무겁게 들었는데?)

동휘의 작은 두손은 떨렸다.

종이로 여러벌 싸고 또 싼것을 한겹씩 풀어내는 동휘는 의혹이 점점 커졌다. 도대체 어떤 귀중한것이기에 이처럼 싸고 또 싼것일까? 종이를 다 풀어헤친 동휘는 저도모르게 두손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사진이 한장 있었던것이다.

그 사진은 **김일성** 장군님의 사진이었다. 동휘는 할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이처럼 귀중히 농작속에 보관했는가를 알았다.

구진팔로인은 살아있다.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바친 그의 넋은 오늘도 살아있으며 버드나무는 무성히 자랐다.

황망한 광야에서 몰아치는 눈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도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전해보다 더 많은 가지를 뻗고 마침내는 무성한 숲을 이룬 버드나무, 신문에 실린 기사 주인공에 동휘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오늘은 수많은 동휘들이 있으며 버드나무회들이 있다. 없앨수도 파헤칠수도 없는 태동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마침내 통일된 강산에서 그토록 념원하던 구진팔의 소원은 이루어지고야말것이다.

문예출판사 부장

가사

학습경연에서 만난 부부

박상철

오늘은 우리 공장 학습강연날
두 학습조 자신있게 마주앉았네
혁신자로 영예떨친 남편과 안해
여기에서 만날줄은 정말 몰랐네
남보기에 부끄러워 얼굴 붉혀도
학습에선 양보없는 부부이라네

선참으로 문답식에 나와선 안해
신통히도 남편을 짚을줄이야
웃음소리 떠들썩 립장 딱해도
소문없이 승부를 다루는 부부

집에서는 아기자기 살뜰하더니
웬일인지 경연에선 엄격하다네

부부간이 다같이 공부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한 학습조원들
안해는 그제야 얼굴 붉히며
정깊은 인사를 남몰래 보내네
공장에선 혁신자로 소문난 부부
학습도 잘하여 모범이라네

문화예술부 지도원

당일군에 대한 생각

리행순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제기되거나 또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당조직부터 생각하며 서슴없이 당위원회를 찾아간다.

그것은 바로 당이 자기들 한사람한사람을 다 맡아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가면서 능 책임적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이고 한생을 빛나게 살아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가장 친근한 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참된 당일군들을 두고 《우리 비서》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존경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 비서》라는 말을 외울 때면 스스로 우리 공장의 당비서를 생각하곤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일군들은… 어머니가 아들딸들을 대하는 것처럼 인자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늘 보살펴주고 그들이 곤난해하는 문제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모든 일군들이 스스로 당위원회에 찾아와서 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생활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다 서슴없이 내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며 일하는 우리 공장의 당비서도 바로 사람들로 부터 《우리 비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

하루에 세마디밖에 하지 않는다는 기술과의 박기사동무는 오늘 퇴근길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비서동무가말요. 오늘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넣은 전구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더 밝은 빛을 안겨주라고 말하지 않겠소.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이라고말요.》

나는 그의 흥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기사인 박동무에게 있어서 새로운 광원을 연구해보라는것이 사실상 그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비서》가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해주었다는데 있는것이다.

나는 《우리 비서》라고 힘주어 부르는 박기사의 믿음에 찬 말이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하면 박동무는 본래부터 우월한 사람 아니였었다.

그는 몇해전에 전기로 대신 석탄로로 개조하는 연구과제를 맡고 끝내 성공시키지 못하여 여러번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완전히 우울하고 조심성 많은 사람으로, 언제나 나서지 않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달전 기술자들의 협의회에서 초급당 비서동무는 전기를 더 많이 절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토론해나가다가 맨 뒤에 앉은 박기사보고 왜 아무 의견도 제기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전기로를 석탄로로 개조하던 그 전날의 문제를 상기시켰던것이다.

박기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 문제는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것을 말하자 당비서는 다 알고있다는듯 웃으며 그가 시험하던 과정의 어느 부분을 들어 걸렸던 고리의 방도까지 암시하여주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당비서는 그 문제를 우리 두사람의 공동과제로 하자고, 밀어주겠으니 꼭 함께 하자고, 자기도 좀 배워야겠다고 허물없이 다정하게 말하였다. 그때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박기사를 본래의 탐구심이 있고 명랑한 기술일군으로 되돌려 세워주려는 당비서의 의도에 크게 공감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치되었는지 오래지 않은 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저 탄복했지만 이 저녁 박기사의 열정에 찬 말을 들은 다음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당일군-《우리 비서》에 대한 사색의 세계에 끌려들었다.

한번은 위경련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당비서결에서 내가 어쩔줄 몰라 찢찢매고있는데 박기사가 자기의 연구에서 그토록 고심하며 애먹던 고리가 풀려 너무도 기쁨김에 훌쩍 뛰어들었다.

이때 당비서동무는 박기사의 흥분하여 떠듬거리는 말소리와 그의 표정을 보면서 대뜸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 묘리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파고드는지 나는 그만 입을 벌리고말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릴 일앞에서는 자신의 육체적고통도 잊어버리는 사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해 충실하려는 사람을 보면 가장 진귀한 보석을 찾았을 때처럼 기뻐하는 사람, 《우리 비서》는 바로 이번 사람이였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마치 아이들이 어머니를 따르듯이 당비서를 따르며 언제 어느때든 서슴없이 찾아가 흥금을 더놓는다.

진한 눈섭에 철책을 가진 그 평범한 인간의 어

디에 자석이 쇠붙이를 당기듯 것처럼 사람들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가. 특별히 남보다 요란하지도 않는 체력의 그 어디에 천지물마냥 진할줄 모르는 정열이 숨겨져있던가.

사람들은 그에게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는 충성심과 자기들을 위하는 진심을 읽었기때문에 것처럼 믿고 따르는것이다. 그 언제나 진정은 진정으로 감수되는 법이니까.

당비서가 어찌하여 이처럼 박기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나에게는 문득 수첩이 생각났다.

내게 보관되어있는 그 수첩의 명단에서 박기사의 이름 밑에 진하게 두줄이 그어져있는것을 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었다는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당비서동무의 수첩이 나에게 오게 되었던가.

시원한 저녁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가운데 나의 머리에서 사색은 내가 반한 훌륭한 인간의 인상을 따라 끝없이 나래쳐갔다.

얼마전 일이었다.

나는 월계획을 초과완수한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정문축하모임에 나간적이 있었다.

모범노동자이며 혁신자인 강철우동무가 맨먼저 들어오자 우리 당비서는 달려나가며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고는 지배인동무의 손을 맞잡고 공중던지기를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가 거들었다. 당비서는 그관에서 수첩이 떨어지는것도 모르고 오직 이 세상에는 그 일밖에 없다는듯 열중하여 혁신자를 들어올리고 또 들어올리었다.

나는 혁신자 철우동무보다도 그를 떠날들어올리는 당비서동무를 더욱 황홀히 쳐다보다가 떨어진 수첩이 짓밟힐것 같아 그리로 달려갔다.

수첩은 몇장이 번져진채 떨어져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수첩을 주으며 수첩장에 한 행정부서의 직능에 따르는 일군들의 이름과 년령이 적혀져있는것을 보고 놀랐다. 무엇때문에 항상 넣고 다니는 수첩에 이런것을 적었을가?

그러나 나는 이런 의문에 오래 잠겨있을 새가 없었다.

나 역시 누구인가 잡아당기는 손을 따라 다른 혁신자를 들어올리느라 정신이 없었기때문이다.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함열쇠를 꺼내려고 양복주머니를 뒤적이던 나는 반들반들한 밤색투경의 수첩을 발견하고 좀 딱한 생각이 들었다.

당일군의 사업비밀을 엿보게 된것 같은감에서였다.

내가 수첩을 돌려주려고 당비서에게 가서 미안해하자 당비서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거기엔 뭐 별것이 없소. 내 식으로 만든 종업원명단일 따름이요.

동무가 공장에 온지 몇달이더라? 6개월, 6개월이라, 공장사람들을 다 아오? 다 모른다. 그럴테지. 그럼 내가 이 수첩을 동무에게 줄가, 이젠 나에겐 그 수첩이 필요없는데… 아니 그럴것 없이 새수첩을 쥐야지…》

나는 새 수첩을 받아쥐며 망설이다가 물었다. 이런 수첩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기억해야만 하는가? 오래 있으면 저절로 알것이 아니냐고.

나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물었으니 대답을 해야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맡겨주신 당일군으로서 일을 잘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병상태부터 알아보고 치료하듯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들을 잘 발동시켜야 되지 않겠소.

물론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 될게 아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아도 상대방이 나를 알면 나도 그 사람을 아는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몇십년전의 사람들도 일일이 기억하시며 바다보다 더 깊은 은정을 베푸시는데…

참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구만.》

당비서 방에서 나오며 사람들이 그를 《우리 비서》라고 부르는 그 뜻을 가슴뜨겁게 깨달았다.

《우리 비서》!

그 어느 시기나 그 시대적특징에 따라 그 시대에 특별히 더 쓰이는 어휘들이나 말이 있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라는 말이 지나온 그 어느 시기보다 류행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조국》, 《우리 공장》, 《우리 작업반》… 이 모든 명사들에 《우리》가 바늘에 실이 끼여있듯이 따라다닌다.

하여 가장 고귀하고 친근한데 《우리》를 붙인다.

《우리》-모든 다정함과 친근함, 마치도 한가정을 의미하는듯한 이 대명사, 이 대명사가 붙은 《우리 비서》!

이 《우리 비서》라는 말속에 온갖 훌륭한것, 다정한것, 친근한것이 다 들어있는 칭호를 받은 우리 시대의 당일군들.

이 고결한 품모와 사업방법은 결코 어느 한두 사람에게 국한된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에게 확고한것으로 되어가는것이며 이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나는 나의 사색을 총화지으며 산산한 저녁바람이 정다운 어머니의 손길마냥 얼굴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가벼이 머리카락을 날려주기도 하는 이 밤을 한껏 즐기면서 힘있게 걸어갔다.

영원한 삶에 대한 시

성만실

여기는
벼이삭 익어가는
가을날의 두렁길도 아니다
귀여운 어린것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르는
웃음많은 아침길도 아니다
여기는
열아홉 청춘으로 영원한 삶을 남긴
리수복영웅이 걸어간 길

나의 화선동갑인 옛 민청돌격조장의
숨결소리를 조용히 듣고싶다
보병총 탄피속에 새벽이슬을 받으며
다감한 미소를 짓던
내 병사시절의 《제 1 분대장》의 얼굴을
지금 단 한번이라도 가까이 보고싶다

불타는 이 언덕을
총권 혁명전사의 삶의 주소로 정하고
몸에 맨 병사의 쇠소리나는 그 걸음으로
생의 절정에 올라서는 영생의 시각까지도
기꺼이 정보로 간
그대의 위훈의 발자욱을 조용히 세여보고싶어
그대의 발자욱소리를 잠시라도 듣고싶어
언젠가 전호가에서 읊던
백두산에 대한 시를
전승의 그날에 어머님께 읊어드리겠노라더니
그 언젠가 야전대호로 부치던 전호가의 편지에
송계산기슭의 풍년물소리가 무척 듣고싶다 하더니
그 진정이 그대로
열다섯발자욱밖에 안되는 조국땅의 좁은 구간을
이 돌격로우에서 영원히 천만리로 넓혀갔구나

아직도 이 땅 끝까지 가리라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조국이 상기도 쉬엣구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뜻 이 언덕에서 내려설줄 모르는가
세월이 흐를수록
총창끝에 서리발을 더 무겁게 덧엮어가며

그대의 군복설에 매달리며
장군님 품에서 책가방을 메고싶다면
령남땅의 벌거숭이아이들을
소년궁전의 화려한 무대에 올려놓고싶어
《돌격 앞으로!》 구령을 치던

결전의 그 시각을 세월의 흐름우에 끝없이 이어놓
으며
예나 다름없이
지금도 그대는 싸움속에서 사는구나

그렇다
저기 복반은 어린것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빛찬란한 창가에 더 높이 울리라고
가을날의 웃음이 더 많이 쏟아지라고
인민의 재부가 쌓이는 소리가
조국땅에 더 기쁘게 들리라고
그때문에 지금도 그대는
이 언덕에서 내려설줄 몰라라

세월은 흘러
병사시절의 옛 동갑들은
벌써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해도
삶과 미래를 목숨으로 수호한 병사의 권리로
조국이 준 영원한 나이대로
영웅은 어제도 열아홉살
오늘도 열아홉살

오 총포가 쏟아지는 결전의 한끝에 올라서서도
총권 자세를 낮추지 않고
아직도 원썩들에게
세월우에 덧쌓인 무서운 불을 무자비하게 쏟아놓
으며
그대는 육탄으로 시를 읊고있구나

불타는 참호속에서 우리와 헤어지던 날
남해의 기슭에서 자작시를 꼭 읊겠노라
약속하고 떠나가더니
조국땅과 나눈 그날의 약속때문에
온 나라가 락원의 기슭에서 행복을 즐기는 이 저
녁도
그대만은 그날의 결전의 언덕에서 내려서지 않은
채
아직도 읊고있구나
《돌격 앞으로!》
우리 시대의 영원한 삶의 시를!

한학구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로동자

산촌의 저녁길에

문기창

숲속의 산새들도 정답게 지저귀여라
꽃들도 활짝 피여 향기를 풍기여라
산촌마을 찾아오신 수령님을 맞은 기쁨
먼길을 달려온 승용차를 둘러싸고
아이들도 즐거워 떠날줄 모르는 이 저녁

마을길에 새겨진 차바퀴를 가리키며
문득 한 어린이
고개 가웃이 동무들에게 묻는 말
-원수님 모시고 온 차바퀴자리가
뜨락또르바퀴자리보다 왜 희미할까?

천진한 물음이 아니여라
어린 마음에도 생각깊은 그 말
뜻밖의 질문에 까만 눈들이 반짝이더니
저마다 하나같이 하는 대답은
아버지원수님께서 온 조국땅을 찾아다니시니
차바퀴가 닳고 닳아 그런것이라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꾸밈없는 그 물음, 그 대답을 두고
철없다고 하기엔
너희들 하는 생각이 기특해
내 마음조차 뜨거워진다

그렇구나
우리의 아버지수령님
그 옛날엔 소발구조차 다니기 비좁던
이 외진 산촌에까지 몸소 찾아오셨으니

차바퀴인들 어찌 닳지 않았으랴

아 이처럼 찾으신 길, 떠나신 길
조국땅 수천리 몇백번이라
날을 따라 해를 따라 그 길은 끝없이
이 세상 지구우에 몇십번을 이어놓아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길이를 모르리니

찾으시여 걸으시는 길없는 길에
우람한 기계들이 오가는 큰길이 나고
눈비를 맞으시며 땀기신 진펄우에
거창한 철의 지붕들이 하늘가에 솟아나고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는 바다가에
가없는 푸른 들이 펼쳐지는것 아니냐

기특한 산촌의 아이들아
너희들의 그 물음 그 대답이
너희들이 밟고 선 그 길로 열리였고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시여
오늘의 이 길은 또 얼마나 넓어질것인가

아 이 땅 그 모든곳을
아버이수령님 걷고 걸으시며
굶임없이 넓혀주시는 사랑의 큰길우에
너희들이 가고
우리가 갈
조국의 미래가 창창히 열리여라

평양시 청년회관 지도원

잊을수 없는 사람

윤경주

헤어진 그날이 어제런듯
생각하면 눈앞에 선한 그 모습
꿈결에도 마주향해 걸어올것만 같은
이 가슴에 그리운 전우여

잊을수 없어라, 옛세포위원장
당생활의 매 순간마다
그대는 언제나 내앞에 서있어라
당원의 량심에 녹이 갈세라
자그마한 티라도 짚세라

아름찬 분공을 받은 날이면
나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는듯
결전의 언덕우에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
승리의 고지에 세워준 그 새벽처럼
오늘도 그 위치에 나를 세워주는 사람

돌격을 앞둔 갯도속에서
입당청원서를 쓰는 내 머리말에
그대가 밝혀주던 그 등불이
상기도 내 가슴에 비쳐오고있어라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공화국기발을 넘겨주며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대의 눈빛처럼

나의 집 옷걸이에 그대 옷 걸려본적없고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보지 못했건만
소대가 함께 찍은 병사시절의 사진에서
그대의 모습을 낮익히며 자란 내 자식들
세포위원장아저씨로 부르는
그대는 우리 집의 다정한 식솔이 아닌가

내 당생활의 먼 앞날을 몇몇이 보증하며
나의 당원증에 이름을 남기고 간 전우여

포연을 헤쳐온 내 당생활의 첫기슭에서
당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나의 걸음을
당세포의 결정으로 받들어
내 심장속에 심어주었거니

아, 우리 당을 따라 나아가는
혁명의 천만리길에
언제나 함께 있구나
나의 첫 세포위원장
내 언제나 잊을수 없는 사람아!

조선적십자병원 의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영광을 안고 주인공처럼 살립니다

저는 장편소설 《축원》을 읽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를 통하여 이미 깊
은 감명을 받은바이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주
체형의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믿
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
신성있게 전진한 레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장편소설 《축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
을 믿으시고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우러러받드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
고있습니다.

저는 이 장편소설을 읽으면서 특히 소설의 주
인공 한중녀어머니의 성격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
명전사는 어버이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모시고 따
라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그처럼 뜨거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충동을 느
끼게 하는 주인공 한중녀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시련의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지난날 나라없던 세상에서 지주놈의 머슴을 살
던 남편을 잃고 먹을것이 없어 굶주리던 끝에 세
자식마저 잃게 된 어머니, 기막힌 가슴에, 슬픔인
들 그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기에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년 충성
다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리도 뜨겁고 절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이 그토록 뜨
거웠고 그 은정 그토록 고마왔기에 어머니는 조
국을 지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말아들의 유서를
받았을 때에도 눈물대신 보탑을 더 억세게 틀어
쥐었고 둘째아들마저 조국의 하늘을 지켜싸우다
가 두눈을 잃고 돌아왔을 때에도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억척같이 일해갑니다.

이렇듯 가정적인 불행을 련이어 받아안은 어머
니에게 어찌 슬픔인들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로고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꾀없이 이겨나갔고 어버이수령님
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오직 한마음으로 굳
세게 살아감으로써 말아들의 유서에 담긴 뜻을
실현해나가는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어버이수
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지성에서 감명깊게 그려지고 있습
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거장으로 가실 길에 돌맹이 하나, 짚검불 하나라도 있을세라 새날이 밝아 오도록 그 길을 비로 쓸고 또 쓸어간 어머니, 그 길우에 비단을 펼치고 옥돌을 쪼아 깎다한들 그 지성에 담긴 어머니의 모든 소원과 념원을 다 표현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소설은 어머니의 이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쓰고있습니다.

《아,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깨닫고 생활을 통하여 억척같이 다져진 그의 순결하기 그지없는 절절한 념원은 오직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력사우에 처음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비는 축원이였다. 이것은 그가 오랜 세월의 대하같은 흐름속에서 벅속깊이 통감한 심장의 기원이며 삶의 신조이며 굶힐수 없는 신념이였다.》

어머니는 꿈결에도 만나뵈옵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것처럼 정성들여 쓴 길에 모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말씀을 받는 무상의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그 행복한 순간에 어머니는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이 추가신것을 뵈옵고 것처럼 가슴아파하며 백성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을 통감합니다.

《수령님, 안색이 몹시 축났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나쁜놈들은 인민생활이 어렵다 어떻게 하지만 인제 우리는 다 잘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쏘아치는걸 우리가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렴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두손길 받들어 지지합니다.》

이것은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서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이며 가슴뜨거운 호소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심정이자 곧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어머니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살며 일해가는 어머니이기에 그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축산을 못하게 갖은 방해책동을 다할 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놈들과 맞서 건결히 싸웁니다. 그 과정에는 피로운 일도, 가슴쓰린 사연도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반당종파분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엄지돼지에 독약을 먹여죽이고도 그 혐의를 어머니에게 들씌우는가 하면 맘머느리를 조합관리위원장 직책에서 철직시키겠다고까지 울러댁니다.

당정책을 집행하는가 방해하는가를 판가리하는 투쟁, 참으로 그것은 치열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축산정책을 건결히 옹호관철해나갑니다.

갓 조직된 조합에 돼지먹이가 부족하자 어머니는 사료전을 만들어 똑감자도 심고 호박도 심어 돼지먹이를 마련하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자신이 소달구지를 끌고 왕복 60리되는 읍 식료공장에까지 가서 먹이를 얻어옵니다.

그리하여 별방에서는 돼지를 기를수 없다던 반당종파분자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두마리의 엄지돼지에서 스물세마리의 새끼돼지를 받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의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가해지던 반당종파분자들의 협박을 물리치고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고야만 어머니의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가장 크나큰 기쁨이었으며 행복이였습니다.

저는 장편소설《축원》을 읽고 작품의 종자가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다하는 바로 이러한 힘, 이러한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소설의 주인공 한중녀어머니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는 다함없는 영광을 안고 우리 발전소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모든것을 다 바치며 발전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줌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본분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 서재중